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MDIS 분석연구

2021. 12. 30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MDIS 분석연구

2021. 12. 30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과학적 정책결정지원을 위한 MDIS 분석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충남연구원장 유 동 훈

목 차 Contents

I.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분석자료 선정	4
II. 2017년 노인실태조사 분석	7
제1절 분석 개요	9
제2절 분석 결과	10
제3절 시사점	46
III.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분석	49
제1절 분석 개요	51
제2절 분석 결과	52
제3절 시사점	68
IV. 2019년 주거실태조사 분석	71
제1절 분석 개요	73
제2절 분석 결과	74
제3절 시사점	98

그림 목 차

I. 연구 개요

[그림 1-1] 분석자료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4
[그림 1-2] 분석자료 우선순위 선정	4
[그림 1-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IPA 분석 결과	5
[그림 1-4] 최종 분석자료 선정 과정	5
[그림 1-5] 최종 분석자료 선정 결과	6

II. 2017년 노인실태조사 분석

[그림 2-1] 시도별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 응답 평균	10
[그림 2-2] 지난 2년간 시도별 노인의 건강검진 추진 응답 비율	11
[그림 2-3] 지난 2년간 시도별 노인의 치매검진 추진 응답 비율	11
[그림 2-3]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를 못 받은 시도별 노인의 응답 비율	12
[그림 2-4] 지난 1년간 충남 노인이 병의원 진료를 못 받은 이유 응답 현황	12
[그림 2-5] 지난 1년간 치과 진료를 못 받은 시도별 노인의 응답 비율	12
[그림 2-6] 지난 1년간 충남 노인이 치과 진료를 못 받은 이유 응답 현황	13
[그림 2-7] 시도별 노인의 공공 운동시설 이용 응답 비율	13
[그림 2-8] 시도별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 응답 비율	14
[그림 2-9] 시도별 노인의 식사배달서비스 이용 응답 비율	14
[그림 2-10] 시도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	15
[그림 2-11] 충남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응답 현황	15
[그림 2-12] 시도별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가 '필요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	16
[그림 2-13] 시도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받는 주체 응답 비율	16
[그림 2-14] 시도별 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응답 비율	17
[그림 2-15] 충남 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응답 현황	18
[그림 2-16] 시도별 노인의 현재 일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	19
[그림 2-17] 시도별 노인의 월 근로소득 응답 평균	19

[그림 2-18] 시도별 현재 일하는 노인의 '농림어업' 종사 비율	20
[그림 2-19] 시도별 노인의 현재 일하는 가장 큰 이유	20
[그림 2-20] 현재 일에 '불만족 한다'는 시도별 노인의 응답 비율	21
[그림 2-21] 충남 노인이 현재 일에 '불만족'하는 이유 응답 현황	21
[그림 2-22] 시도별 노인의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응답 비율	22
[그림 2-23] 시도별 노인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응답 비율	22
[그림 2-24] 구직활동 노력(1순위)으로 '취업 지원 센터 의뢰'를 응답한 시도별 노인의 응답 비율	23
[그림 2-25] 시도별 노인의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 응답 비율	24
[그림 2-26] 시도별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영역 응답 비율	25
[그림 2-27] 시도별 노인의 학습활동 시 주로 참여하는 기관 응답 비율	25
[그림 2-28] 시도별 노인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응답 비율	26
[그림 2-29] 시도별 노인의 지난 1년간 경로당 이용 응답 비율	27
[그림 2-30] 충남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응답 현황	27
[그림 2-31] 시도별 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복지관 이용 응답 비율	28
[그림 2-32] 충남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응답 현황	28
[그림 2-33] 시도별 노인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만족' 응답 비율	29
[그림 2-34] 시도별 노인의 우울증 척도 응답 비율	30
[그림 2-34] 시도별 노인의 우울증 척도 응답 비율(계속)	31
[그림 2-35] 시도별 노인의 가치관 '긍정' 응답 비율	32
[그림 2-36] 시도별 노인학대 응답 비율	33
[그림 2-37] 시도별 노인의 노인학대 목격 시 대응방법 응답 비율	34
[그림 2-38]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노인의 시도별 응답 비율	35
[그림 2-39] 충남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 응답 현황	35
[그림 2-40] 시도별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	36
[그림 2-41]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평소 건강상태 "나쁘다" 응답비율	37
[그림 2-42]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평소에 운동한다'는 노인의 응답 비율	37
[그림 2-43]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우울증 척도 "부정적" 응답 비율	38
[그림 2-44]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지난 1년간 음주빈도 응답 비율	40
[그림 2-45]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영양관리 문항별 응답 비율	41
[그림 2-46]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일생생활수행에 있어 도움 받지 못함' 응답 비율 ..	42
[그림 2-47]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일을 하지 않는다' 응답 비율	43
[그림 2-48]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하루 평균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간 응답 비율 ..	43
[그림 2-49]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경험이 있다' 응답 비율 ..	44
[그림 2-50]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삶의 부분별 '불만족' 응답 비율	44

Ⅲ.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분석

[그림 3-1] 시도별 상용근로자 응답 비율(조사대상주간 : 2020.10.11.~10.17.)	52
[그림 3-2] 상용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의 시도별 응답 평균	53
[그림 3-3] 임시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의 시도별 응답 평균	53
[그림 3-4] 시도별 구직활동 응답 비율(지난 4주내, 2020.09.20.~10.17.)	54
[그림 3-5] 시도별 구직자 주요 구직방법 응답 비율	55
[그림 3-6] 시도별 구직자 주요 구직경로 응답 비율	56
[그림 3-7] 시도별 구직자 구직활동 기간 응답 평균	56
[그림 3-8] 시도별 비구직자 직장(일) 비희망 비율(조사대상주간 : 2020.10.11.~10.17.)	57
[그림 3-9] 충남 비구직 응답자 중 직장(일)을 희망한 응답자의 퇴직 사유 응답 현황	58
[그림 3-10] 충남 구직 비희망자 퇴직 사유	58
[그림 3-11] 시도별 타 지역에서 근로하는 청년 응답 비율	59
[그림 3-12] 대전 및 세종 청년의 타 지역 근로 응답 비율	60
[그림 3-13] 시도별 청년 상용근로자 비율	60
[그림 3-14] 청년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의 시도별 평균	61
[그림 3-15] 시도별 청년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 성별 격차	61
[그림 3-16] 시도별 청년 비구직자 직장(일) 비희망 비율(조사대상주간 : 2020.10.11.~10.17.)	62
[그림 3-17] 충남 청년 비구직자의 비구직 사유(지난 4주내, 2020.09.20.~10.17.)	62
[그림 3-18] 시도별 해당 소재 지역대학 졸업 응답자 타시도 취업 비율(2018)	63
[그림 3-19] 충남지역 대학 졸업 응답자 성별 취업 지역 비율(2018)	63
[그림 3-20]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전공별 취업지역 응답 비율(2018)	64
[그림 3-21]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학교유형별 취업지역 응답 비율(2018)	65
[그림 3-22]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국·공·사립별 취업지역 응답 비율(2018)	66
[그림 3-23]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취업 지역별 월급 평균(2018)	67
[그림 3-24]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취업 지역별 정규직 비율(2018)	67

Ⅳ. 2019년 주거실태조사 분석

[그림 4-1] 시도별 자가 거주 응답 비율	74
[그림 4-2] 시도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연대별 응답 비율	75
[그림 4-3] 시도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 응답 평균	75
[그림 4-4] 시도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마련 방법 응답 비율	76
[그림 4-5] 시도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구입 자금 중 자기자금 응답 비중	76

[그림 4-6] 시도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이라는 응답 비율	77
[그림 4-7] 시도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지어진 시기별 응답 비율	78
[그림 4-8] 시도별 주거환경 만족도 '만족'응답 비율	79
[그림 4-8] 시도별 주거환경 만족도 '만족'응답 비율(계속)	80
[그림 4-9] 시도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81
[그림 4-10] 시도별 향후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	82
[그림 4-11] 시도별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	83
[그림 4-12] 시도별 내 집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응답 현황	83
[그림 4-13] 시도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응답 비율	84
[그림 4-14] 충남 응답자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필요'응답 비율	84
[그림 4-15] 시도별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알고 있다' 응답 비율	85
[그림 4-16] 시도별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이용 한다' 응답 비율	86
[그림 4-17]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응답 비율	88
[그림 4-18] 시도별 주택개조 부분별 경험 '있음' 응답 비율	88
[그림 4-19] 시도별 주택개조 부분별 필요성 '필요' 응답 비율	90
[그림 4-20] 시도별 전체 응답자 중 독거노인 응답자 비율	91
[그림 4-21] 시도별 독거노인 주거 점유형태 응답 비율	92
[그림 4-22]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마련 방법 응답 비율	93
[그림 4-23]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가격대별 응답 비율	94
[그림 4-24]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가격 응답 평균	95
[그림 4-25] 시도별 독거노인 임대주택 유형별 거주 응답 비율	95
[그림 4-26]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 상환 '부담' 응답 비율	96
[그림 4-27]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 응답 비율	96
[그림 4-28] 시도별 독거노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하다' 응답 비율	97
[그림 4-29] 시도별 '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 공공임대주택 인지 및 입주의향 응답 비율	97

Ⅰ 제1장 Ⅰ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분석자료 선정(시범분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데이터 수집·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
- 충남도는 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하고 도내활용가능 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관리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데이터의 연계, 활용을 통해 과학적인 정책수립 결정을 지원
- 「통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남도 및 연구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활용은 저조한 편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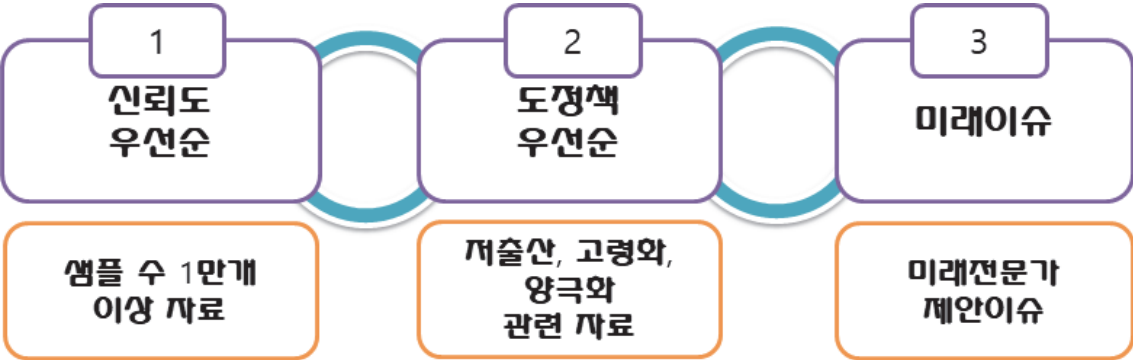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는 통계청 작성 자료 48종, 통계작성기관(중앙정부) 작성자료 101종외에 자치단체, 공공기관 작성 자료에 대해 제공 중
- 그러나 대부분의 실과 공무원들은 MDIS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데이터 추출과 활용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
-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충남과 관련된 주제별·영역별 세부 통계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담당자의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또한 기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현황보다 세분화된(시도/시군 구분,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구분 등) 분석을 통해 충남의 경제, 산업, 문화, 환경, 주거, 복지 등 영역별 위상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진단하여 경제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도정 현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제2절 분석자료 선정(시범분석)

1.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분석가능 한 96개 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충남의 위상을 분석
 - 향후 “정책데이터 연구센터”가 구축된다면 96개 전체를 분석할 계획
- 신뢰도, 도정책, 미래이슈 등을 감안하여 분석자료 선정
-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해 중요도 및 시급한 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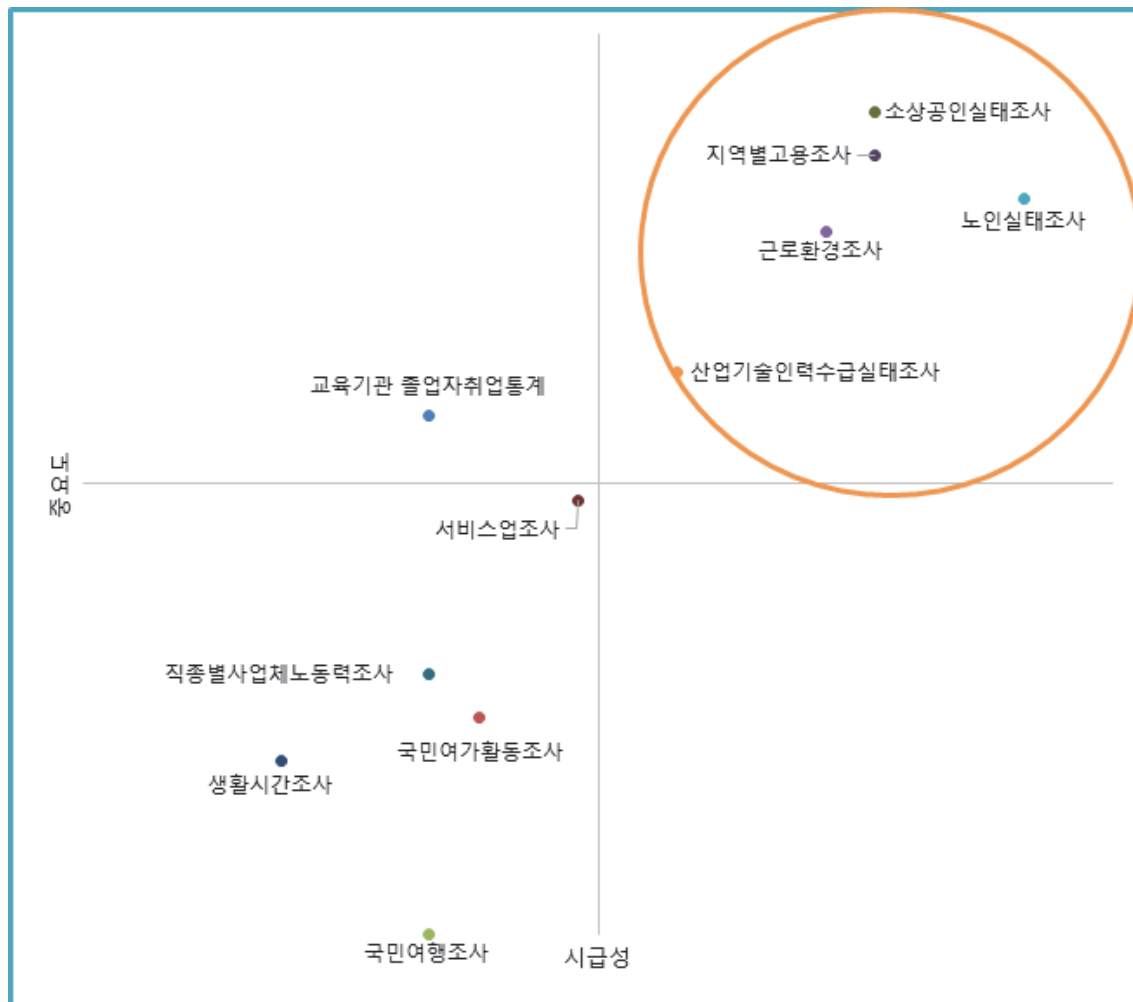
[그림 1-1] 분석자료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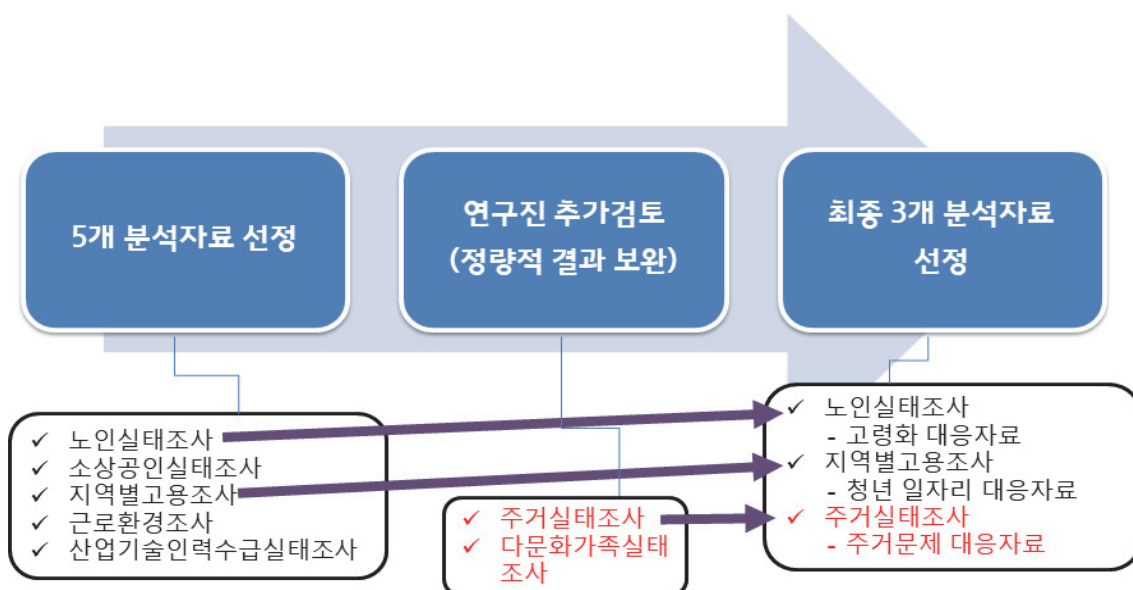
[그림 1-2] 분석자료 우선순위 선정

분석 필요성 (상)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2018)	노인실태조사(2017)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2020)
	소상공인 실태조사 (2019)	지역별고용조사(2020)	
분석 필요성 (중)	국민여가활동조사 (2018)	국민여행조사(2019)	근로환경조사(2017)
	생활시간조사(2019)	서비스업조사(2019)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2020)

[그림 1-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IPA 분석 결과



[그림 1-4] 최종 분석자료 선정 과정



2. 최종 분석자료 선정 결과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IPA분석을 통해 중요하고 시급성이 높은 조사 선정
- 선정된 5개 조사 중 연구진 추가검토를 통해 최종 3개 분석자료 선정
 - 노인실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주거실태조사를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

[그림 1-5] 최종 분석자료 선정 결과

○ 분석자료 최종선정결과 : **노인실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주거실태조사**



○ 최종선정 된 3개 자료 중 2개는 전문가 워크숍을 거쳐 정책방향 논의



Ⅰ 제2장 Ⅰ

2017년 노인실태조사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제1절 분석 개요

- 1) 작성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
- 2) 조사목적 : 노인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 생산을
위함
- 3) 조사대상 : 934개 조사구 만 65세 이상 노인 약 10,299명
(충남샘플 : 580명)
- 4) 조사기간 및 주기 : 3년(계속통계)
- 5) 조사항목
 - 건강 상태(6개 문항)
 - 건강 행태(9개 문항)
 -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11개 문항)
 - 여가활동과 사회활동(12개 문항)
 - 경제활동(5개 문항)
 - (손)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14개 문항)
 -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 지인과의 관계(4개 문항)
 - 자녀,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6개 문항)
 - 생활환경(7개 문항)
 - 노후 생활과 삶의 질(11개 문항)
 -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10개 문항)
 - 인지지능(6개 문항)

제2절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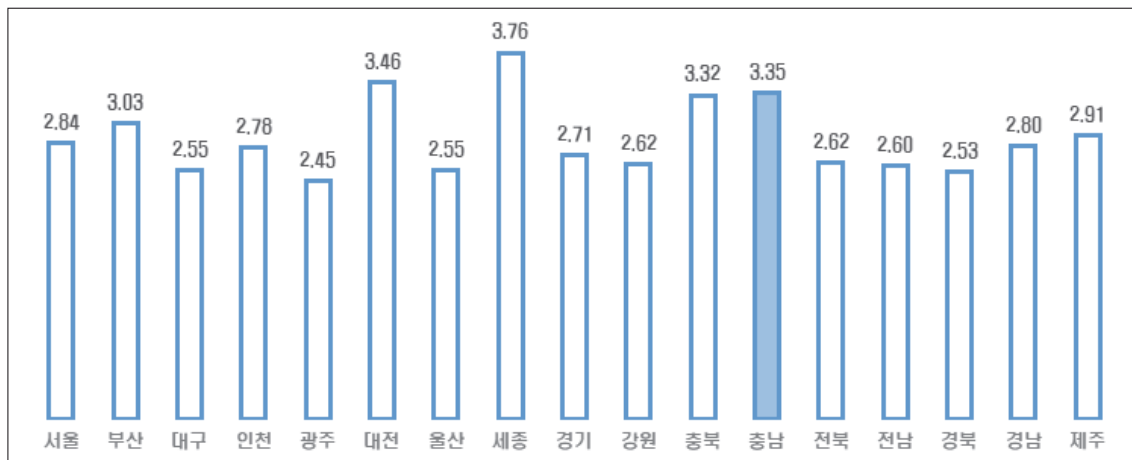
1. 보건·복지

1) 보건

- 충남의 노인은 타 시도에 비해 만성질환의 개수 응답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 응답 평균은 3.35개로 전체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
 - 특히,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 응답 평균이 가장 높음

[그림 2-1] 시도별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 응답 평균

(단위 : 개)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의 노인은 건강검진 및 치매검진 추진 응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노인은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추진 응답 비율이 87.4%로 전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검진실적이 높고 도 단위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음
 - 충남 노인의 치매검진 추진 응답 비율은 42.8%로 전체 17개 시도 중 8위에 해당하지만, 전체 17개 시도 중 치매검진 추진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에 비해 20.4%p 낮음

[그림 2-2] 지난 2년간 시도별 노인의 건강검진 추진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3] 지난 2년간 시도별 노인의 치매검진 추진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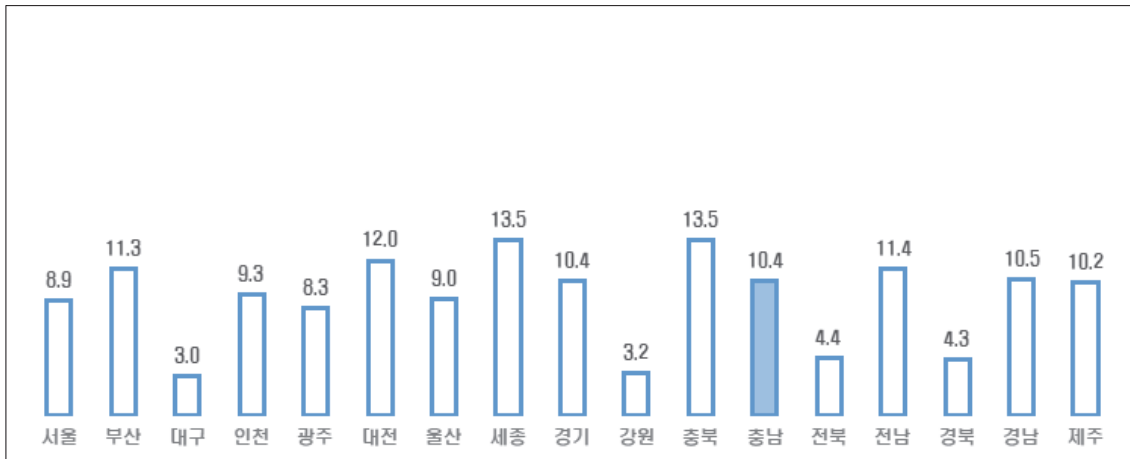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은 지난 1년간 병원 진료를 못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전국 평균(8.8%)보다 높게 나타났고 치과진료를 못 받은 비율은 전국 평균(15.4%)보다 낮게 나타남
 - 충남 노인은 지난 1년간 병원 진료를 못 받은 비율이 10.4%로 전체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진료를 못 받은 이유는 '증상이 가벼워서'가 33.3%, '경제적 어려움'은 21.7%, '교통이 불편해서'는 16.7%, '거동이 불편해서'는 13.3%로 나타남
 - 충남 노인은 지난 1년간 치과진료를 못 받은 비율이 10.9%로 전체 17개 시도 중 열네 번째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치과 진료를 못 받은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61.9%로 나타남

[그림 2-3]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를 못 받은 시도별 노인의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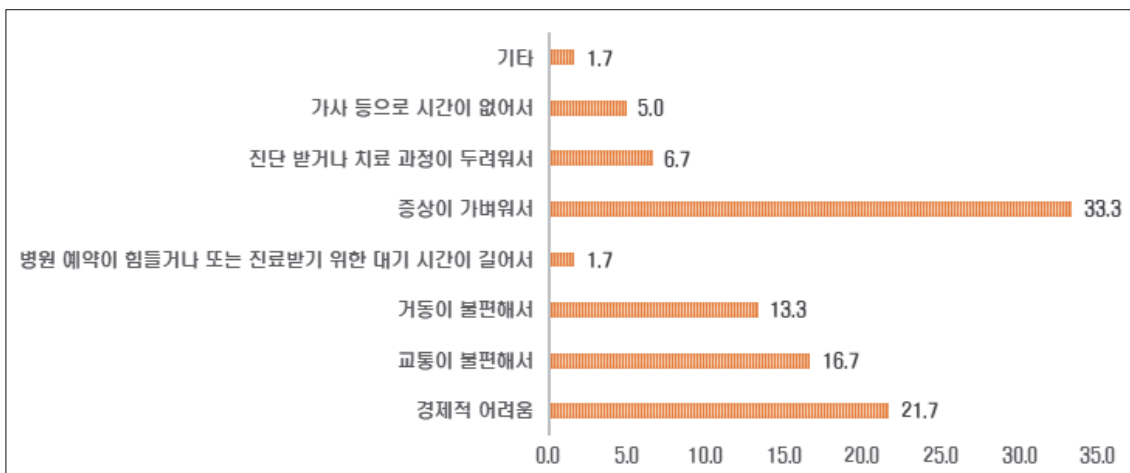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4] 지난 1년간 충남 노인이 병의원 진료를 못 받은 이유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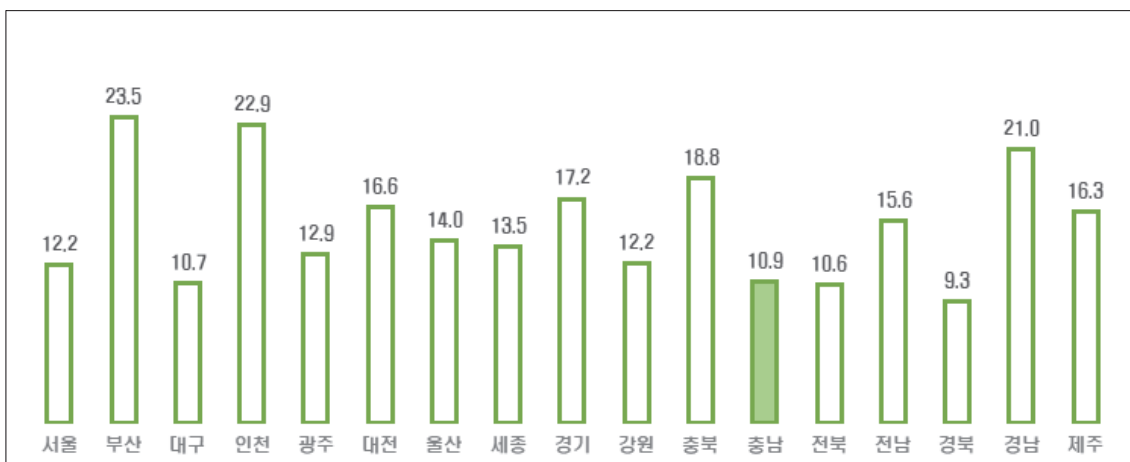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5] 지난 1년간 치과 진료를 못 받은 시도별 노인의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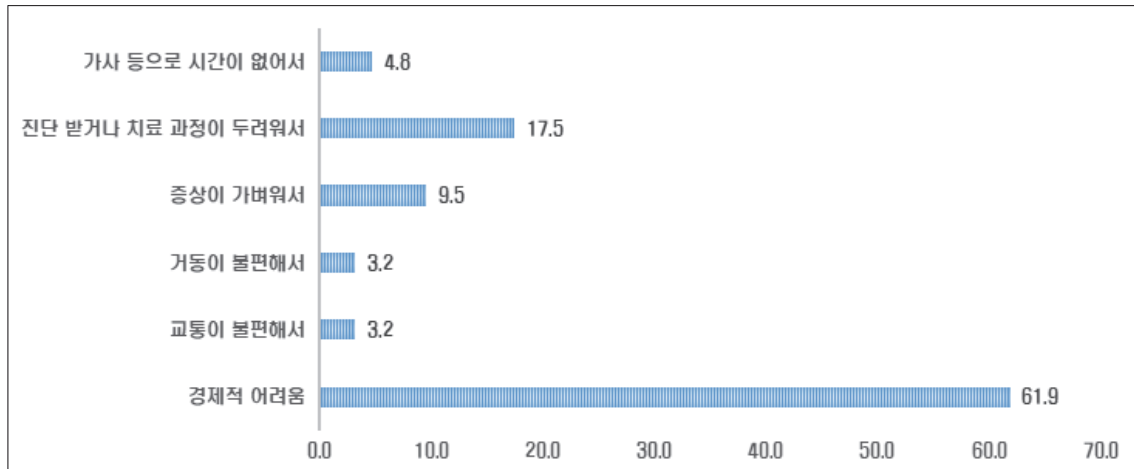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6] 지난 1년간 충남 노인이 치과 진료를 못 받은 이유 응답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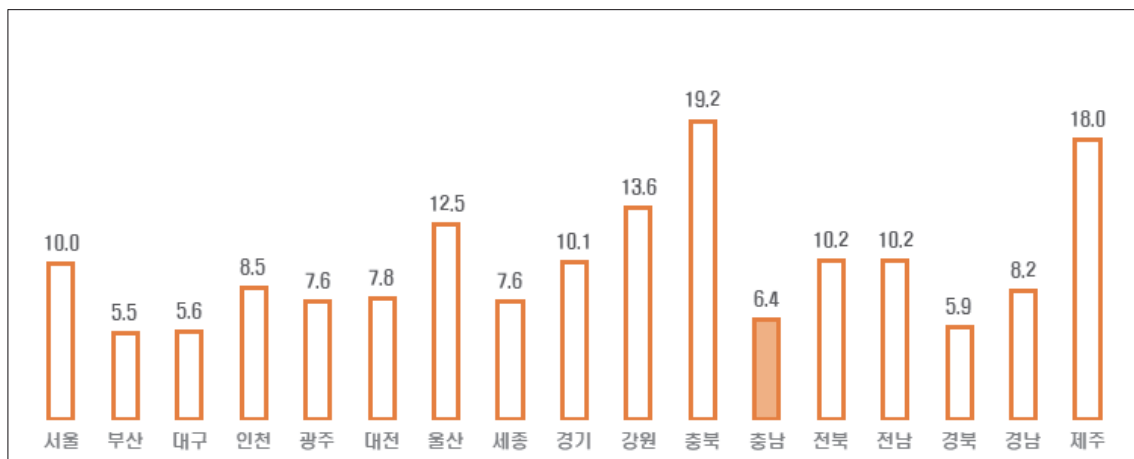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2) 복지

- 충남 노인의 공공 운동시설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노인의 공공 운동시설 이용률은 6.4%로 전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게 나타남
 - 충남과 같은 충청권역에 속하는 충북의 경우 공공 운동시설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1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충남은 충북보다 12.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시도별 노인의 공공 운동시설 이용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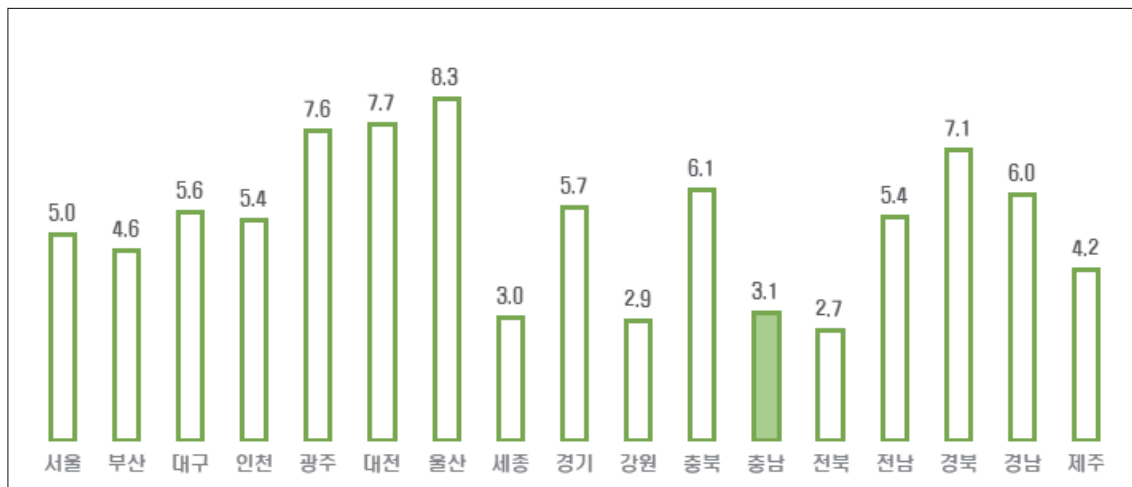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공공취식서비스인 경로식당은 충남의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식사배달서비스는 전체 17개 시도 전반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남
 - 충남 노인은 경로식당을 이용해봤다는 응답비율이 3.1%로 전체 17개 시도 중 응답 비율이 14위에 해당
 - 충남 노인은 식사배달서비스를 이용해봤다는 응답비율이 1.7%로 전체 17개 시도 중 8위에 해당하지만, 식사배달서비스는 전체 응답 비율이 1.7%로 전반적인 이용률이 낮아 보임

[그림 2-8] 시도별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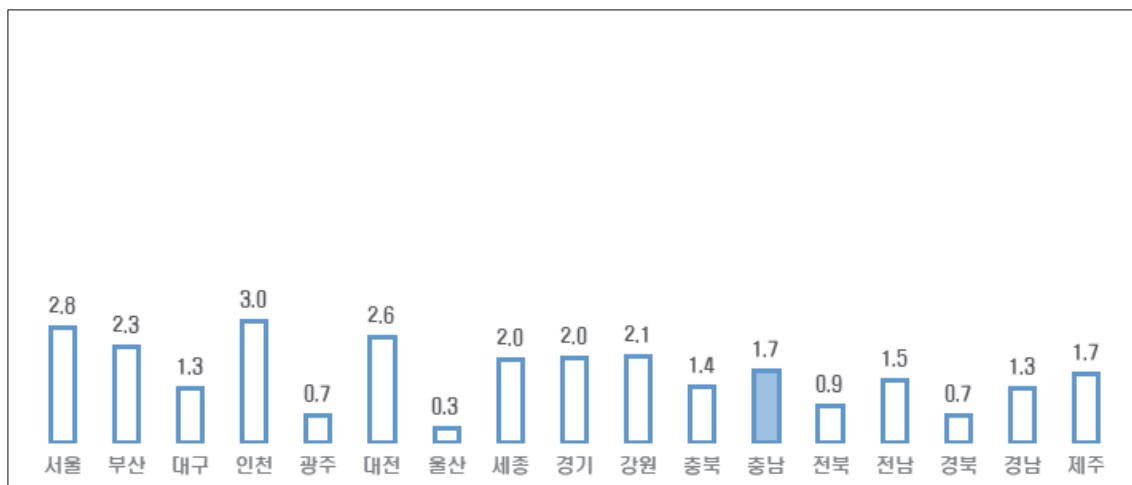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9] 시도별 노인의 식사배달서비스 이용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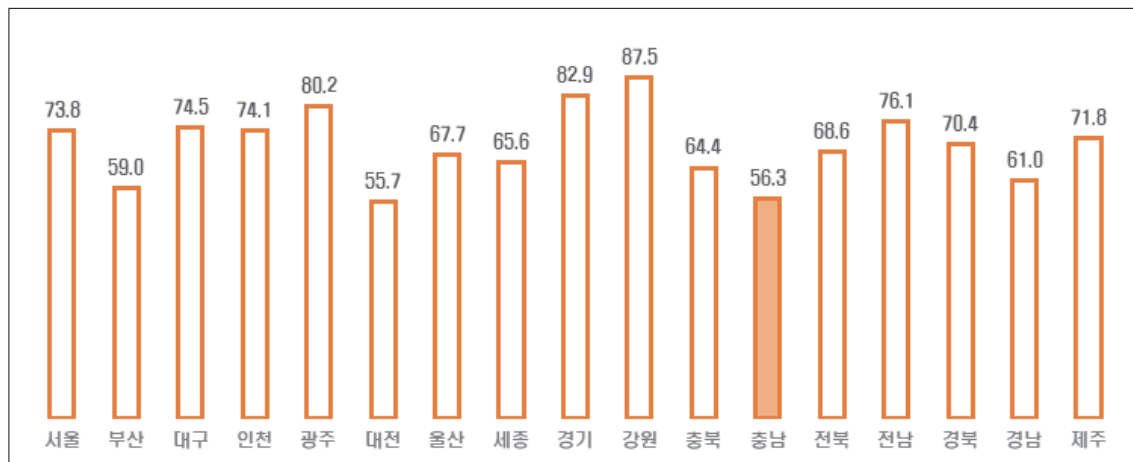
(단위 : %)



-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을 받는 충남 노인의 응답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낮으며, 사회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받는 노인의 응답 비중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의 비율은 56.3%로 전체 17개 시도 중 2위에 해당
 - 충남 노인이 일상생활 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필요 없어서'가 66.0%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그림 2-10] 시도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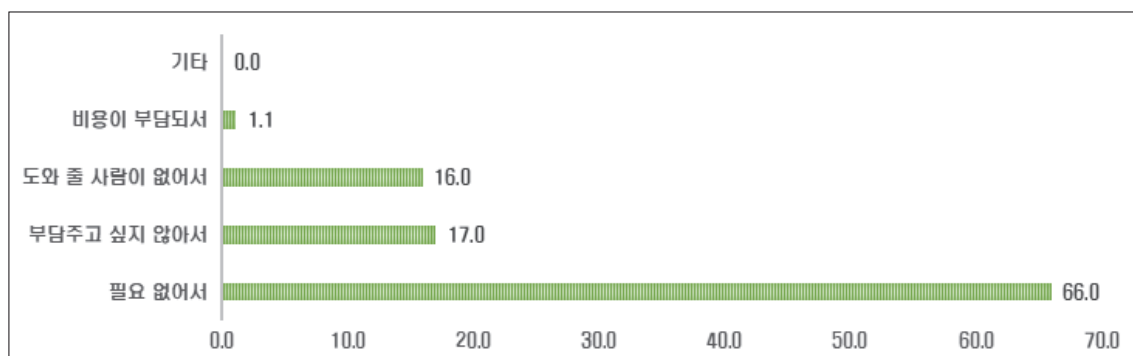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11] 충남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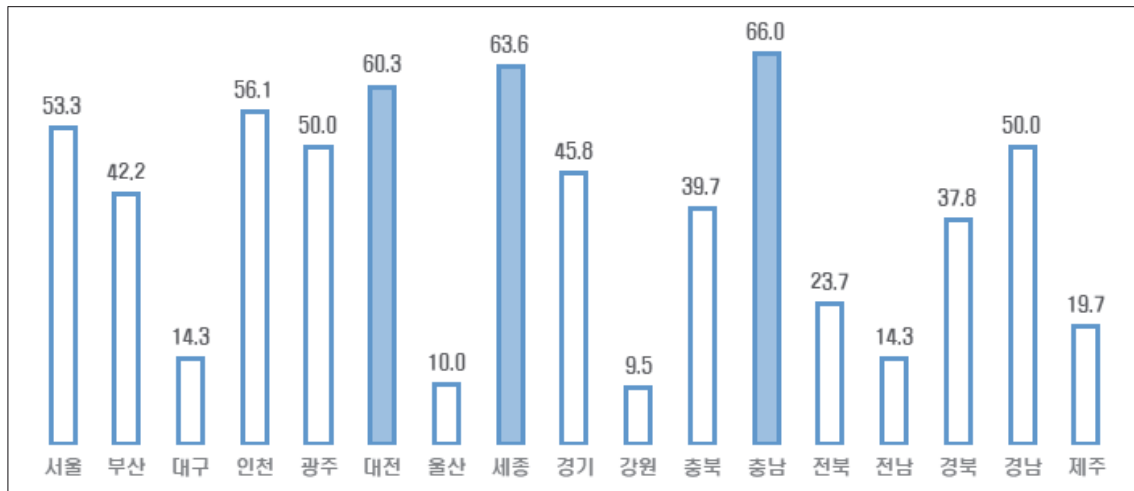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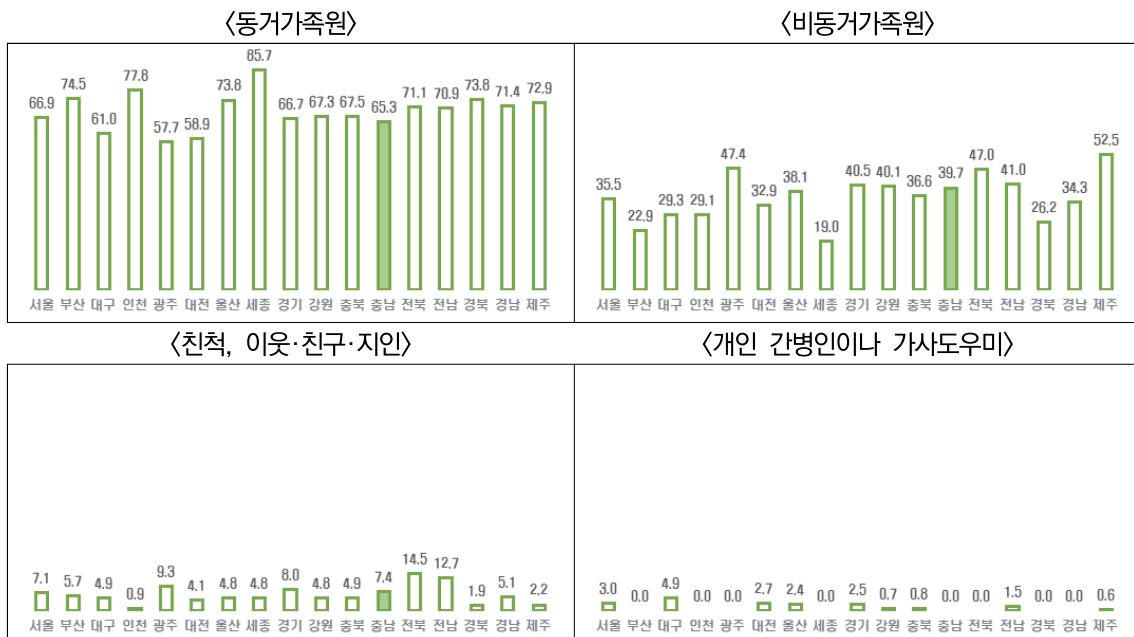
-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가 '필요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충남이 가장 높고, 충남과 인접한 세종과 대전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충남의 노인은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의해 일상생활 시 도움 받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는데, '동거가족원'은 65.3%, '비동거가족원'은 39.7%로 나타남. 다만,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9.9%로 전체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낮음

[그림 2-12] 시도별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가 '필요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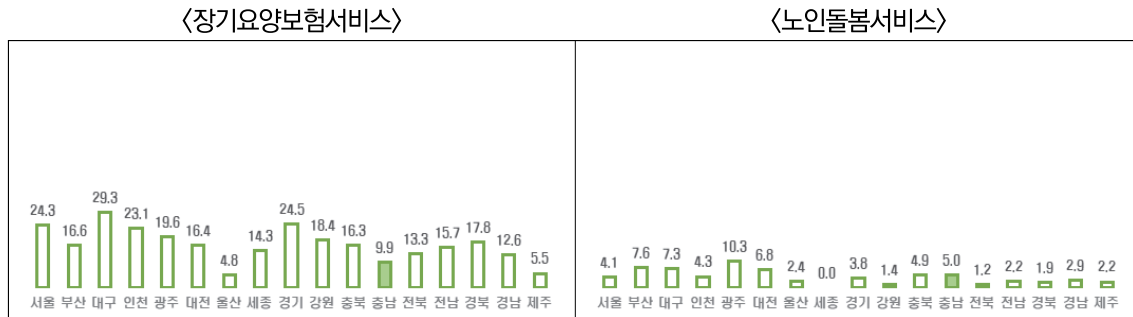
[그림 2-13] 시도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받는 주체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13] 시도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받는 주체 응답 비율(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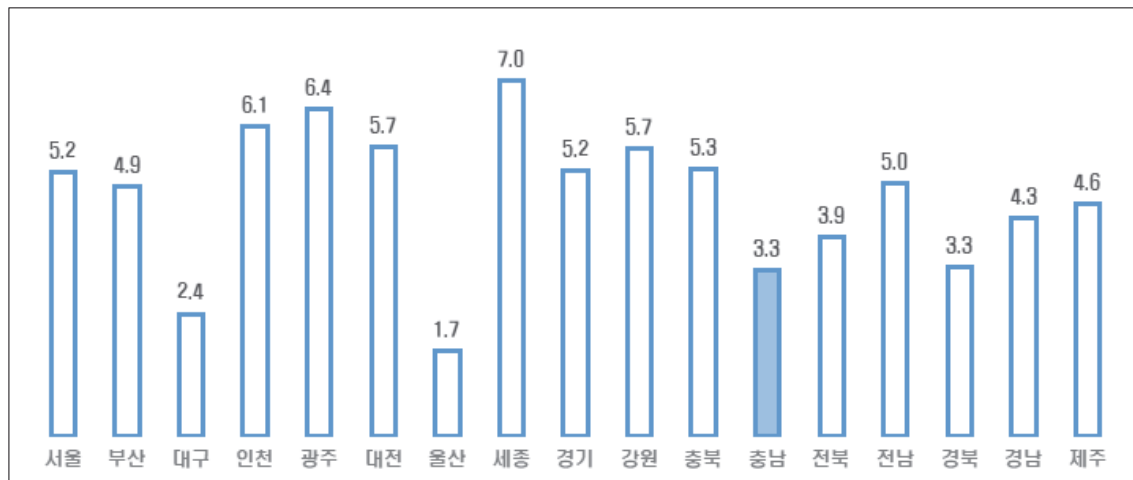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했다는 응답 비율이 낮는데, 주요 이유는 ‘건강이 양호해서’ 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했다는 충남 노인의 응답 비율은 3.3%로 전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충남 노인의 응답 비율은 ‘건강이 양호해서’가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만성질환 개수의 평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과 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며, 일상생활 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 ‘필요 없어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충남의 ‘양반 기질’에 의한 것으로 보임

[그림 2-14] 시도별 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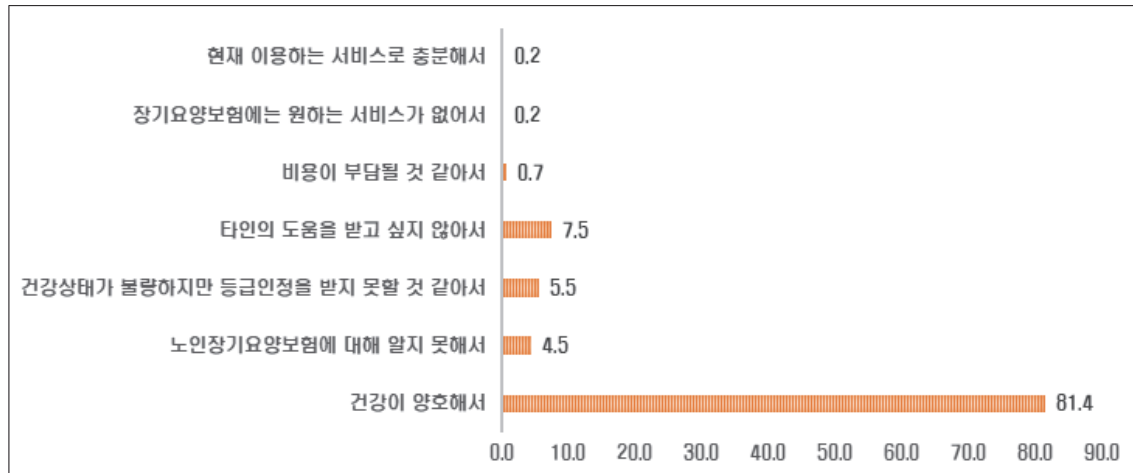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15] 충남 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응답 현황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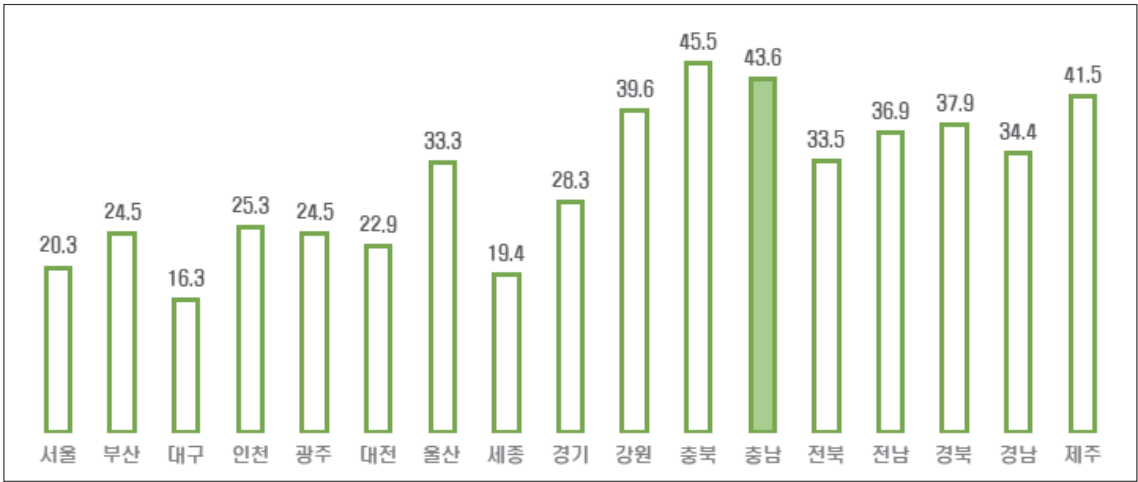
2. 경제·사회활동

1) 경제활동

- 충남 노인은 타 시도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월 근로 소득의 응답 평균은 낮고 응답자 상당수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43.6%로 전체 17개 시도 중 2위에 해당
 - 충남 노인의 월 근로소득 응답 평균은 56.1만원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음

[그림 2-16] 시도별 노인의 현재 일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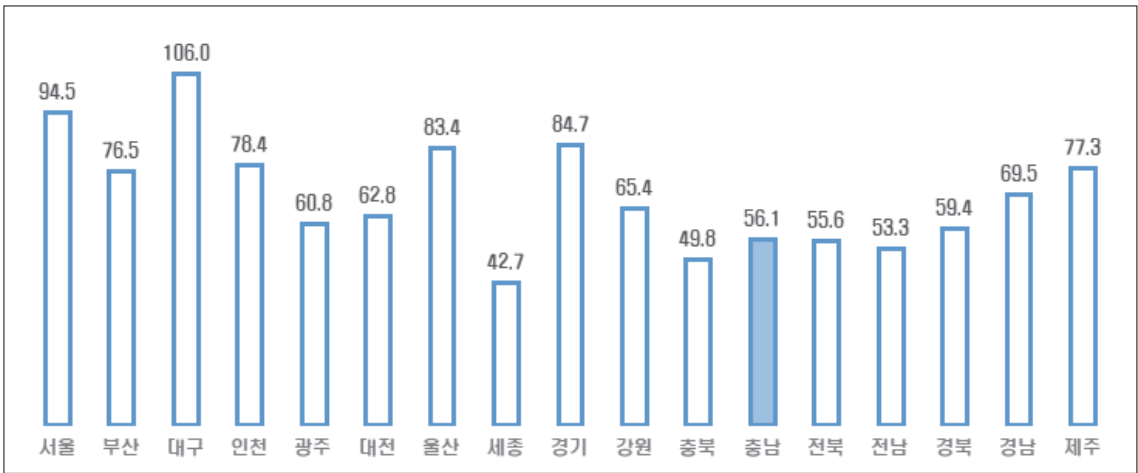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17] 시도별 노인의 월 근로소득 응답 평균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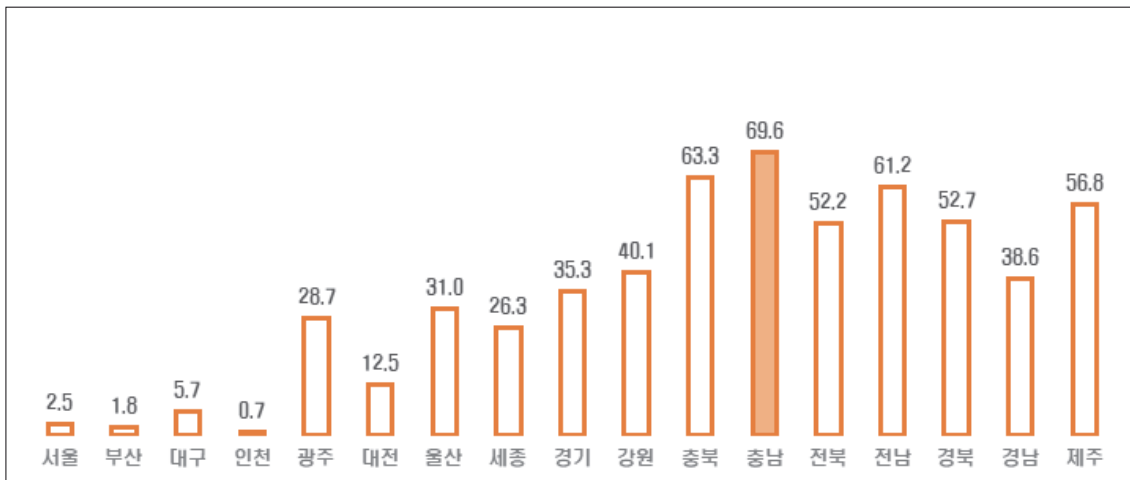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은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응답 비중이 높는데 69.6%로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음
- 충남의 노인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타 시도에 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12.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2-18] 시도별 현재 일하는 노인의 '농림어업' 종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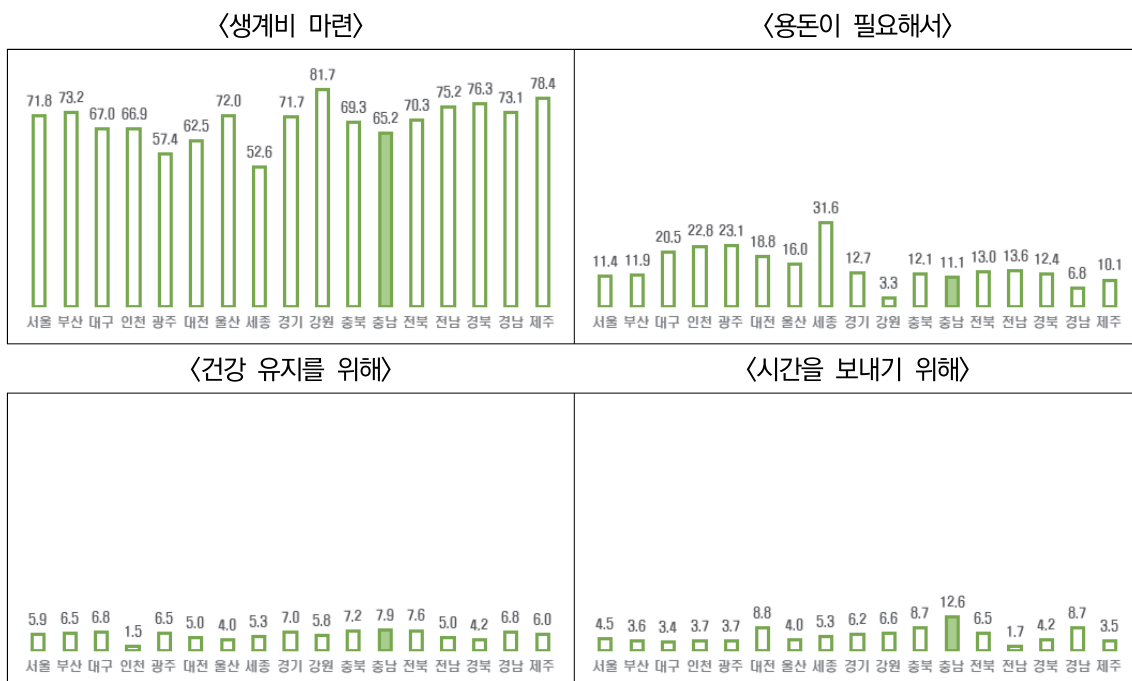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19] 시도별 노인의 현재 일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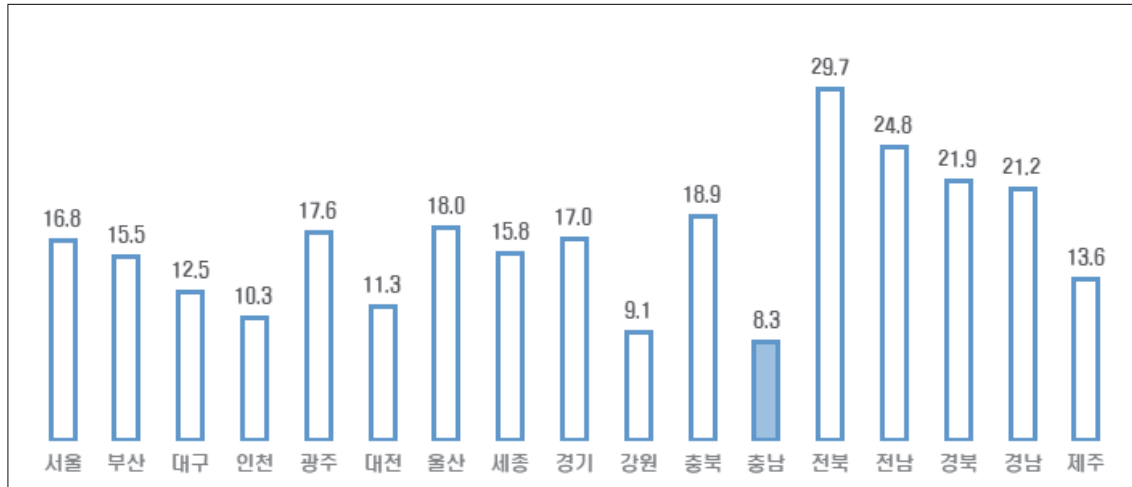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현재 일에 '불만족 한다'는 충남 노인의 응답비율은 8.3%로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음
- 충남 노인은 현재 일에 '불만족'하는 이유가 '건강 상태와 맞지 않음'이 5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낮은 급여(소득) 수준'이 28.6%로 나타남

[그림 2-20] 현재 일에 '불만족 한다'는 시도별 노인의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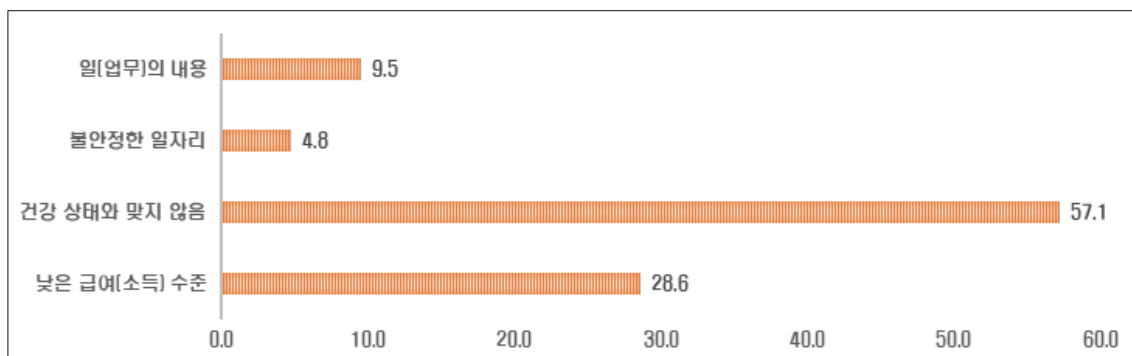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21] 충남 노인이 현재 일에 '불만족'하는 이유 응답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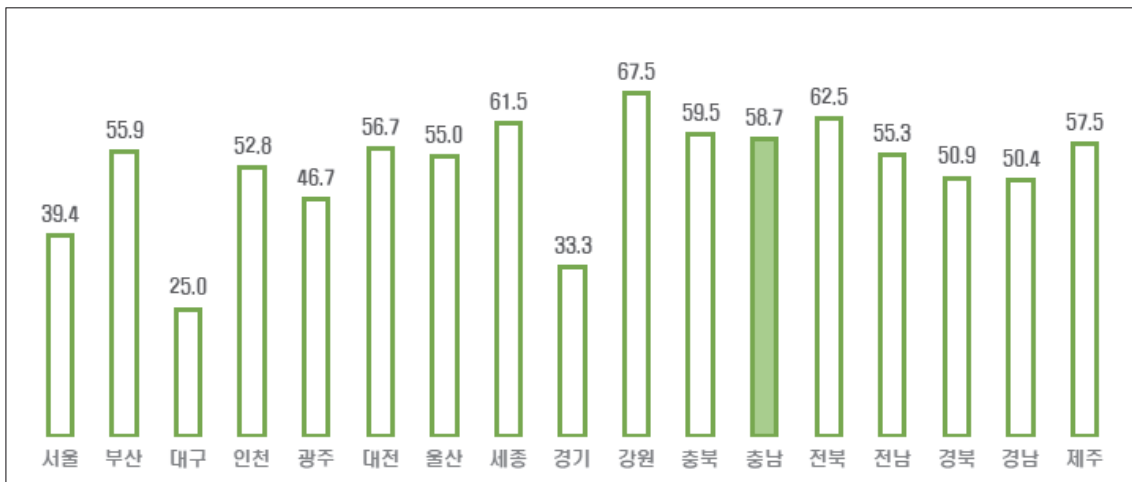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의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응답비율은 58.7%로 전체 17개 시도 중 5위에 해당
- 향후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가 응답률이 가장 높은 데, 충남은 '노노케어'에 참여하고 싶다는 비중이 39.2%, '공공시설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비중이 50.0%로 나타났고 이외 사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2] 시도별 노인의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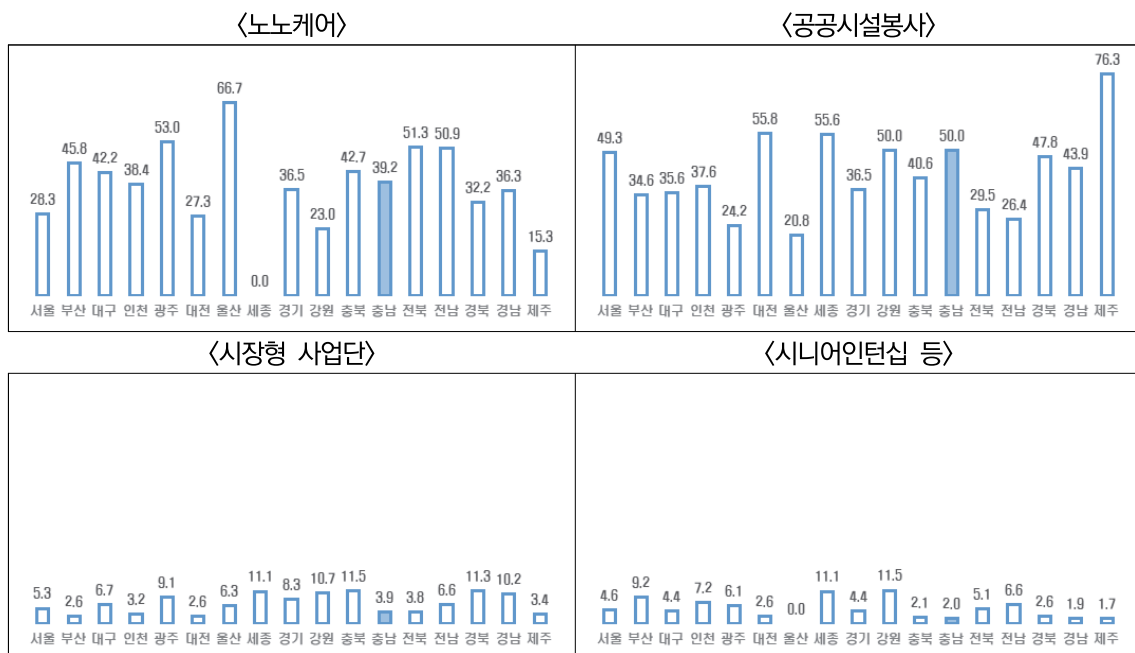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23] 시도별 노인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구직활동 노력 1순위로 '취업 지원 센터 의뢰'하겠다는 충남 노인의 응답 비중은 26.1%로 전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음

[그림 2-24] 구직활동 노력(1순위)으로 '취업 지원 센터 의뢰'를 응답한 시도별 노인의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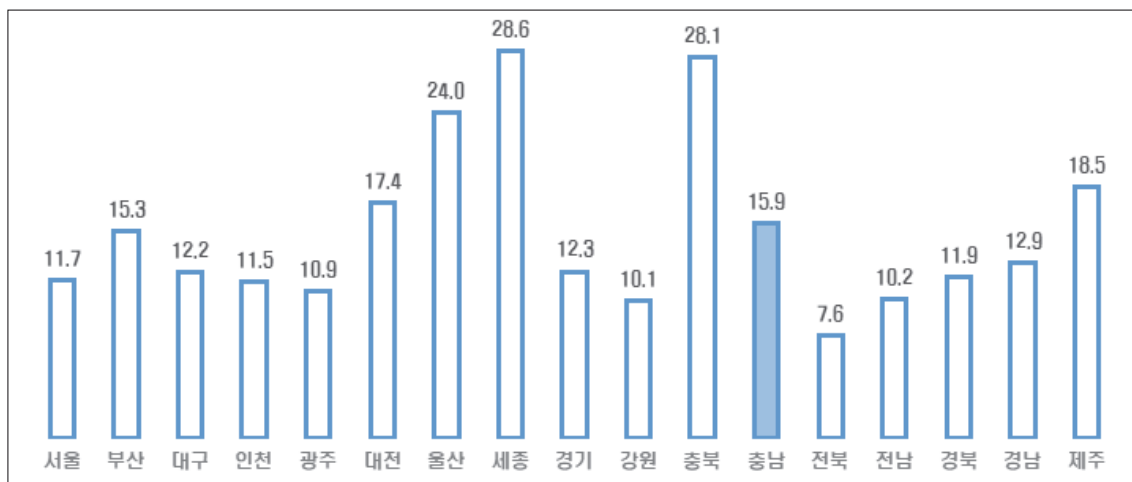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2) 사회활동

- 충남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응답 비율은 높지 않고 참여영역의 응답의 대부분은 ‘운동’으로 나타남
- 충남 노인의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 응답률은 15.9%로 인접 시도인 세종(28.6%), 충북(28.1%)에 비해 10%p이상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5] 시도별 노인의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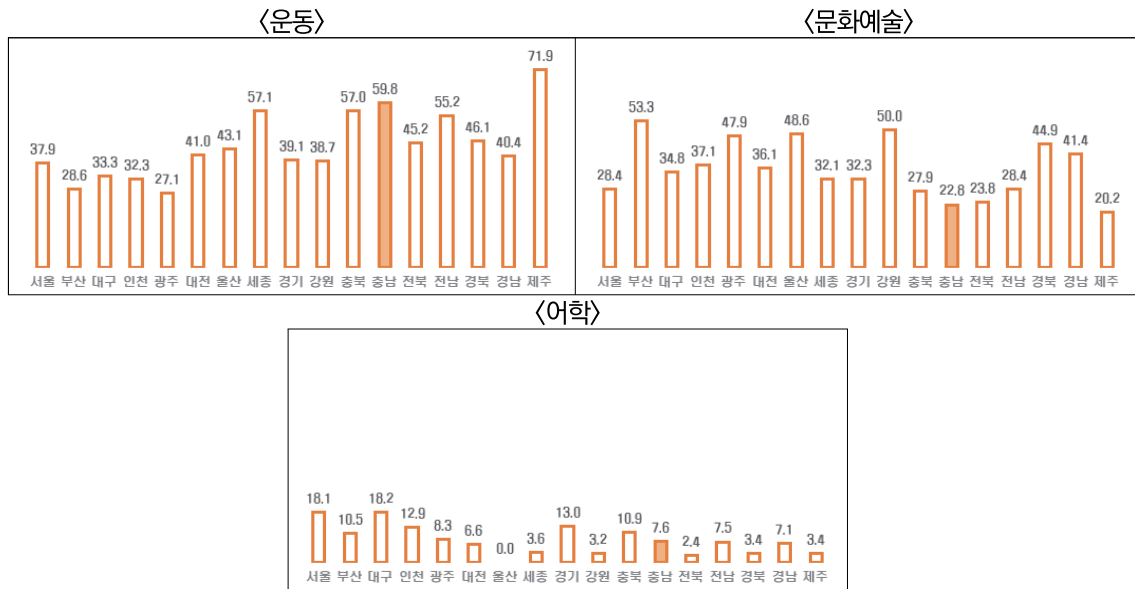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은 주로 ‘운동’, ‘문화예술’, ‘어학’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높는데, 충남은 ‘운동’에 참여한다는 응답 비중이 59.8%로 전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고 ‘문화예술’, ‘어학’에 대한 참여비중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남
- 충남노인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로당’이 58.7%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노인복지관’은 13.0%로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낮는데, ‘노인복지관’이 시군별로 1개 가량 운영되다보니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외 ‘주민센터’, ‘공공문화센터’, ‘사설문화센터’를 학습활동 참여 기관으로 이용하는 응답비중도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 2-26] 시도별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영역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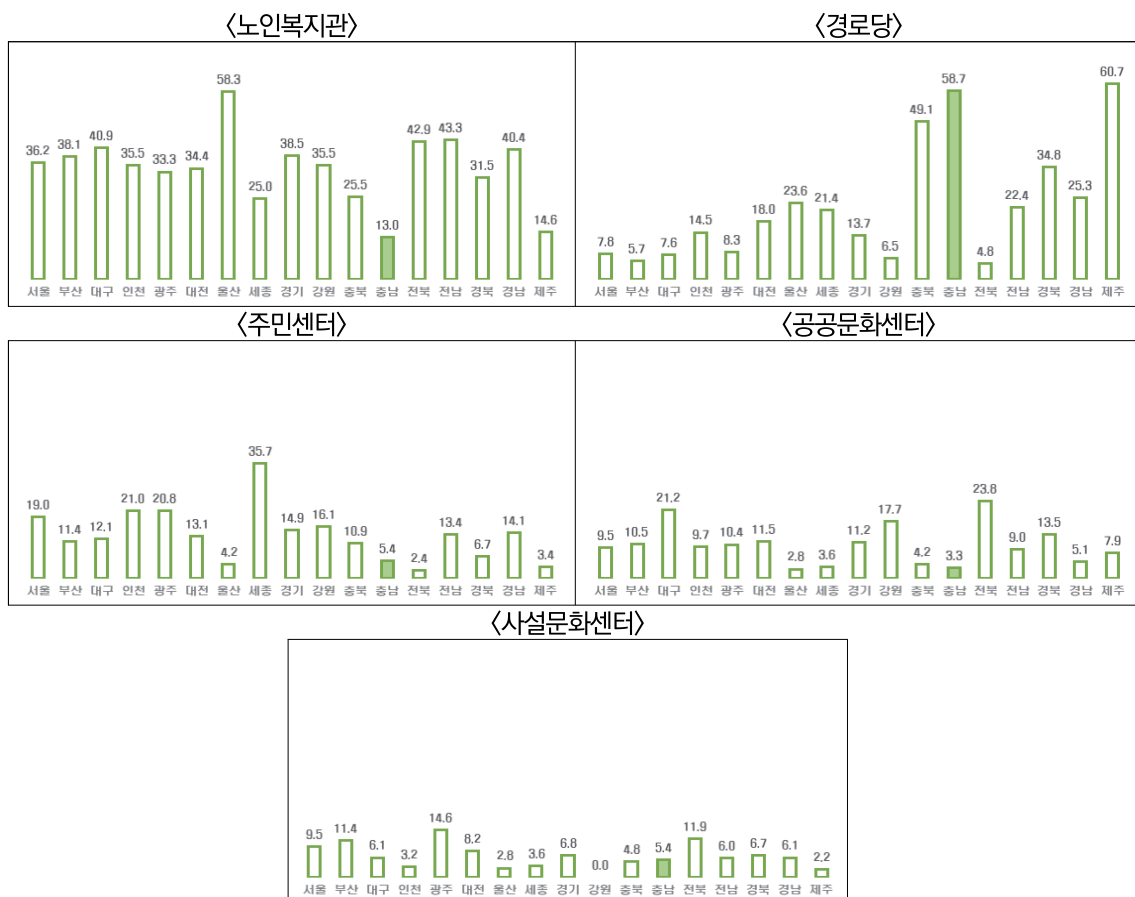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27] 시도별 노인의 학습활동 시 주로 참여하는 기관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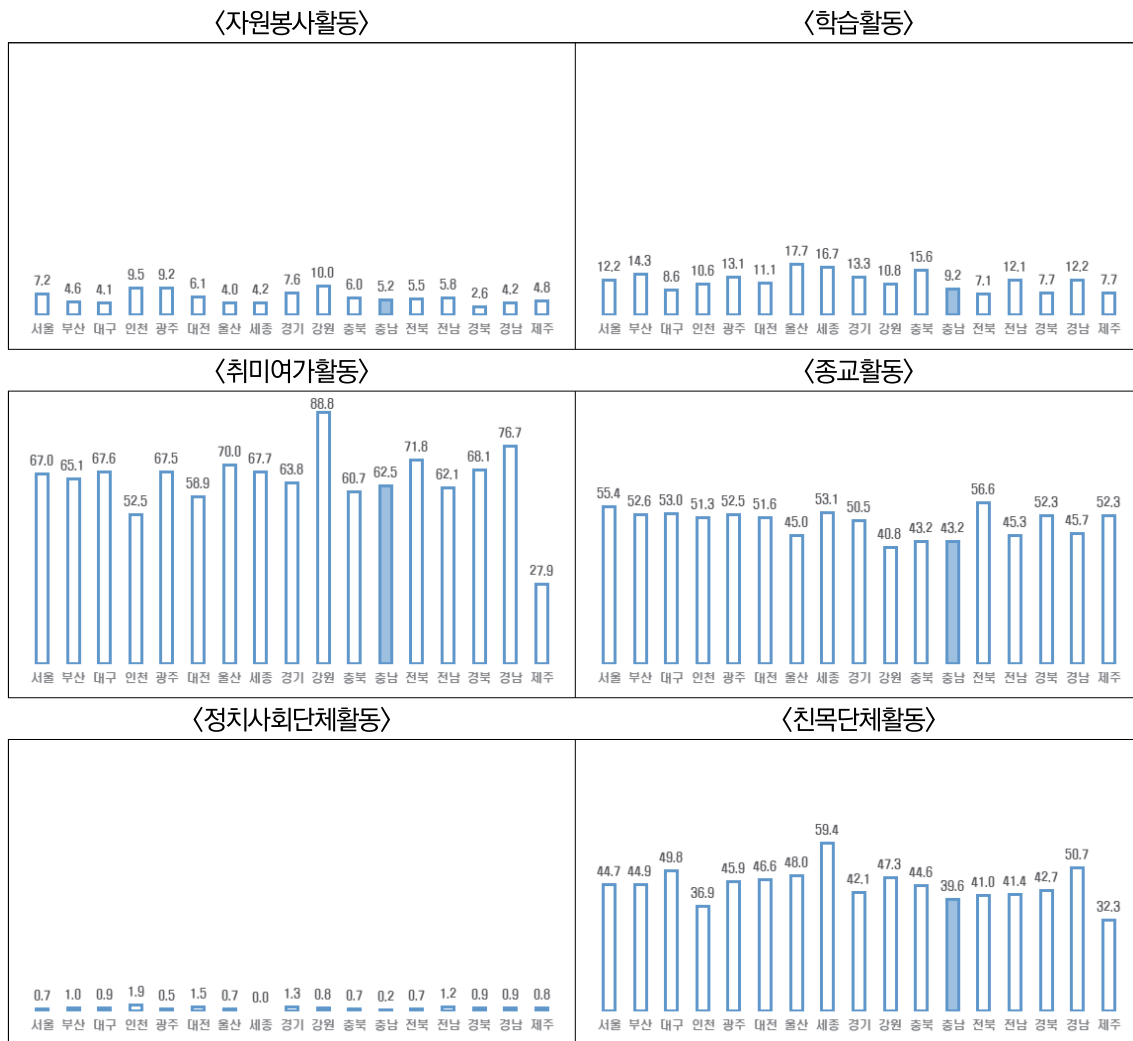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이 향후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으로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친목단체활동’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활동으로 ‘취미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충남 노인의 응답 비중은 62.5%로 나타났고 ‘종교활동’은 43.2%, ‘친목단체활동’은 39.6%로 나타남
 - 이외 사회활동인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에 대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응답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8] 시도별 노인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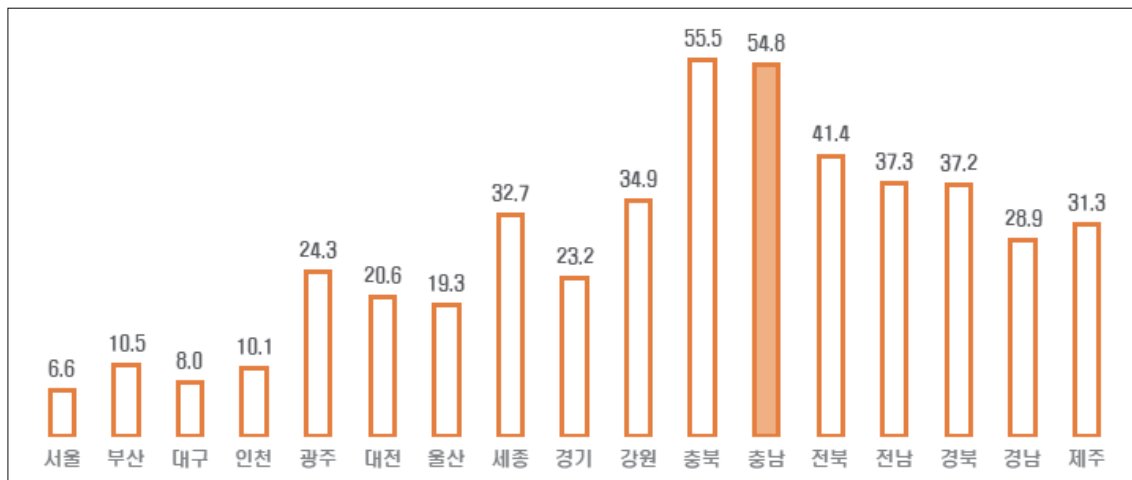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은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낮게 나타남
 - 충남 노인의 경로당 이용 응답률은 54.8%로 충북에 이어 전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충남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친목도모(1순위 : 64.4%, 2순위 41.6%)'가 응답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식사서비스 이용(1순위 : 26.5%, 2순위 : 39.3%)'이 높게 나타남

[그림 2-29] 시도별 노인의 지난 1년간 경로당 이용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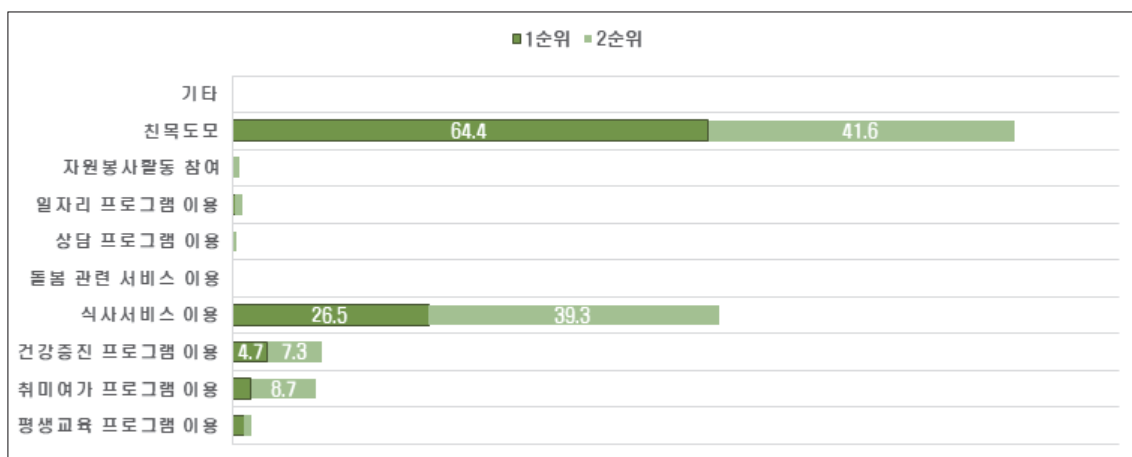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30] 충남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응답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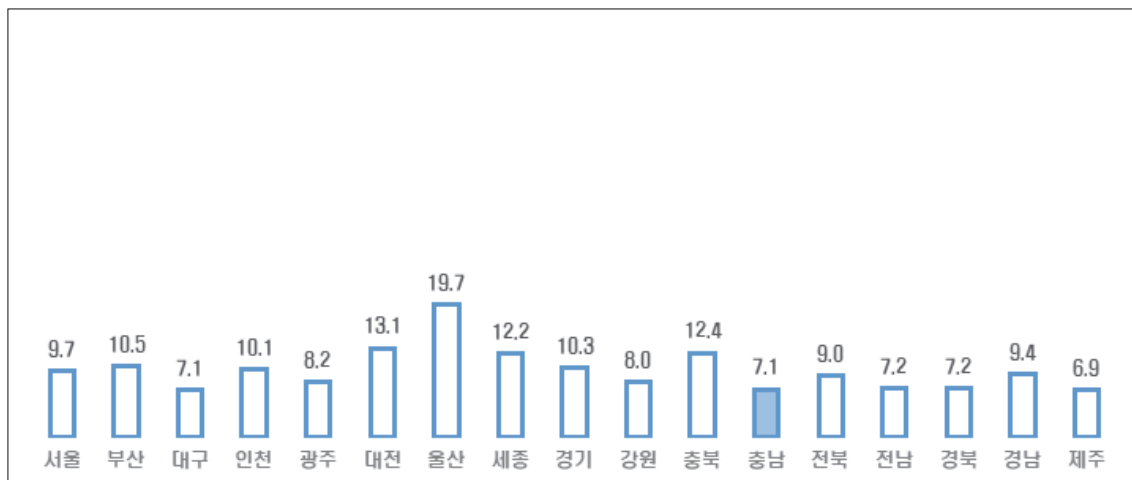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 응답률은 7.1%로 전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
- 충남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1순위로 '친목도모(24.4%)',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24.4%)',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22.0%)'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2순위는 '친목도모'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충남 노인의 경로당 이용을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83.3%이고, 노인복지관 이용을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75.6%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지만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에 대한 응답은 전체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해당

[그림 2-31] 시도별 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복지관 이용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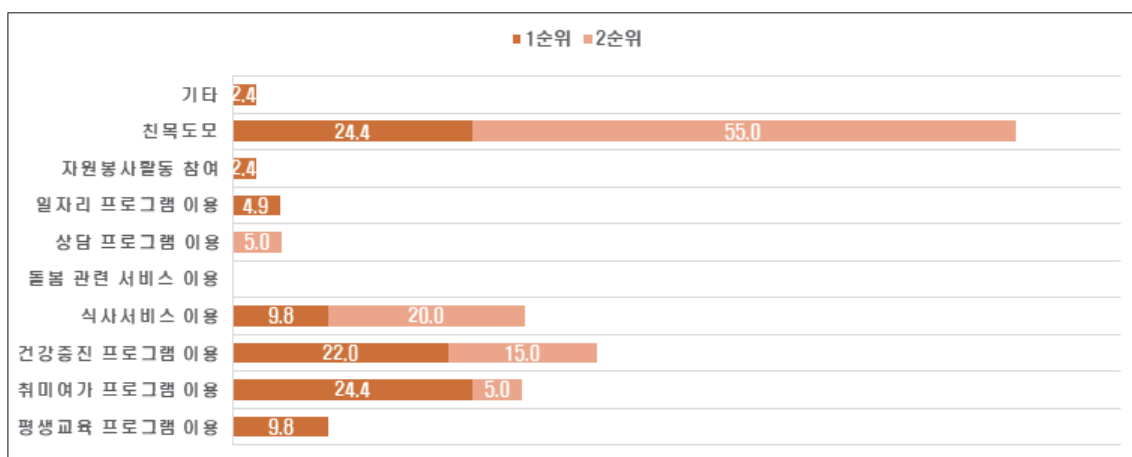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32] 충남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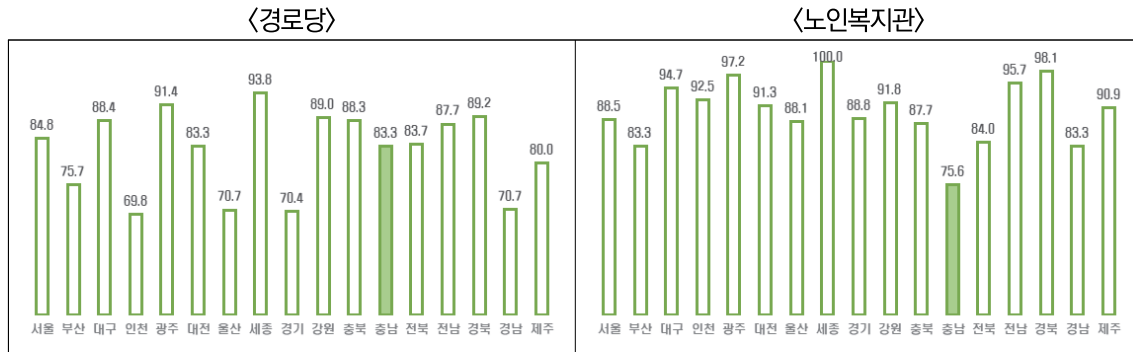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33] 시도별 노인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만족'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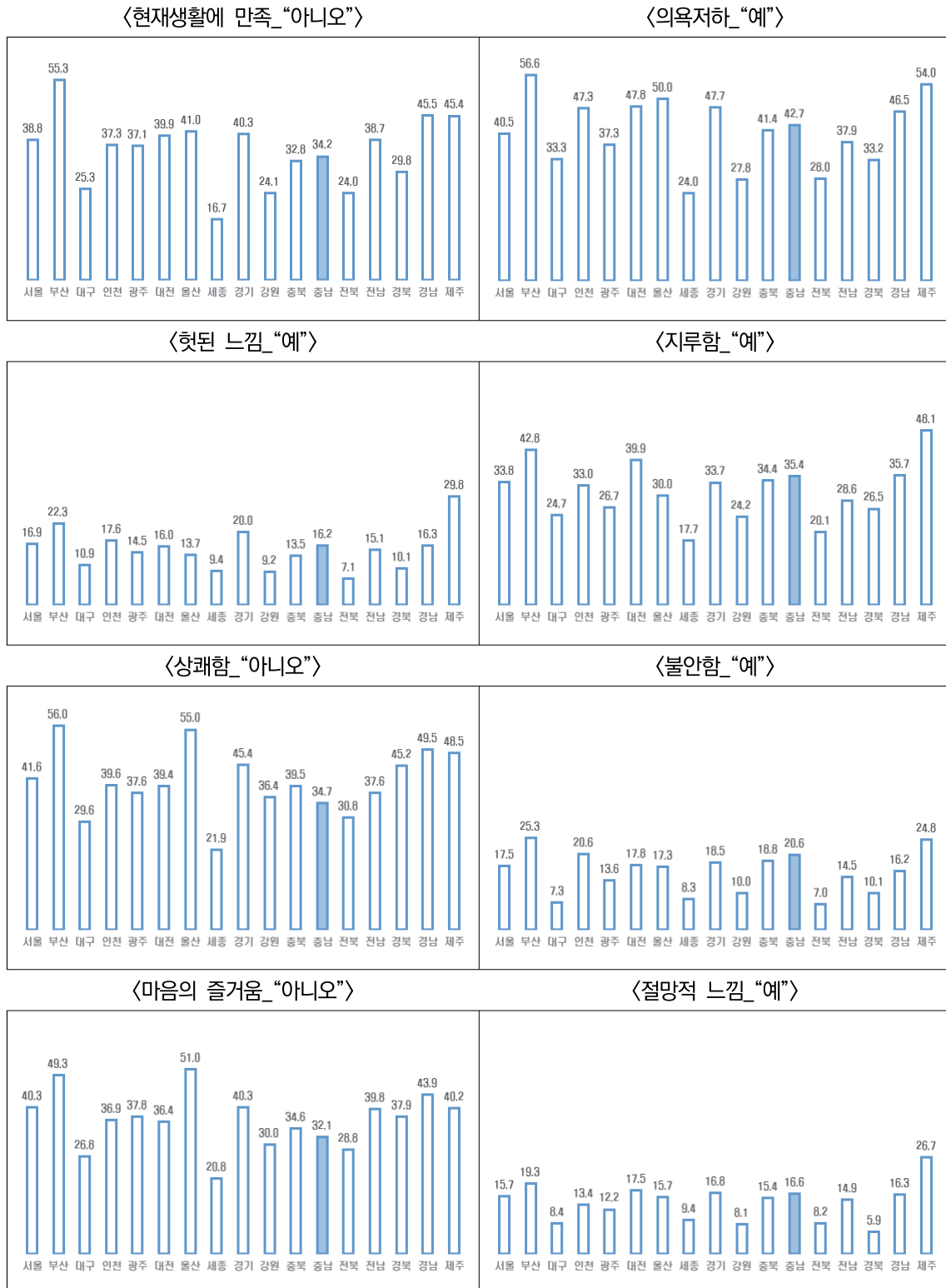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3. 삶의 질

- 충남 노인은 우울증 척도에 대한 응답 평균이 전체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낮게 나타났지만, 우울증 척도 중 '현재생활에 불만족', '의욕저하', '지루함', '상쾌하지 못함', '마음이 즐겁지 못함', '기억력이 나쁨', '기력이 좋지 못함'의 응답률은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의 비중은 34.2%로 나타났고 의욕저하를 겪고 있다는 충남 노인의 비중은 42.7%로 나타남
 -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충남 노인의 응답 비중은 35.4%로 나타났고 상쾌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의 비중은 34.7%로 나타남
 - 마음이 즐겁지 못하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의 비중은 32.1%로 나타났고 기억력이 나쁘다고 응답한 충남노인의 비중은 30.4%로 나타남
 - 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의 비중은 47.3%로 우울증 척도 중 부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충남과 인접한 시도인 세종은 17개 시도 중 우울증 척도 응답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모든 우울증 척도 응답 수준이 충남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2-34] 시도별 노인의 우울증 척도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34] 시도별 노인의 우울증 척도 응답 비율(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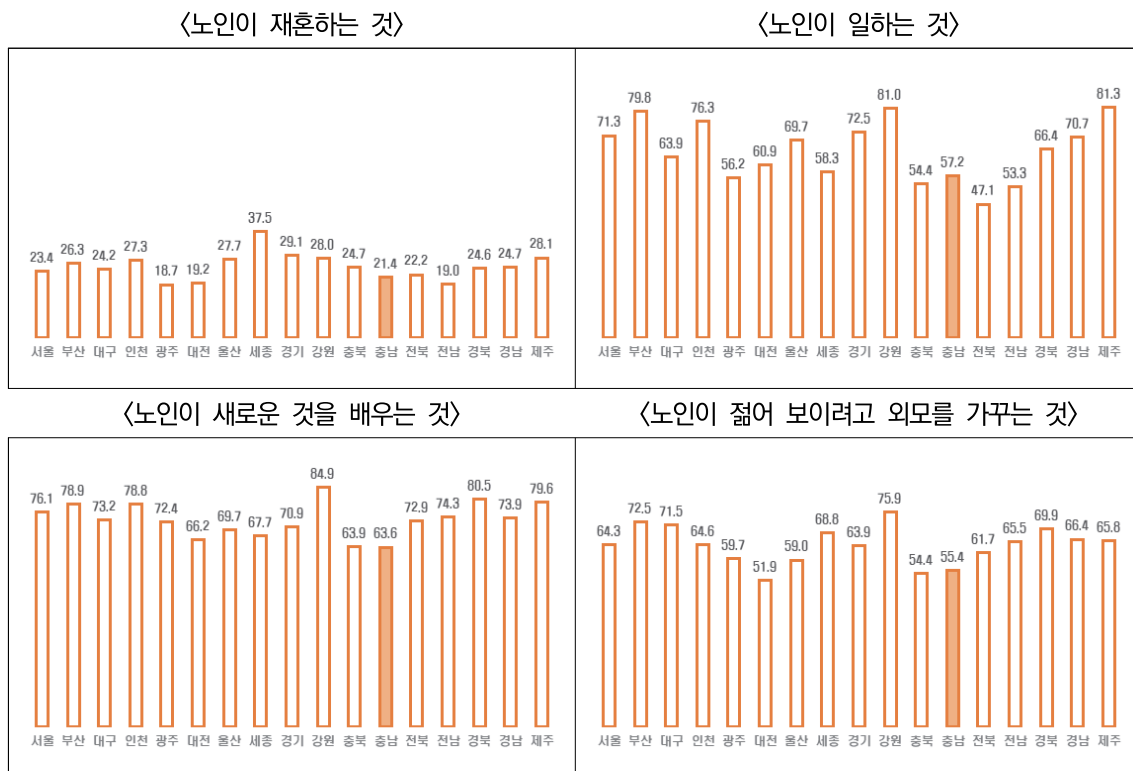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의 가치관에 대한 응답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에 전반적으로 높지 않는데, 충남 노인은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 ‘긍정’이라는 응답 비율은 21.4%로 나타났고 전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게 나타남
 -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충남 노인의 응답 비율은 57.2%로 전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게 나타났고 전체 응답 비율(67.1%)보다 10.0%p 낮게 나타남
 -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충남 노인의 응답 비율은 63.6%로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체 응답 비율(74.0%)보다 10.4%p 낮게 나타남
 -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충남 노인의 응답 비율은 55.4%로 전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났고 전체 응답 비율(64.7%)보다 9.2%p 낮게 나타남

[그림 2-35] 시도별 노인의 가치관 ‘긍정’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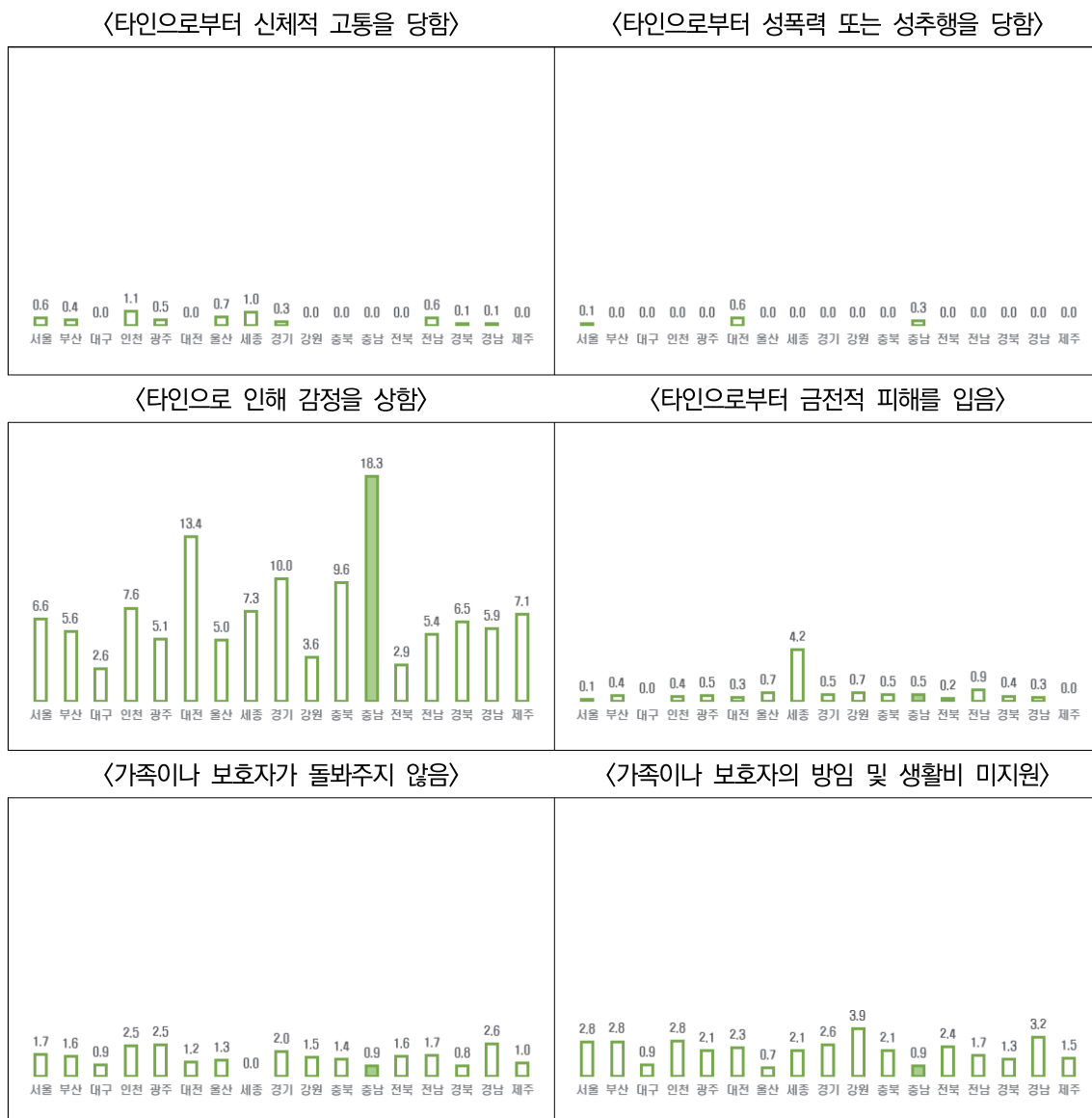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은 타인으로 인해 감정을 상했다는 응답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학대 목격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모르는 척한다’는 높게 나타남
- 노인학대를 받았다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타인으로 인해 감정을 상했다는 응답은 여타 항목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충남 노인의 응답률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36] 시도별 노인학대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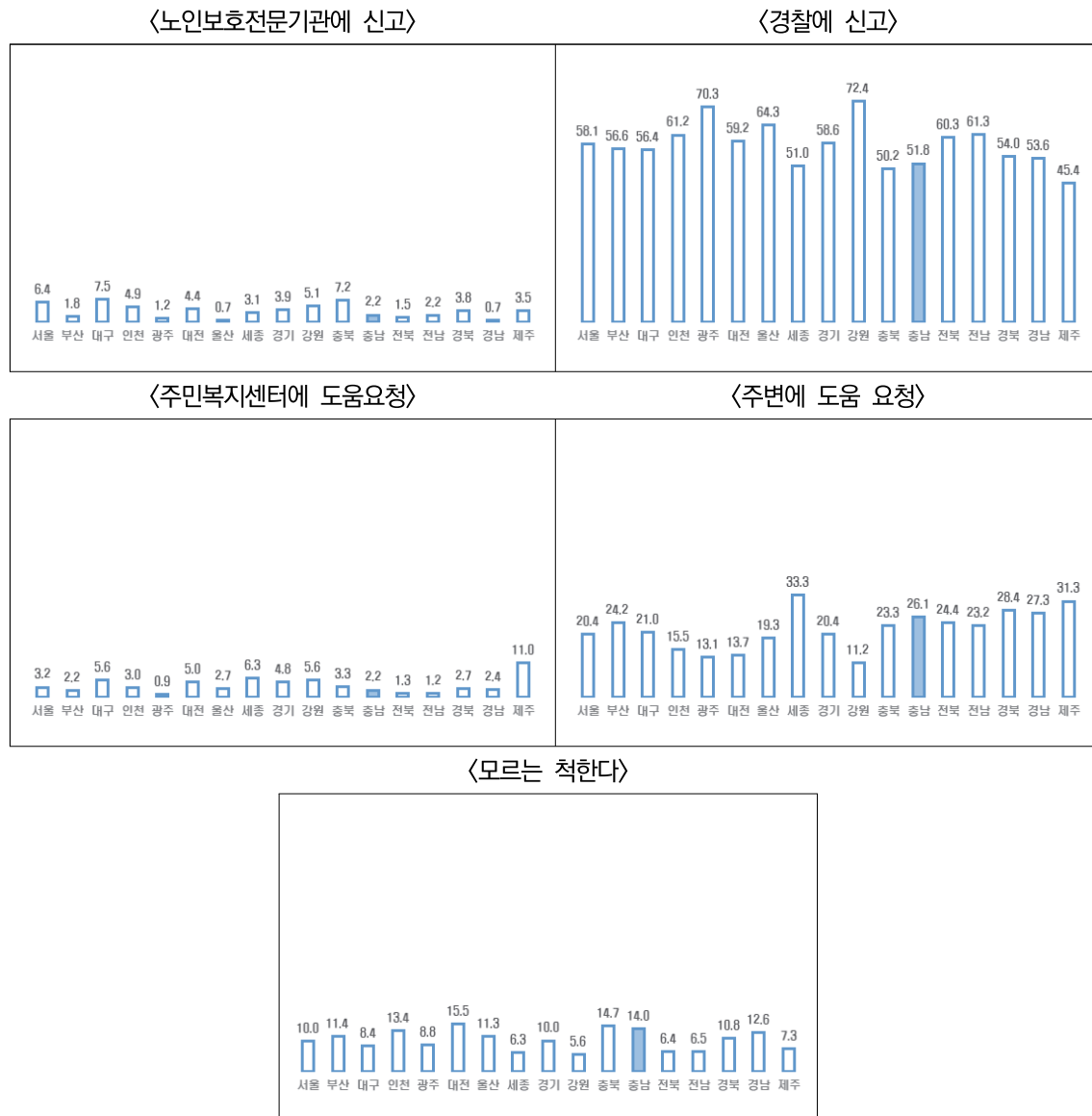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노인학대 목격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는데, 충남의 경우 응답 비율이 51.8%로 전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게 나타남
- 노인학대 목격 시 '모르는 척한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의 응답률은 14.0%로 나타났는데, 전체 17개 시도 중 대전,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그림 2-37] 시도별 노인의 노인학대 목격 시 대응방법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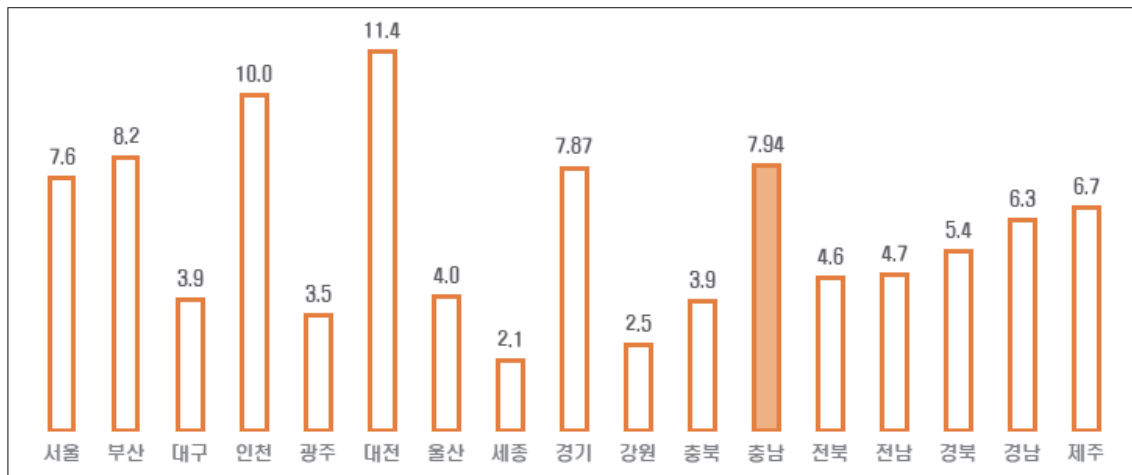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4. 충남 노인자살률 심층분석

- 충남은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노인의 응답이 비중이 높고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충남 노인의 응답 비율은 7.9%로 전체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며, 도 단위 지자체 중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음
 - 충남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가 응답 비중이 높음

[그림 2-38]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노인의 시도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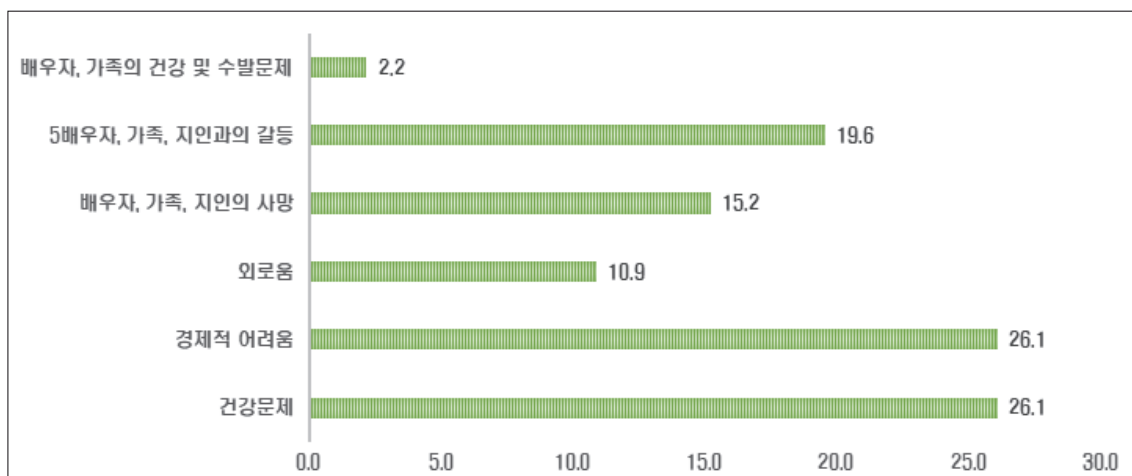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39] 충남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 응답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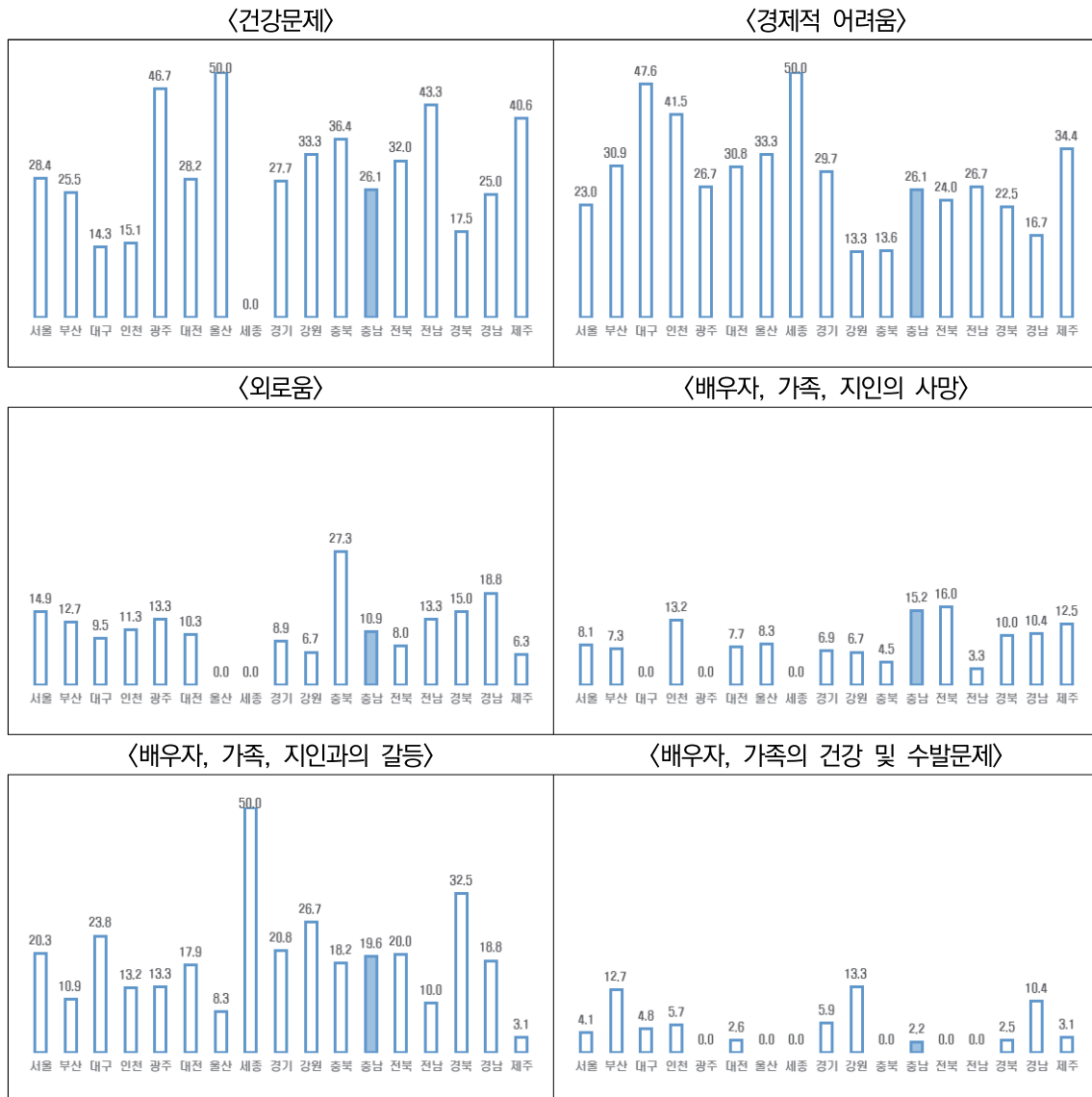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일부 시도의 경우 특정한 이유의 응답 비중이 높는데, '건강문제'는 광주, 울산, 전남, 제주에서 응답 비중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은 대구, 세종이 높게 나타났지만, 충남은 '배우자, 가족, 지인의 사망'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체 응답 비중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자살을 고민한 이유가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편임

[그림 2-40] 시도별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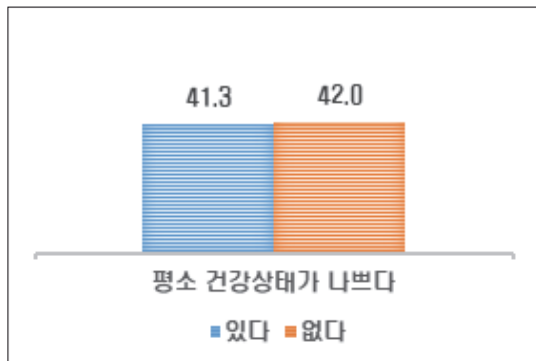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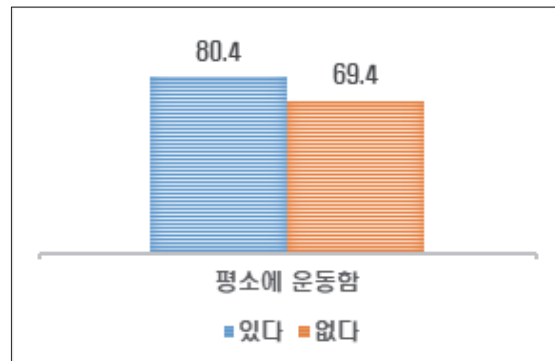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의 자살요인을 분석하고자 자살고민 여부에 따라 각 문항별 응답률을 비교 분석함
- 충남 노인은 평소 건강상태나 운동여부로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평소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응답률 차이가 크지 않음
 - 한편, 평소에 운동한다는 응답 비율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80.4%로 자살을 고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41]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평소 건강상태 “나쁘다” 응답비율
(단위 : %)



[그림 2-42]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평소에 운동한다’는 노인의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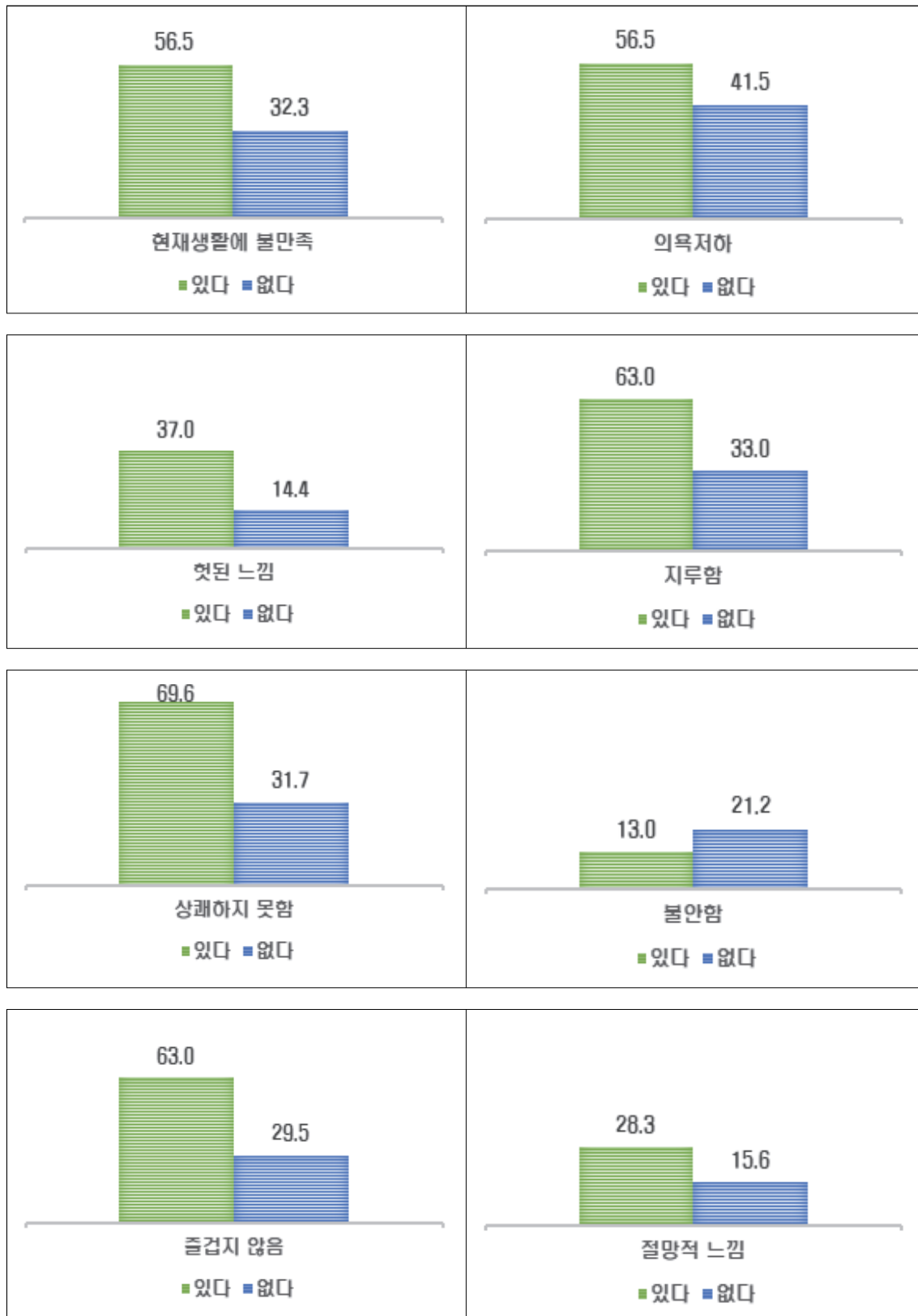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 중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고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보다 대체로 우울증 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불안함’을 제외하면 우울증 척도 전 문항에서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지루함’, ‘상쾌하지 못함’, ‘즐겁지 않음’, ‘살아있음이 즐겁지 않음’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의 비중이 고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보다 30%p이상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3]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우울증 척도 “부정적”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43]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우울증 척도 “부정적” 응답비율(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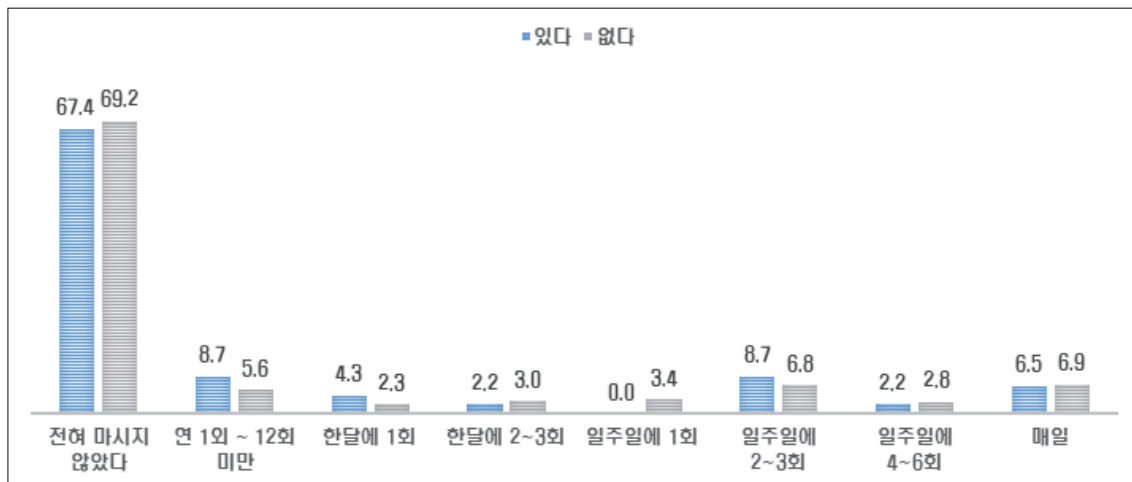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음주빈도는 자살 고민 여부에 따른 응답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문항은 자살여부에 따른 응답 차이가 크지 않음
 - 또한, 음주 횟수 많다고 해서 자살고민 여부의 응답률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

[그림 2-44]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지난 1년간 음주빈도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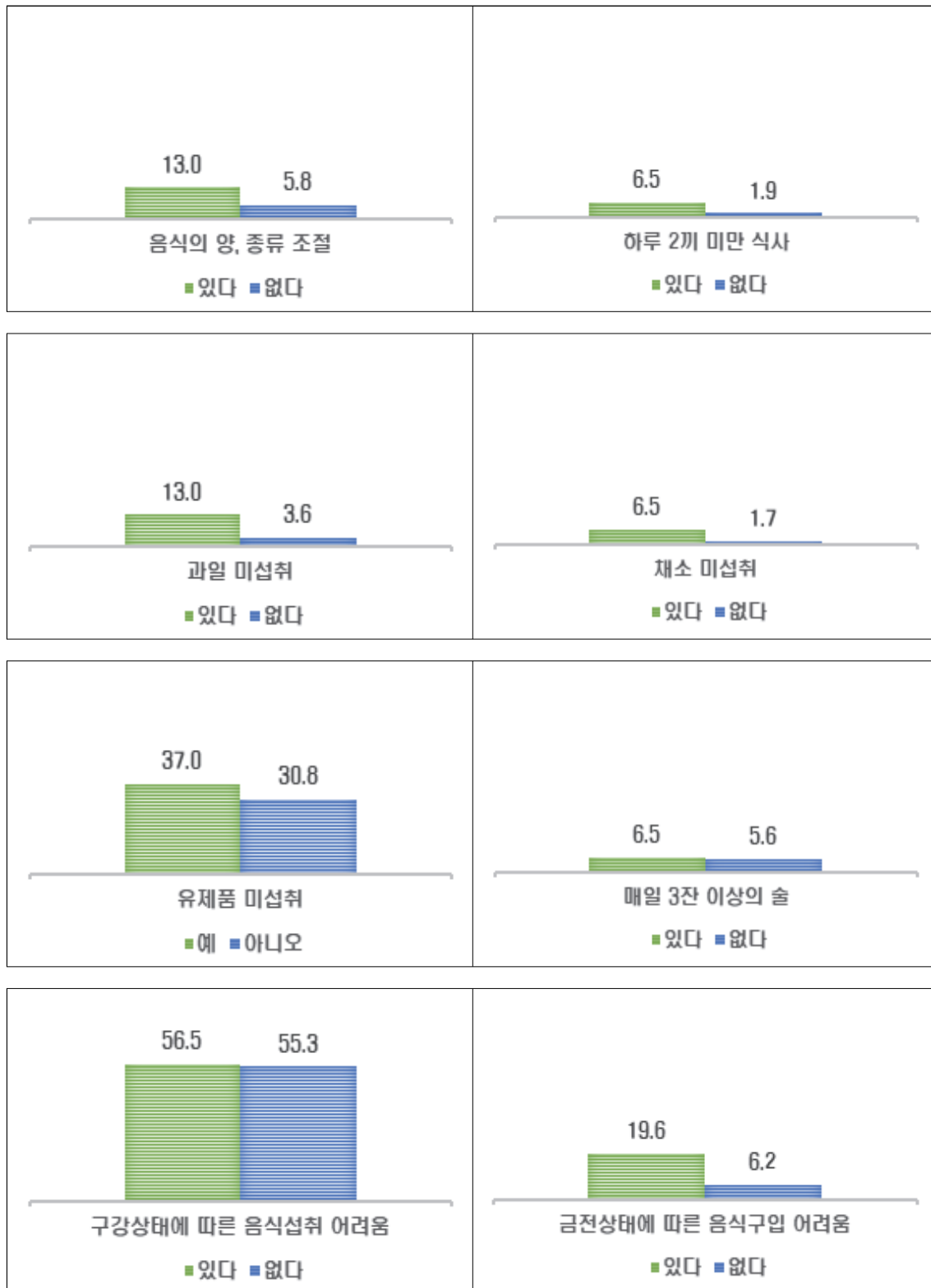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거의 매번 혼자 식사한다는 응답은 자살고민 여부 간에 응답률 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의 41.3%는 거의 매번 혼자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24.6%)보다 16.4%p 응답률이 높음
 - 또한, 금전 상태에 따른 음식 구입이 어렵다는 문항도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노인의 비중이 더 높은데,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 보다 13.4%p 높게 나타남
 - 이 외에 음식의 양과 종류를 조절, 과일 미섭취, 하루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 복용한다는 문항도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45]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영양관리 문항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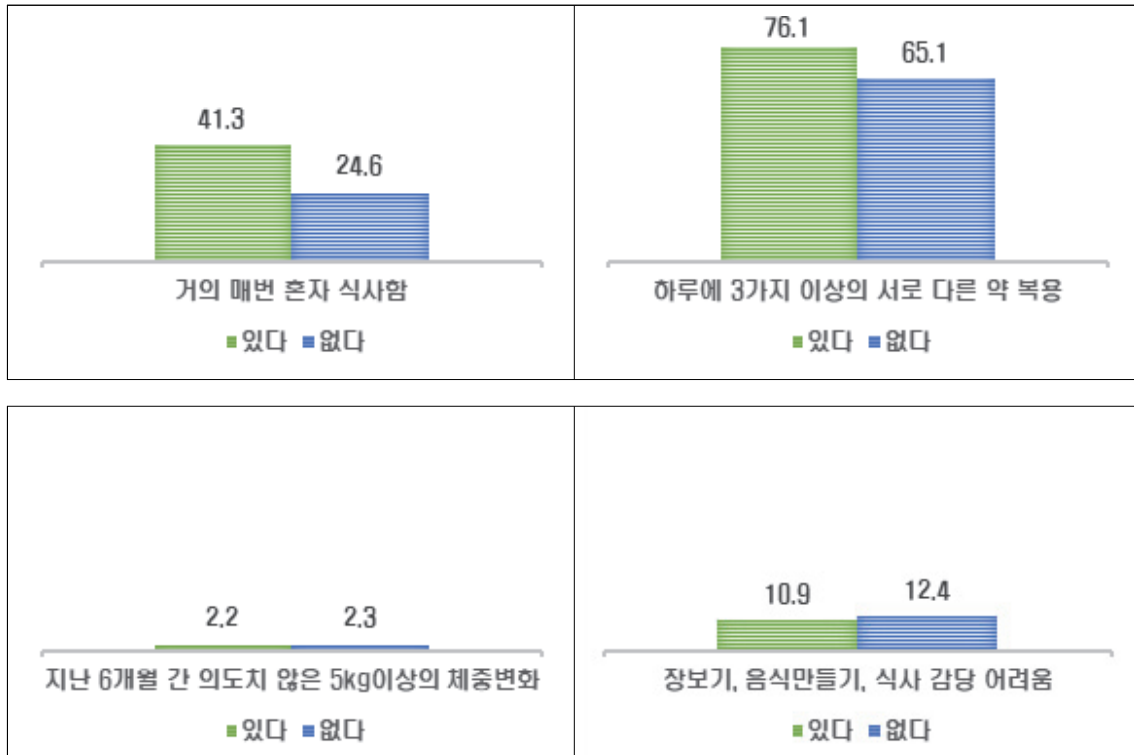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45]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영양관리 문항별 응답 비율(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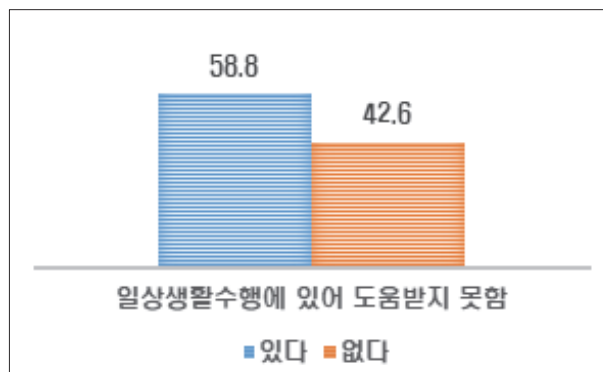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은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충남 노인 중 58.8%는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 자살을 고민한 적이 없다고 한 응답자 보다 응답률이 16.2%p 높게 나타남

[그림 2-46]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일상생활수행에 있어 도움 받지 못함’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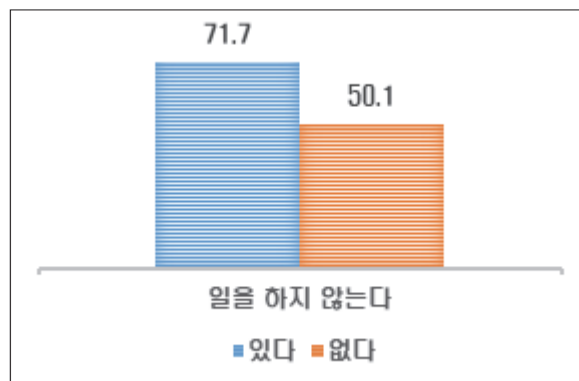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 충남 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활동 시간이 적을수록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 71.7%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 중 52.2%는 하루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7]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일을 하지 않는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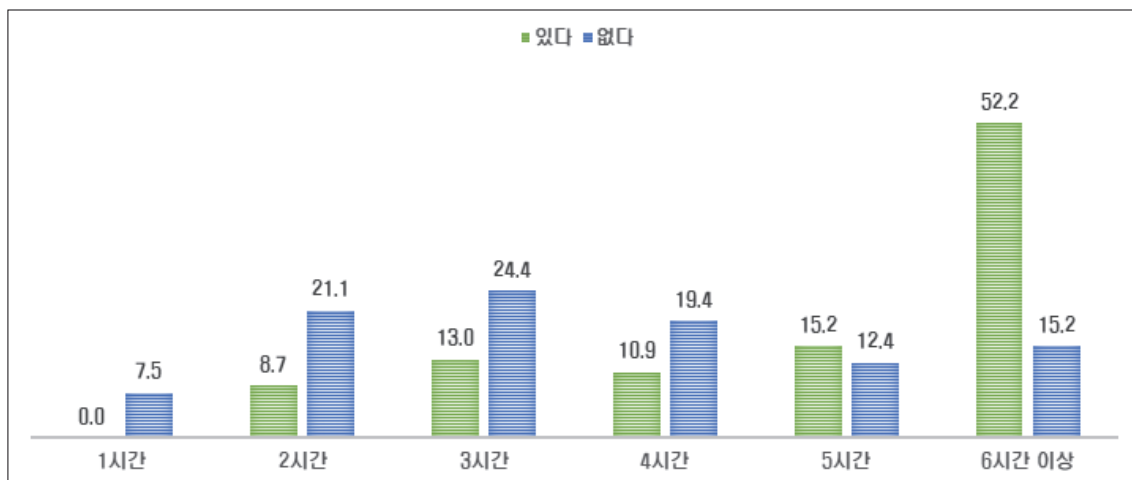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48]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하루 평균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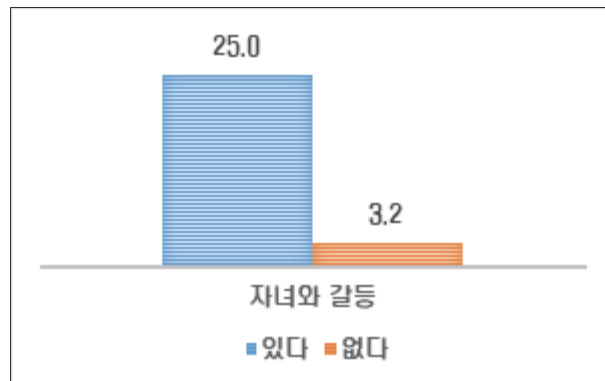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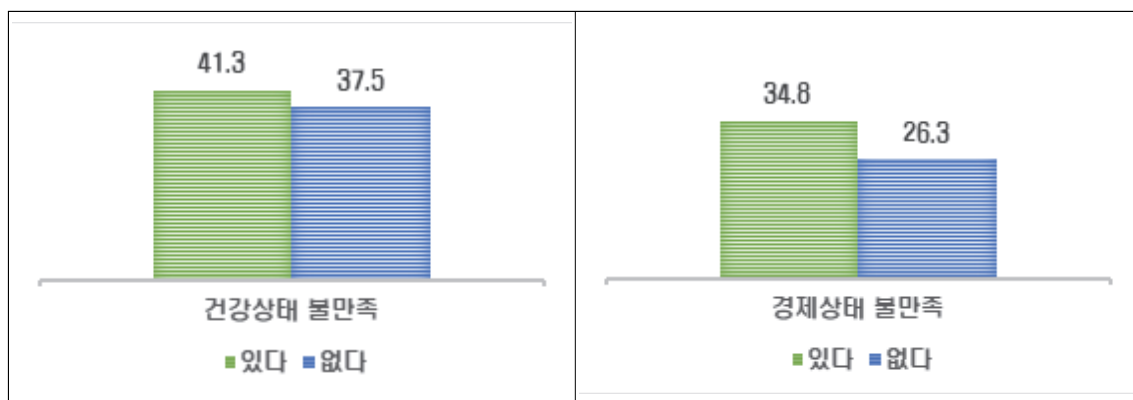
- 가족 또는 지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충남 노인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충남 노인 25.0%는 자녀와 갈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노인 보다 응답률(3.2%)이 21.8%p 더 높게 나타남
 - 경제상태가 불만족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불만족 하다는 응답률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가 불만족 하다는 응답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없다'는 응답률 보다 18.0%p 높게 나타남

[그림 2-49]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경험에 있다'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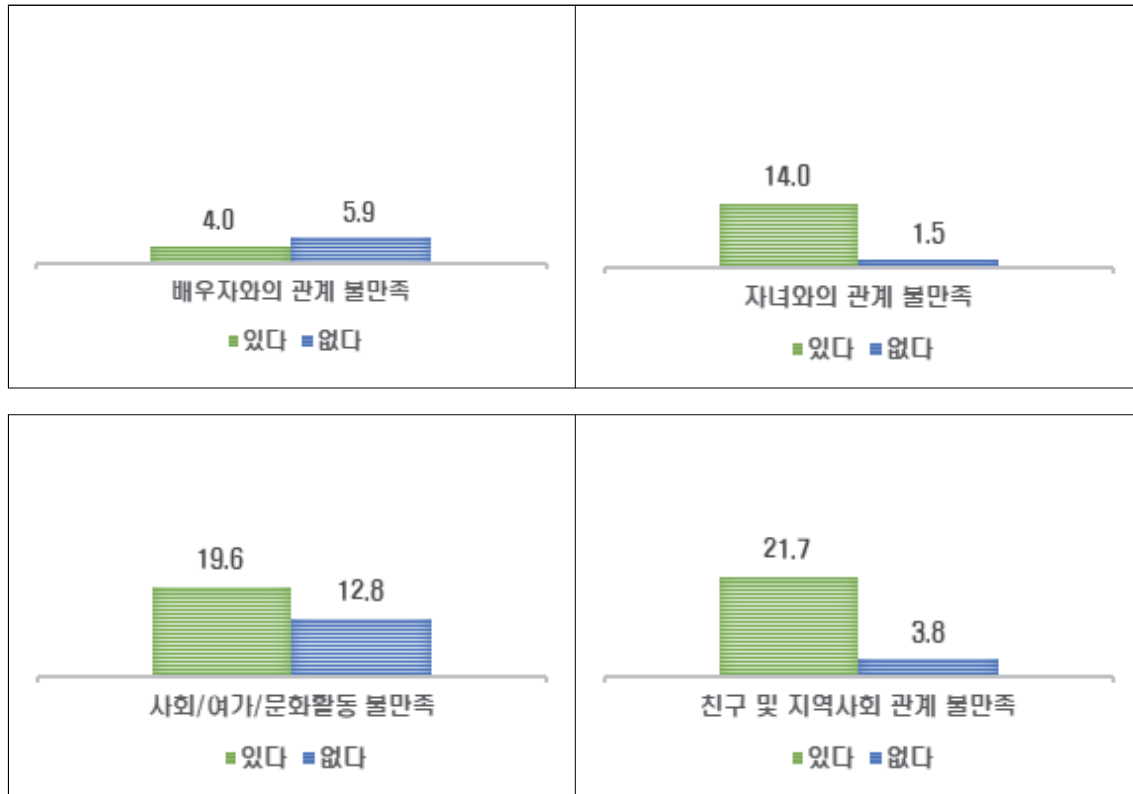
[그림 2-50]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삶의 부분별 '불만족'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그림 2-50] 충남 노인의 자살고민 여부에 따른 삶의 부분별 '불만족' 응답 비율(계속)

(단위 : %)



자료 : 2017 노인실태조사

제3절 시사점

1) 보건·복지

- 건강은 삶의 질(행복)의 주요한 요소로 건강이 악화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어플 개발 등)이 필요
- 충남 노인들은 병원진료율이 낮는데, 교통 불편은 도의 시책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한 만큼, 교통소외지역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안심버스의 확대운영 필요 (스트레스검사·건강검진 등)
 -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운영횟수 등 조정 필요
- 운동은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니만큼 전용 체육 및 놀이시설의 확충이 필요
 - 체육 및 놀이시설의 접근성 개선과 노인들에게 적합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고독감과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원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독거노인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방문 프로그램, 친구 만들기 등 맞춤형 시책 발굴 필요

2) 경제·사회활동

- 소득은 삶의 질(행복)의 주요한 요소, 타시도보다 낮은 월평균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시책 발굴 필요
 -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는 노인비중이 65.2%로 높기 때문에 노인무료버스 같은 간접적인 소득보전도 중요하지만 노인 일자리 등 직접적인 소득보전 시책도 고려해야 함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노인들의 활력부여가 필요
 - 특히, 노인들의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친목단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충남 노인들의 경우 경로당 이용률이 높고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낮는데, 이는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여겨짐

- 노약자를 위한 노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또한, 이용만족도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낮는데,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
-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취미여가프로그램, 식사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리뉴얼이 필요

3) 삶의 질

- 충남 노인의 전반적인 우울증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의욕저하, 기력이 나쁨 등 일부 척도의 경우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 특히, 충남과 인접한 시도인 세종은 17개 시도 중 우울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세종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우수정책 벤치마킹 필요
- 충남 노인의 선입견이나 부정적 사고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이나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
- 충남지역의 자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문화’이며, 이는 자존심이 강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해 어려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지역적 특성이라는 연구(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4)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4) 노인 자살률

- 충남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률은 도 단위 지자체 중 1위로 충남도의 노인 자살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
 - 충남노인의 7.9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는데,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충남은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책 마련(관련연구, 전문가 토론회 등)이 필요
- 지루함, 상쾌하지 못함, 즐겁지 않음, 살아있음이 즐겁지 않음 등 우울증 척도와 자살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우울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인정신(마음)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필요
 - 충남 노인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관련 인프라 확대
 -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추진
- 외로움과 복합적인 질병의 경우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외로

움과 복합적인 질병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

- 독거노인과 복합적인 질병이 확인된 노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추진 필요
-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해 어려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부적인 양반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필요
- 일과 사회활동은 노인들의 자살생각을 낮추는 주요요인으로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지원 필요
- 노인들의 단순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충남 노인자살의 주요요인 중 하나는 자녀와의 갈등이나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불만 죽음
- 갈등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방안마련이 시급
-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민권협력체계 구축, 유족모임 활성화가 필요
- 자살에 대한 터부시, 부정적, 은폐적인 인식문화는 자살 예방이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자살을 공론화하고 자살 위험요인을 제어해야 함
-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충남도와 지자체에서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하고 종교계나 사회복지계 등의 민간이 함께 하는 지역 주민참여형 자살예방체계 구축
-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해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 개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족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유족과 지인대상 심리부검으로 자살자의 사망 직전 심리상태와 환경을 파악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
- 자살 고위험 군에 대한 스크린시스템 확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살시도로 응급실 내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 노인에게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를 활용해서 자살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
- 주치의 제도를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고위험 군을 발견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복지관에 제공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노인자살 예방 필요

Ⅰ 제3장 Ⅰ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제1절 분석 개요

- 1) 작성기관 : 통계청 사회통계 고용통계과
- 2) 조사목적 :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 3) 조사대상 : 전국 11,695개 조사구의 233,900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총남샘플 26,751명)
- 4) 조사기간 및 주기 : 반기(계속통계)
- 5) 조사항목
 - 일에 관한 사항(15개 문항)
 - 구직에 관한 사항(4개 문항)
 -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4개 문항)
 -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5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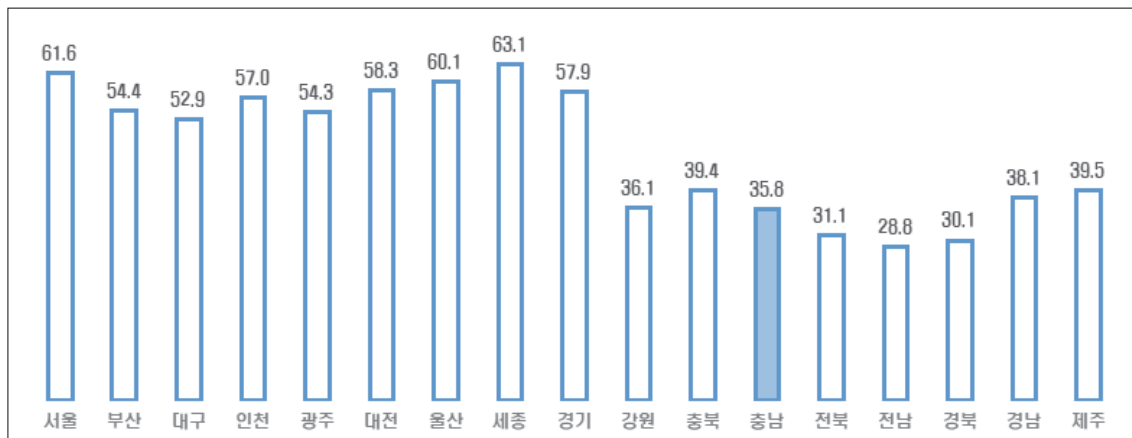
제2절 분석 결과

1. 근로자

- 충남은 상용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임
 - 충남의 상용근로자 응답 비중은 35.8%로 전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게 나타났고 충청권에 지자체 중 가장 낮음
 - 충남은 서울 및 광역시의 상용근로자 응답 비중에 비해 최소 17.0%p, 최대 27.3%p 차이로 낮게 나타남

[그림 3-1] 시도별 상용근로자 응답 비율(조사대상주간 : 2020.10.11.~10.17.)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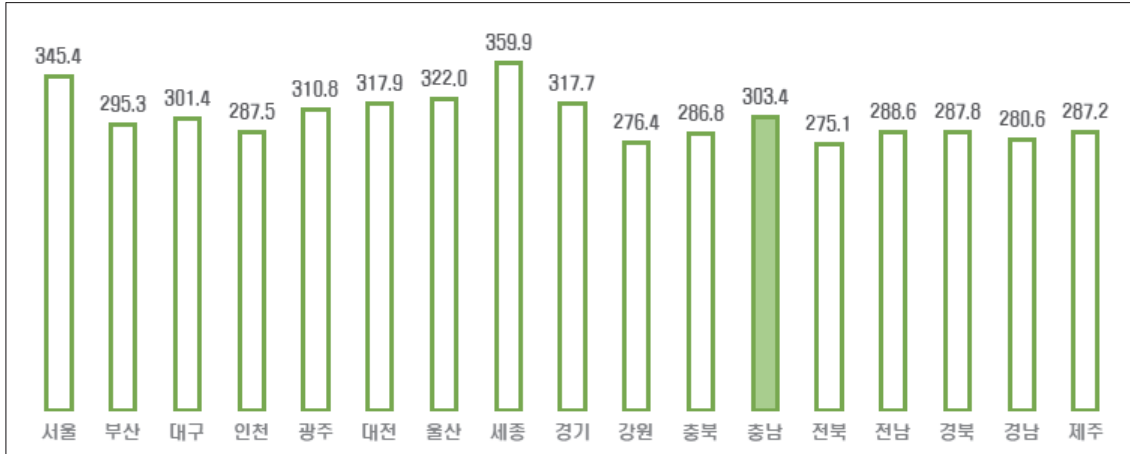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응답자의 급여수준이 높은 편임
 - 충남 상용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의 응답 평균은 303.4만원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7위에 해당하지만, 도 단위 지자체 중 2위에 해당
 - 충남 임시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의 응답 평균은 131.3만원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하지만,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도 단위 지자체 중 경기도 다음으로 높음

[그림 3-2] 상용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의 시도별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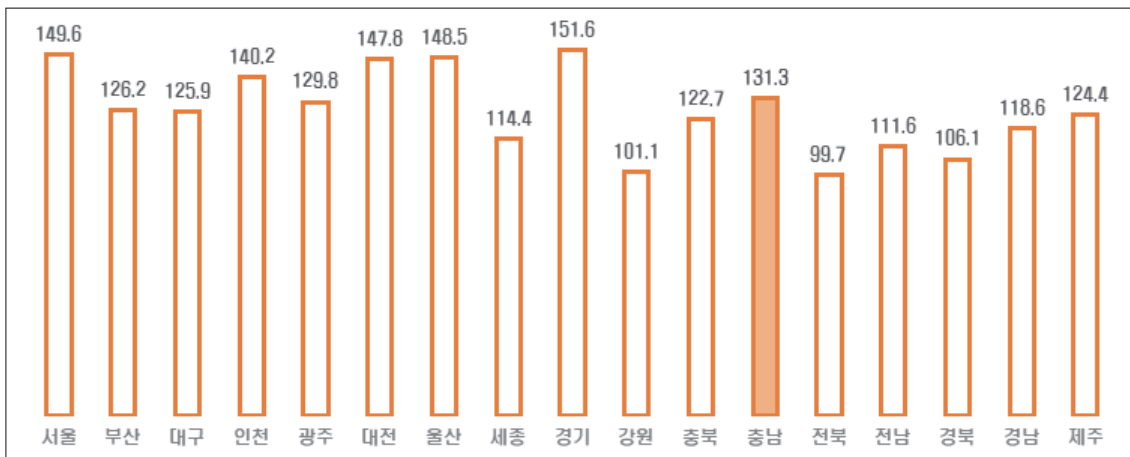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3] 임시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의 시도별 응답 평균

(단위 : 만원)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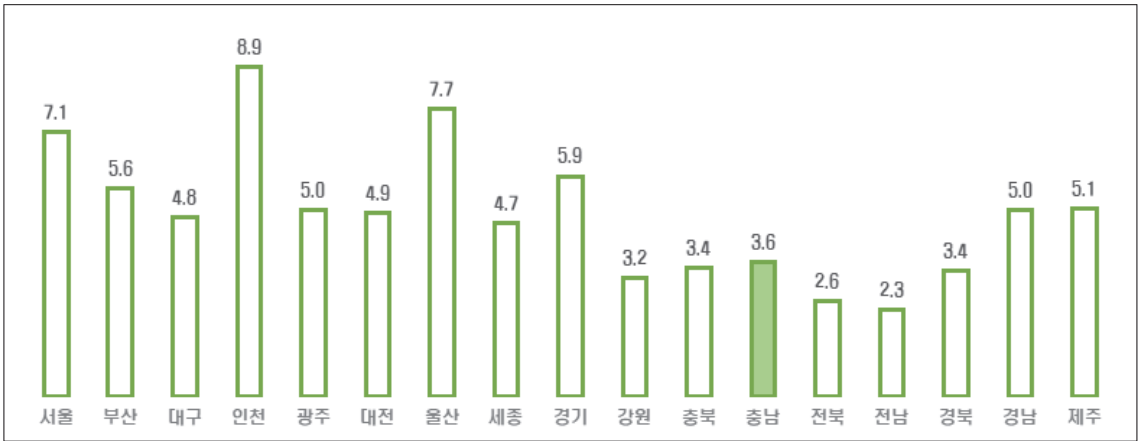
2. 비근로자

1) 구직자

- 충남은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임
 - 충남은 지난 4주내 직장(일)을 구해봤다는 응답자가 3.6%로 전체 17개 시도 중 12위임
 - 특히, 충남은 서울, 인천, 울산의 구직활동 응답 비율에 비해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 비율이 두 배가량 낮음

[그림 3-4] 시도별 구직활동 응답 비율(지난 4주내, 2020.09.20.~10.1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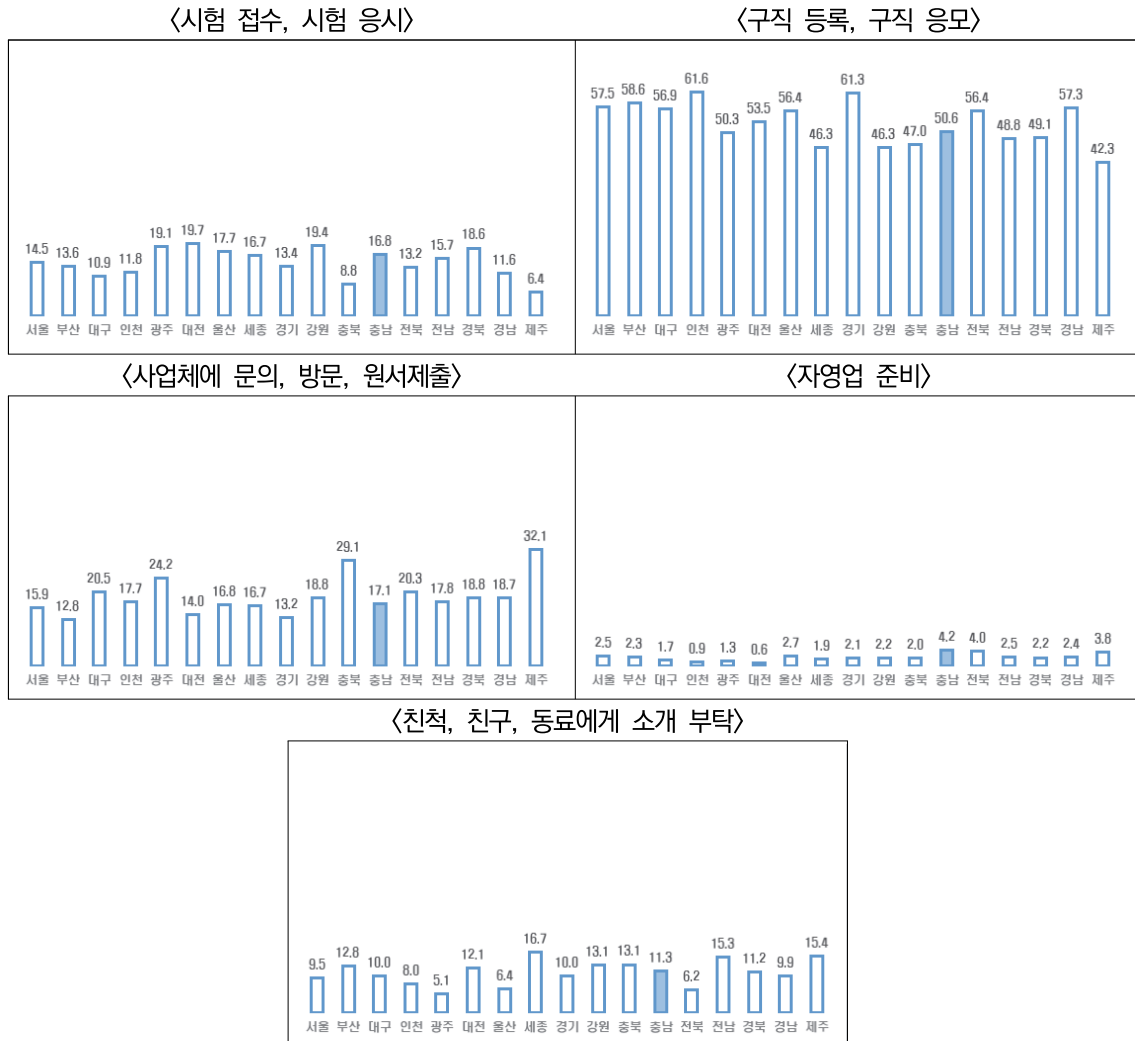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충남은 주요 구직방법은 구직 등록(구직 응모)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직 경로 중 공공기관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활동은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충남은 구직 방법 중 구직 등록(구직 응모)를 통해 직장을 구해봤다는 응답 비중이 50.6%로 구직 방법 응답 중 가장 높지만 타 시도의 구직 등록(구직 응모) 응답 비율에 비해 낮은 편
 - 충남은 구직방법으로 시험 접수(시험 응시)를 했다는 비중은 16.8%로 전체 17개 시도 중 응답 비중이 6위에 해당하고 자영업 준비는 4.2%로 전체 17개 시도 중 1위임

[그림 3-5] 시도별 구직자 주요 구직방법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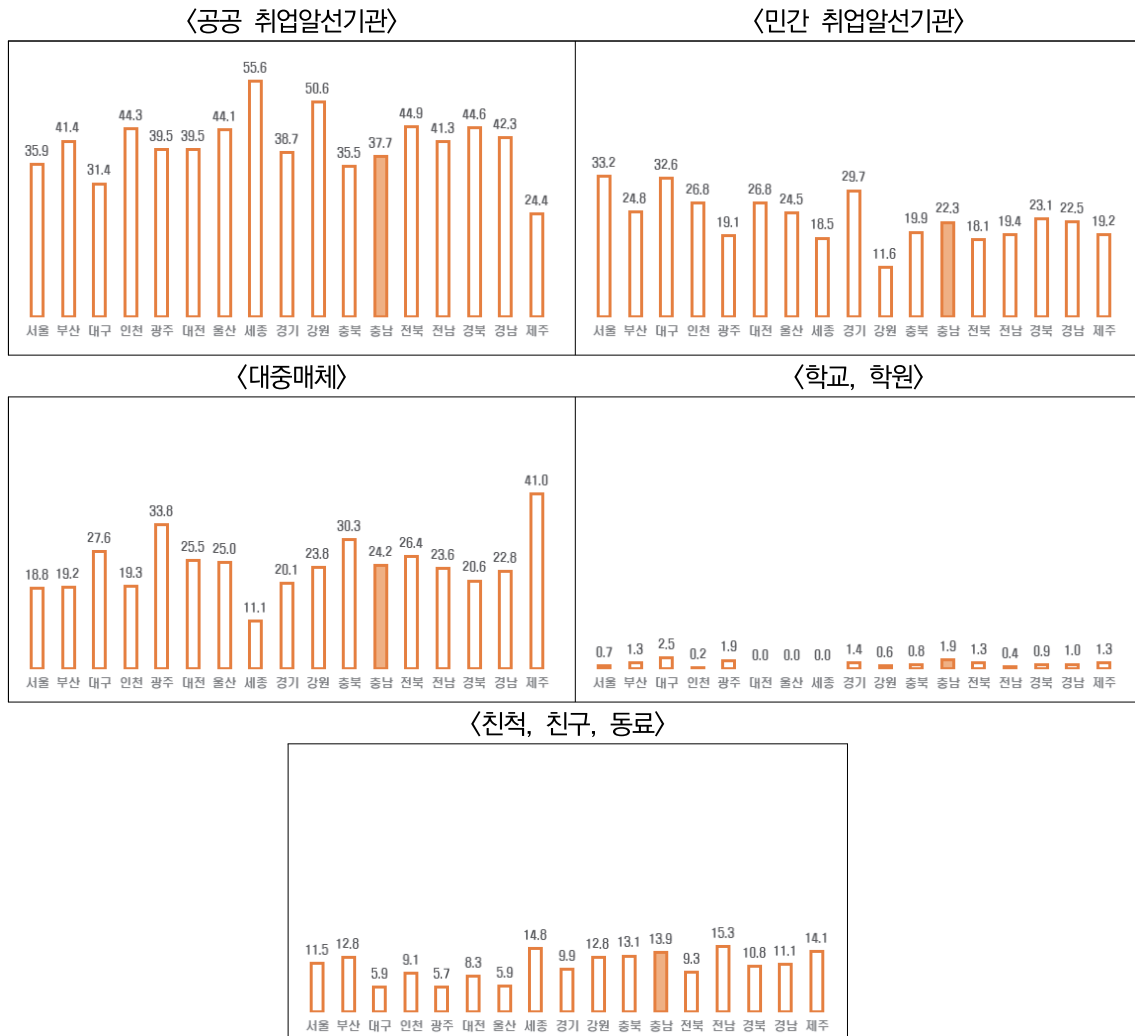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충남은 구직경로로 공공기관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직장을 알아봤다는 응답 비중이 37.7%로 나타났는데, 전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게 나타남
- 충남은 구직경로 중 타 시도에 비해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해 직장을 알아봤다는 응답 비중이 높는데, 응답률은 13.9%로 전체 17개 시도 중 4위에 해당
- 충남은 구직활동기간의 응답 평균이 2.6개월로 전체 구직활동기간 응답 평균인 2.8개월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3-6] 시도별 구직자 주요 구직경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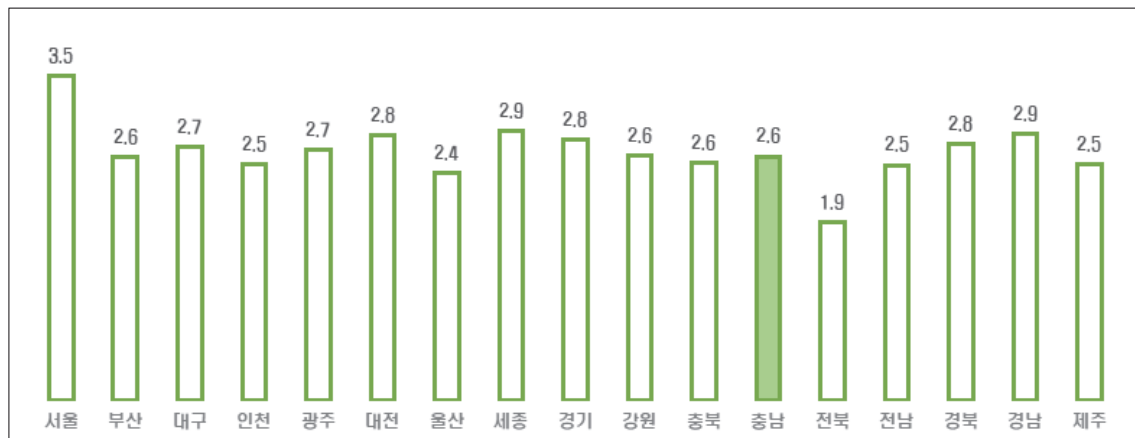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7] 시도별 구직자 구직활동 기간 응답 평균

(단위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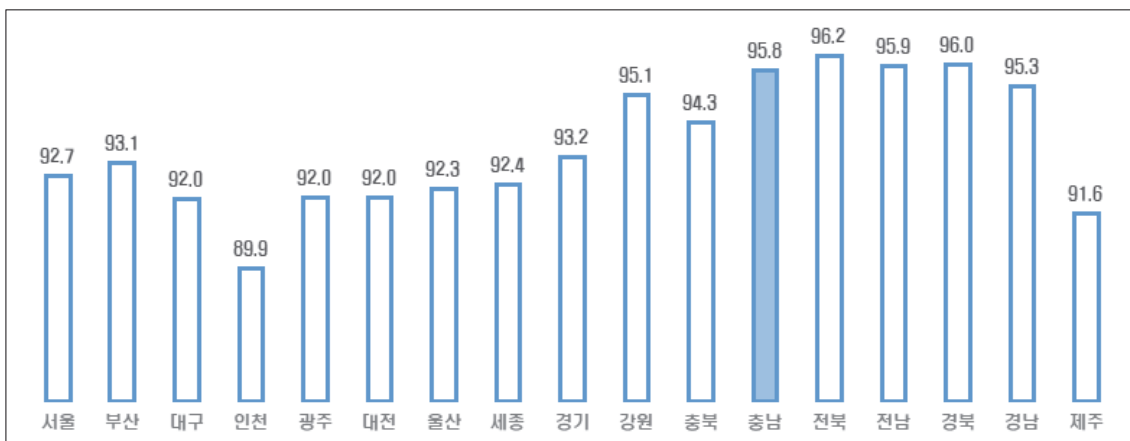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 비구직자

- 충남은 비구직 응답자 중 직장(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충남은 지난 4주내(2020.09.20.~10.17.)비구직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95.8%가 조사대상 주간(2020.10.11.~10.17.)에 직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전체 17개 시도 중 4위에 해당
 - 충남을 비롯한 도 단위 지자체는 특별시 및 광역시 비구직 응답자에 비해 직장(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비중이 대체로 높게 나타남

[그림 3-8] 시도별 비구직자 직장(일) 비희망 비율(조사대상주간 : 2020.10.11.~10.1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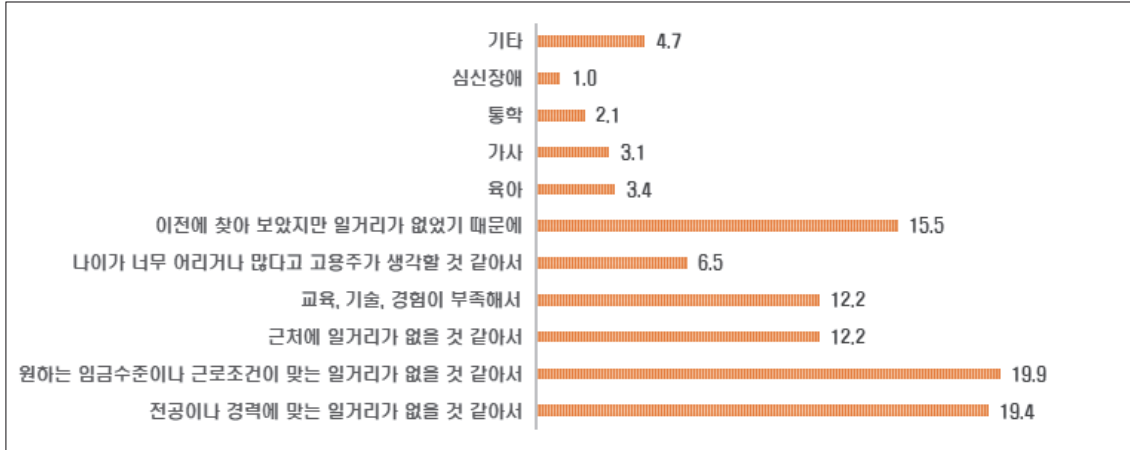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충남은 비구직 응답자 중 직장(일)을 원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비구직자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일)을 원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19.9%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구직을 하지 않았고 19.4%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에 일거리를 찾아보았으나 일거리가 없어서 구직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5.5%로 나타났고 근처에 일거리가 없거나,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구직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12.2%로 나타남

[그림 3-9] 충남 비구직 응답자 중 직장(일)을 희망한 응답자의 퇴직 사유 응답 현황
(지난 4주내, 2020.09.20~10.1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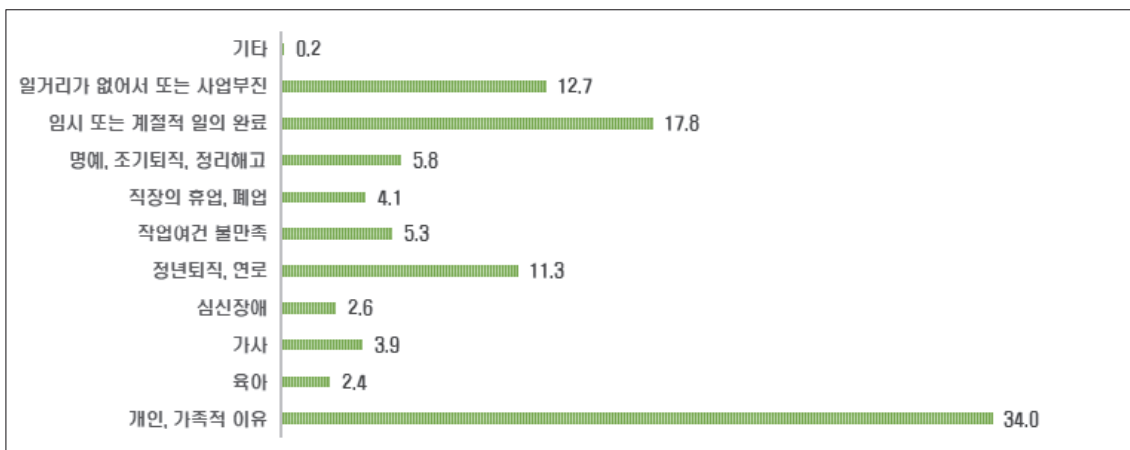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충남은 비구직 응답자 중 직장(일)을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퇴직사유가 개인(가족)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충남은 비구직 응답자 중 직장(일)을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개인(가족)적인 이유로 퇴직했다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충남 비구직 응답자 직장(일)을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 17.8%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로 인해 퇴직했고 12.7%는 일거리가 없어서(또는 사업부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일자리 부족이 주요 퇴직원인이라 할 수 있음

[그림 3-10] 충남 구직 비희망자 퇴직 사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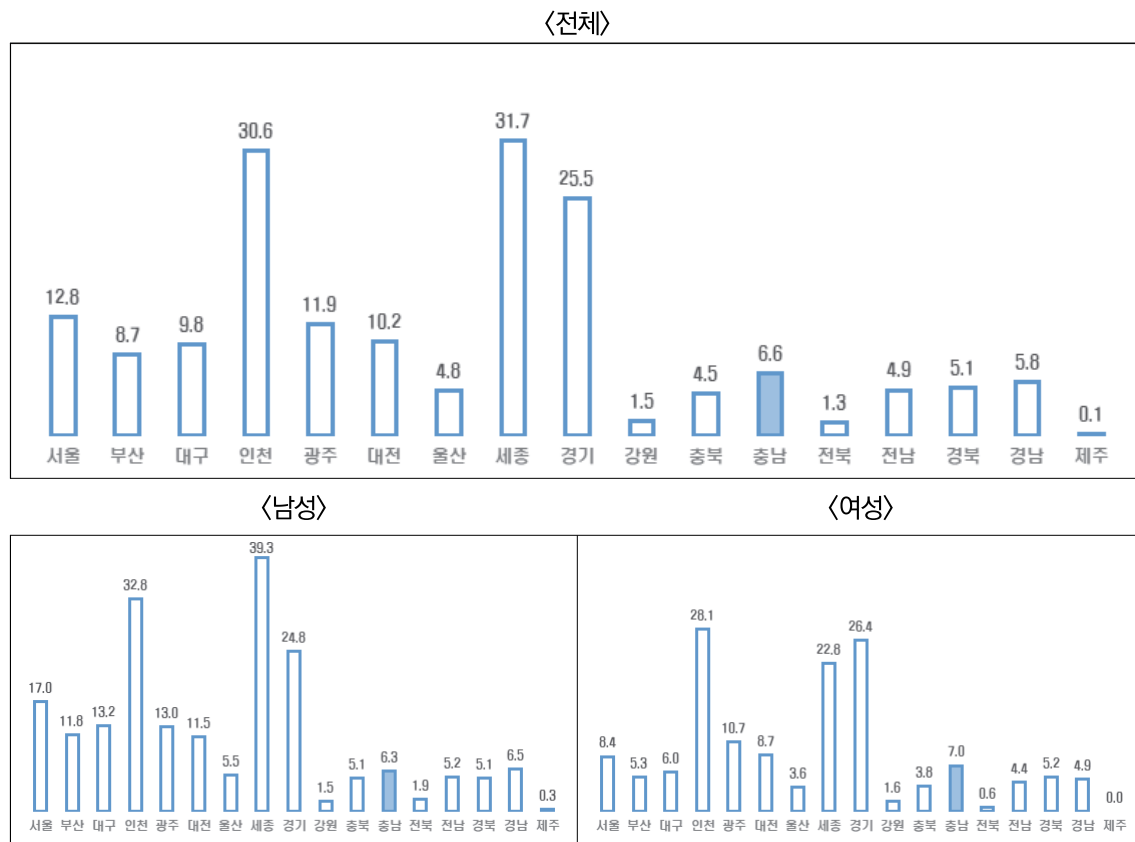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3. 충남 청년 이탈률 심층분석

- 충남의 청년(40세 미만)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도 단위 지자체 중 타 지역에서 근로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음
 - 충남 청년의 타 지역에 근로한다는 응답 비중은 6.6%로 전체 17개 시도와 비교 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도 단위 지자체 중 2위에 해당
 - 특히, 충남은 청년 응답자 중 여성이 타 지역에서 근로한다는 응답 비중이 더 높음

[그림 3-11] 시도별 타 지역에서 근로하는 청년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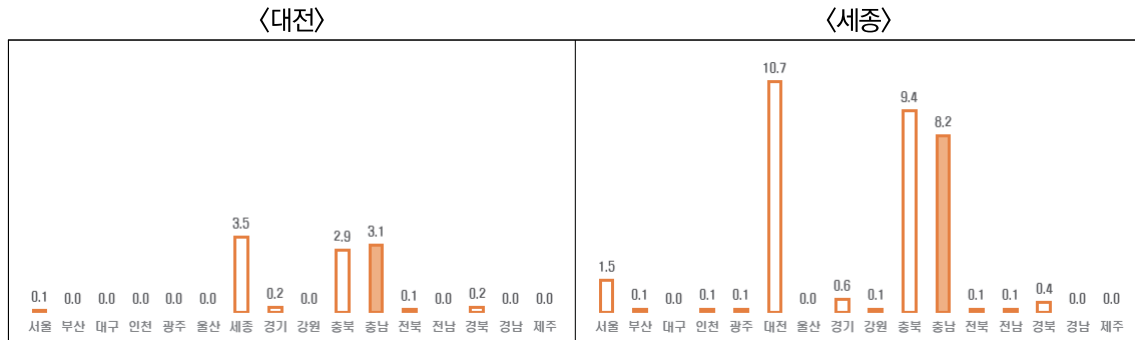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세종에 신도시 건설로 충남 청년의 일부는 세종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임
 -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 응답자 중 3.1%는 충남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 응답자 중 8.2%도 충남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세종은 타 지역에서 근로한다는 응답 비중이 31.7%로 이 중 대부분이 대전, 충남, 충북에 근무하고 있는데, 신도시 건설로 인근 지자체 청년의 이탈률을 높인 것으로 보임

[그림 3-12] 대전 및 세종 청년의 타 지역 근로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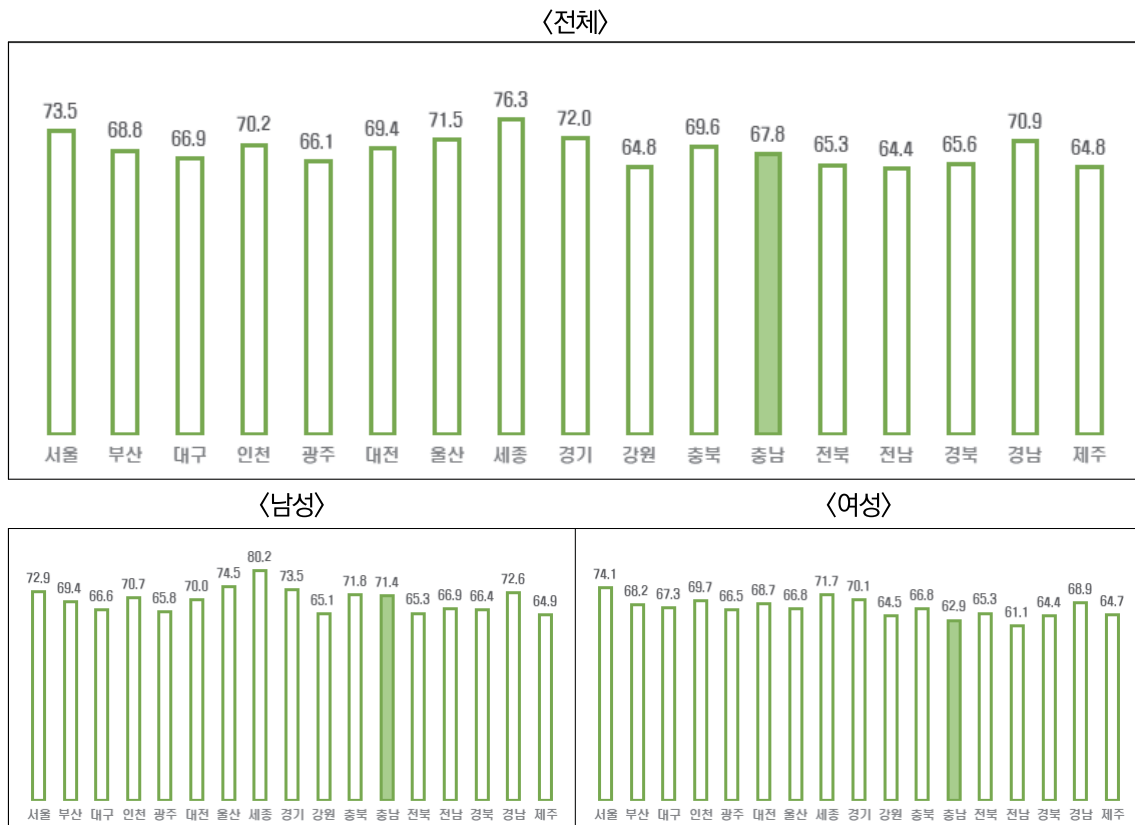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충남은 청년 응답자 중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충남 청년 중 상용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중은 67.8%로 타 시도에 비해 높지 않은 편임
 - 반면, 충남 청년 응답자 중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62.9%로 전체 17개 시도 중 16위

[그림 3-13] 시도별 청년 상용근로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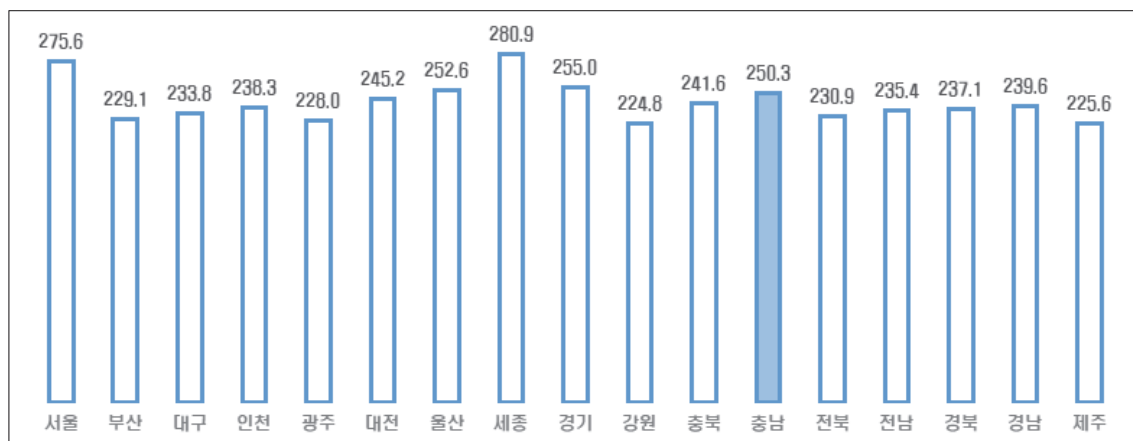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충남 청년 응답자의 임금수준은 높지만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높음
 - 충남 청년 응답자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의 응답 평균은 250.3만원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5위에 해당하고 도 단위 지자체 중 2위에 해당함
 - 하지만, 청년 남녀 응답자 간 임금격차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인데, 충남의 청년 응답자 중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을 평균 75.4만원 더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17개 시도 중 2위에 해당

[그림 3-14] 청년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의 시도별 평균

(단위 : 만원)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15] 시도별 청년의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 성별 격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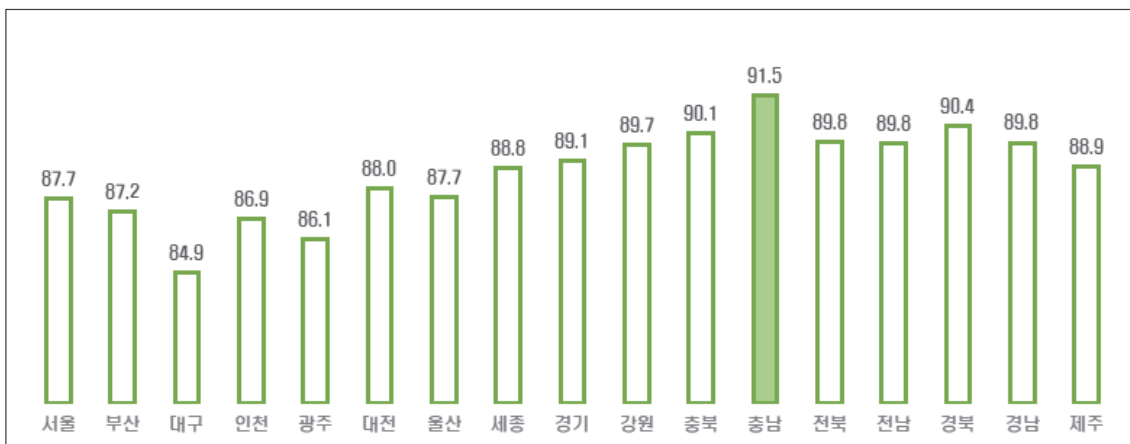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충남은 비구직 청년 응답자 중 직장(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충남은 지난 4주내(2020.09.20.~10.17.) 비구직했다고 응답한 청년 응답자 중 91.5%가 조사대상주간(2020.10.11.~10.17.)에 직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전국 1위에 해당
 - 충남은 지난 4주내(2020.09.20.~10.17.) 비구직했다고 응답했지만 조사대상주간(2020.10.11.~10.17.)에 구직을 희망했던 청년 응답자의 주요 비구직 사유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는데,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24.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6] 시도별 청년 비구직자 직장(일) 비희망 비율(조사대상주간 : 2020.10.11.~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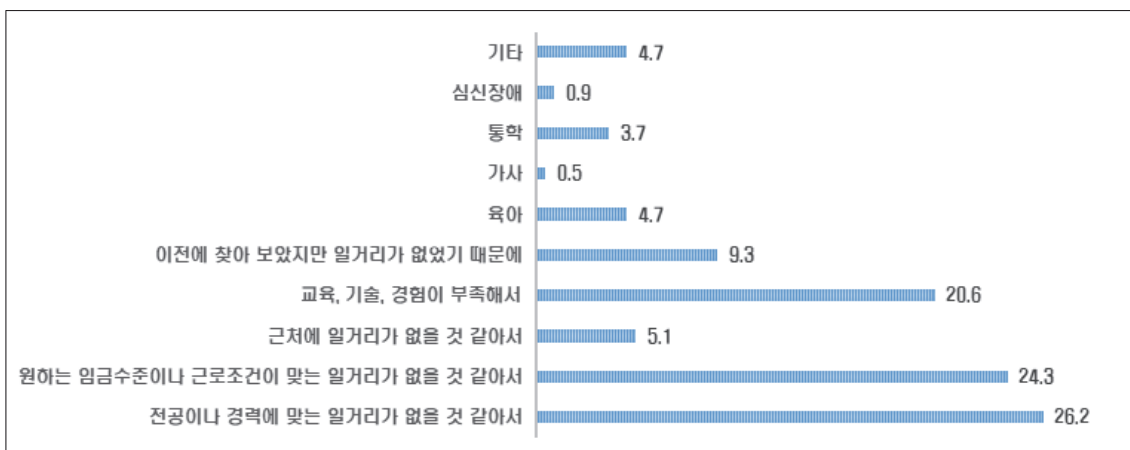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17] 충남 청년 비구직자의 비구직 사유(지난 4주내, 2020.09.20.~10.1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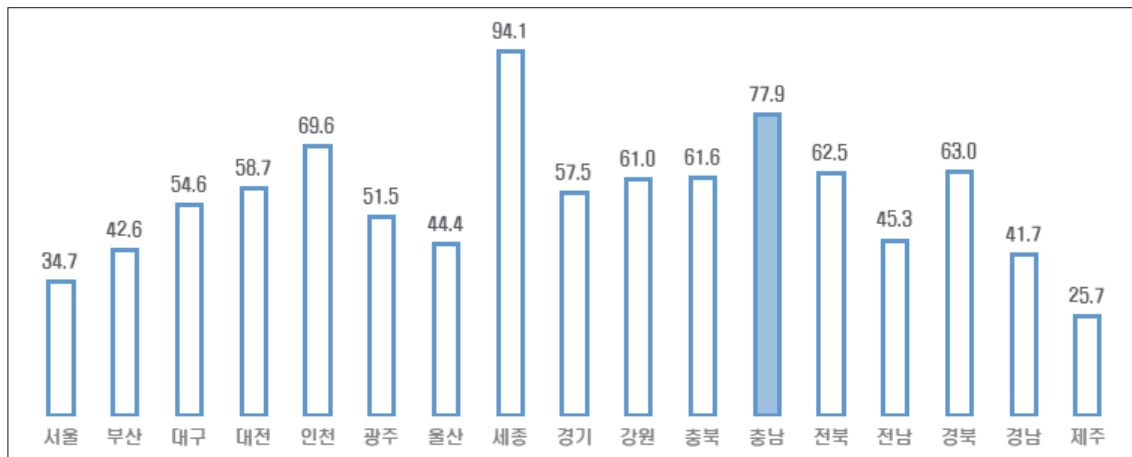
자료 : 2020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4. 충남 청년 이탈률 추가 분석(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2019 대졸자지역이동경로조사에 따르면 충남 소재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의 타 시도 취업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 중 77.9%는 충남이 아닌 타시도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 모두 충남 보다는 서울, 경기도로 취업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18] 시도별 해당 소재 지역대학 졸업 응답자 타시도 취업 비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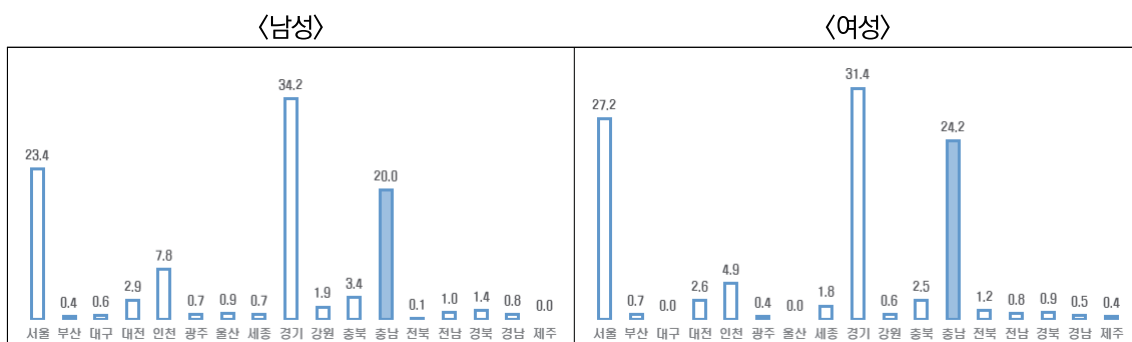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그림 3-19] 충남지역 대학 졸업 응답자 성별 취업 지역 비율(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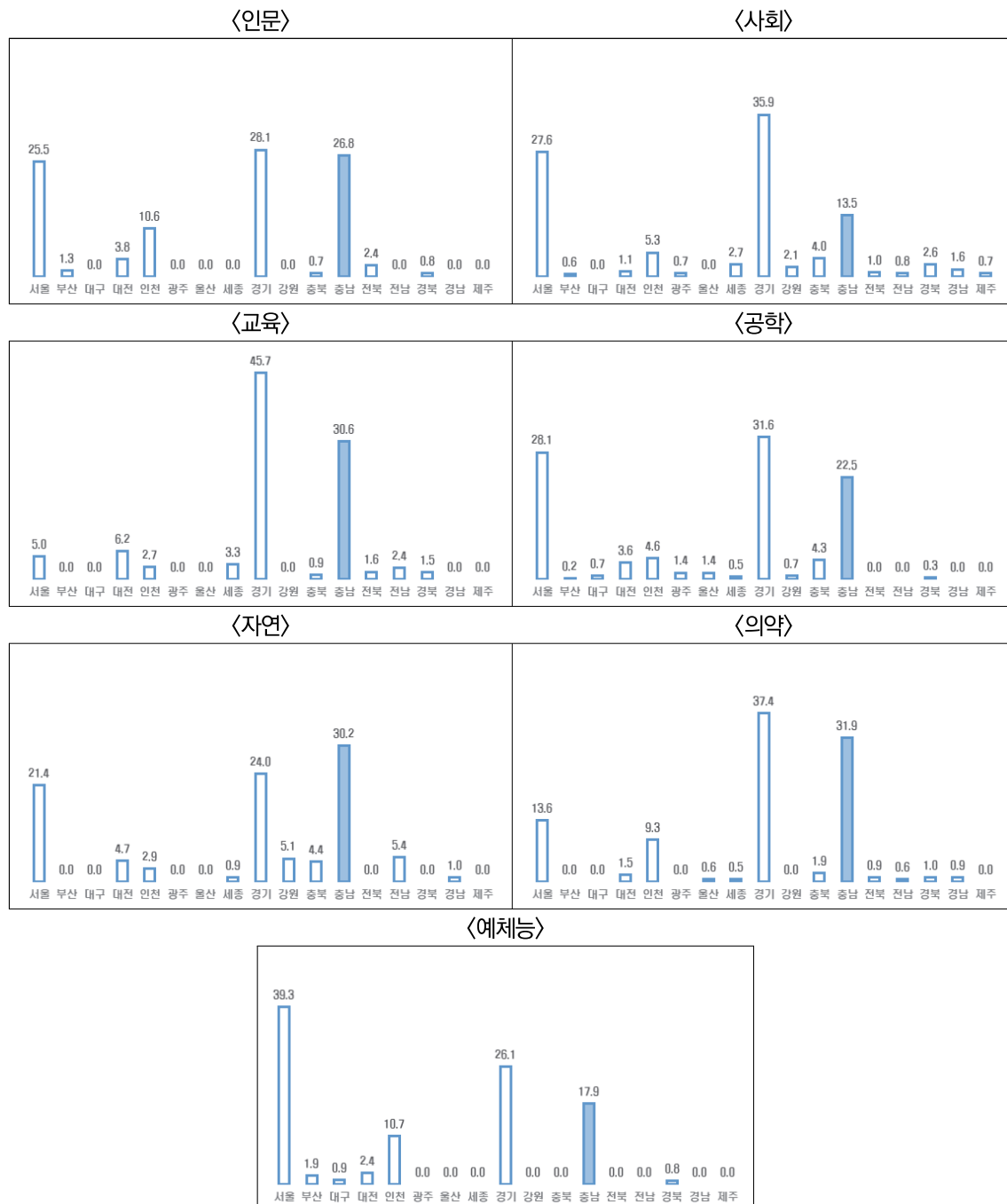


자료 :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충남지역 대학 졸업 응답자 중 사회, 예체능 전공자는 충남 취업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충남지역 대학에서 의학, 자연, 교육 전공자한 응답자는 충남에 취업한 비중은 30% 이상임
 - 하지만, 충남 지역대학에서 사회, 예체능 전공한 응답자의 충남 취업 비중은 각각 13.5%, 17.9%로 낮게 나타남

[그림 3-20]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전공별 취업지역 응답 비율(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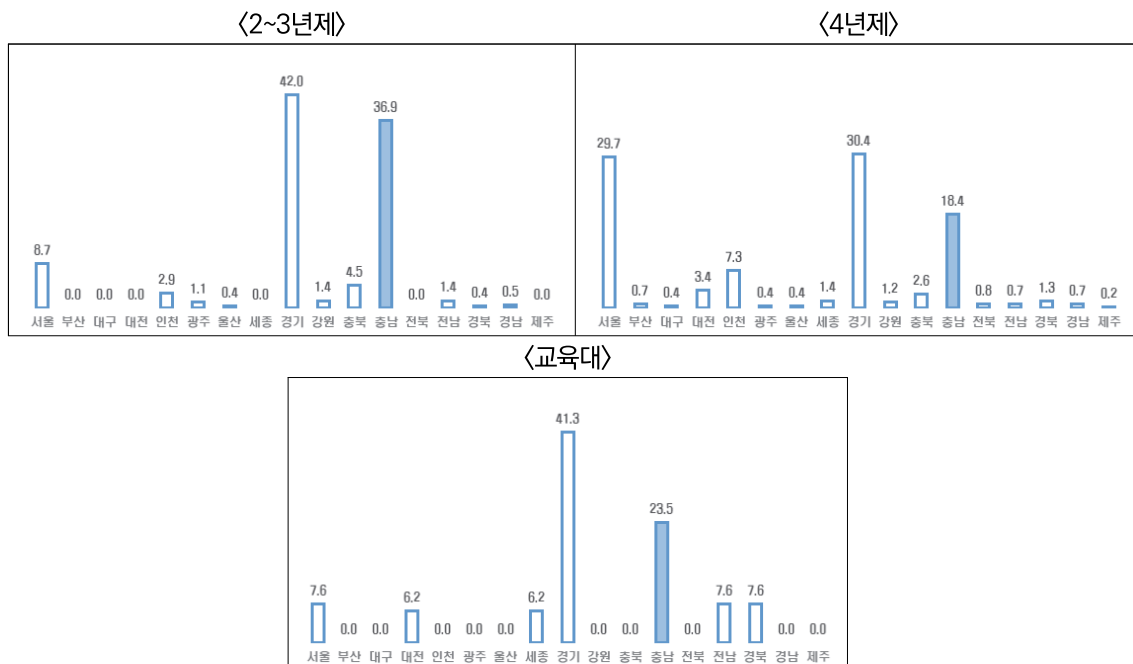


자료 :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충남지역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 중 충남에 취업한 비중은 4년제 보다 2~3년제 비중이 더 높음
 - 충남지역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 36.9%는 충남에 취업했고 42.0%는 경기도에 취업
 - 충남지역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 18.4%는 충남에 취업했지만, 29.7%는 서울에 취업했고 30.4%는 경기도에 취업함
 - 충남지역 교육대를 졸업한 응답자 중 23.5%는 충남에 취업했지만, 41.3%는 경기로 취업함

[그림 3-21]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학교유형별 취업지역 응답 비율(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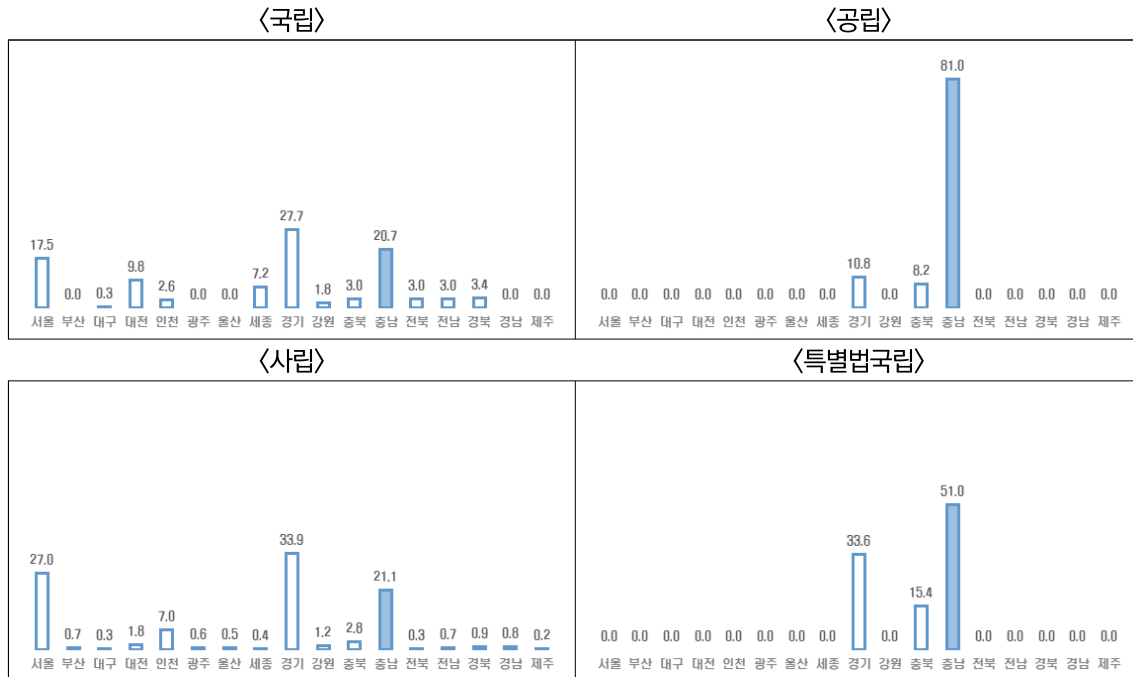


자료 :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충남지역 공립대와 특별법국립대를 졸업한 응답자는 국립대 및 사립대를 졸업한 응답자 보다 충남 지역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 공립대를 졸업한 응답자 81.0%는 충남에 취업했고 특별법국립대를 졸업한 응답자 51.0%는 충남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충남지역 국립대를 졸업한 응답자 중 20.7%만 충남에 취업했고 사립대를 졸업한 응답자는 21.1%만 충남에 취업함
 - 충남 지역 국립대를 졸업한 응답자는 인근지역인 대전과 세종에 취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립대를 졸업한 응답자는 서울과 경기 취업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22]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국·공·사립별 취업지역 응답 비율(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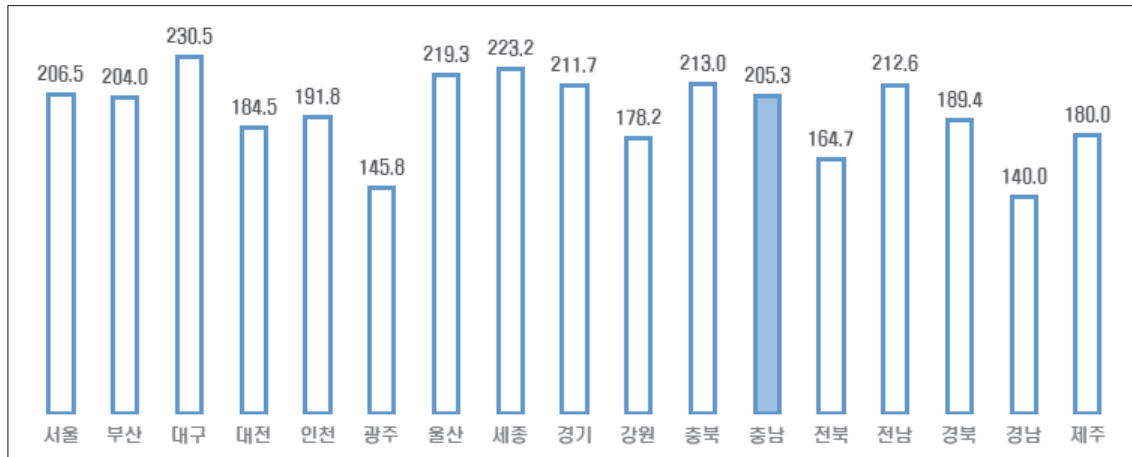


자료 :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충남지역 대학 졸업 후 충남에 취업한 응답자의 월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 대학 졸업 후 충남에 취업한 응답자의 월급 평균은 205.3만원으로 주요 취업지역인 서울(206.5만원), 경기(211.7만원)보다 낮게 나타남
 - 또한 대전을 제외하면 같은 충청권인 세종과 충북에 취업한 응답자보다 충남에 취업한 졸업자의 월급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남
- 충남지역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의 지역별 정규직 비중은 충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충남지역 대학 졸업 후 충남에 취업한 응답자 중 60.0%만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가 충남 이외 주요 취업한 지역인 서울은 정규직 비율이 80.1%로 나타났고 경기는 80.6%로 나타남

[그림 3-23]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취업 지역별 월급 평균(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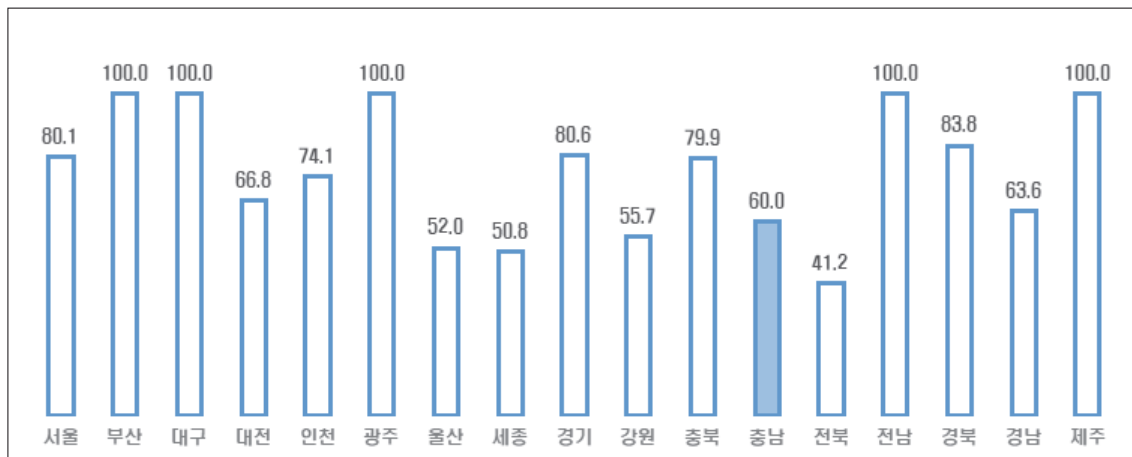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자료 :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그림 3-24]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취업 지역별 정규직 비율(2018)

(단위 : %)



자료 :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제3절 시사점

1) 근로자

- 충남은 응답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낮으므로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
 - 상용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용근로자 수 확대 운영에 따른 임금감소액 보전이 필요
 - 기존에 고용된 임시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이 필요
- 충남은 응답자의 급여수준은 높은 편이므로 급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 기업의 경영위기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지 원금을 지원해 급여수준 및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2) 비근로자

- 충남은 비근로 응답자의 구직활동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 많지 않기 때문이므로 맞춤형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
 - 구직활동 시 공공기관 취업알선기관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공공기관 취업알선기관의 이용률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운영은 공공기관 취업알선기관에서 운영하여 충남 내 공공기관 취업알선기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충남의 비근로 응답자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일자리 수도 부족해 구직활동이 저조하므로 단기적으로 공공근로일자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신산업을 육성
이 필요
 - 단기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일자리를 만들어 도내 복지서비스도 향상하고 비근로자가 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
 - 장기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의 남부 권에 기업을 유치해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공급이 필요

3) 청년 이탈률

- 충남은 청년 응답의 타 지역 근로 비중이 높는데, 상용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이 낮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크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의 타 지역 근로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취업준비생이 도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특히, 여성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
 - 현재, 타 지역에 근로하는 청년의 이직을 유도하기 보다는 취업을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충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충남에 소재한 기업 취업 시 일정기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 사업 추진이 필요
 - 특히, 청년 응답의 비구직 사유 중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여성 취업준비생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회사를 지원하여, 여성의 직업 기술 및 경험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세종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응답자 중 충남에 거주하던 청년 일부가 세종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역으로 이탈한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타 지역 청년이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 현재, 주택청약제도는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높으면 가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당첨의 기회가 우선되고 있음. 하지만, 충남과 같이 인구 유출이 있는 지역은 해당지역에 직장이 있고 타 지역에서 이주하려는 자에게 청약가점 혜택을 부여하여 충남에 직장이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충남에 다시 돌아오도록 유인해야 함
- 취업 준비생을 위한 충남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충남 소개 기업들에 대한 Database(기업명, 업태, 업종, 주요직무, 임금 및 복지수준 등)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가칭 : 충남형 o*net)
- 취업 준비생을 직접 지원 강화가 필요
 -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수강비, 자격증 취득 제반 비용, 교통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형 청년 포인트 지급
 - 면접 복장대여, 면접장까지의 교통편 제공, 면접 시 옷차림 및 화장법 강의 등을 지원하는 면접 도우미 시스템 구축

Ⅰ 제4장 Ⅰ

2019년 주거실태조사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제1절 분석 개요

- 1) 작성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2) 조사목적 : 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파악, 주택 소요량 및 선호도 파악을 통해 공급계획 지원, 주거복지 소요 파악,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3) 조사대상 : 표본수 59,250가구(일반가구 5.1만 + 서울시 8,250가구)
(충남 샘플 : 2,938가구)
- 4) 조사기간 및 주기 : 1년(계속통계)
- 5) 조사항목
 - 주택 및 주거환경(25개 문항)
 -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13개 문항)
 - 정책평가 및 정책욕구(3개 문항)
 - 가구에 관한 사항(12개 문항)
 - 특수가구 조사(신혼부부, 노인가구(서울시, 인천시 추가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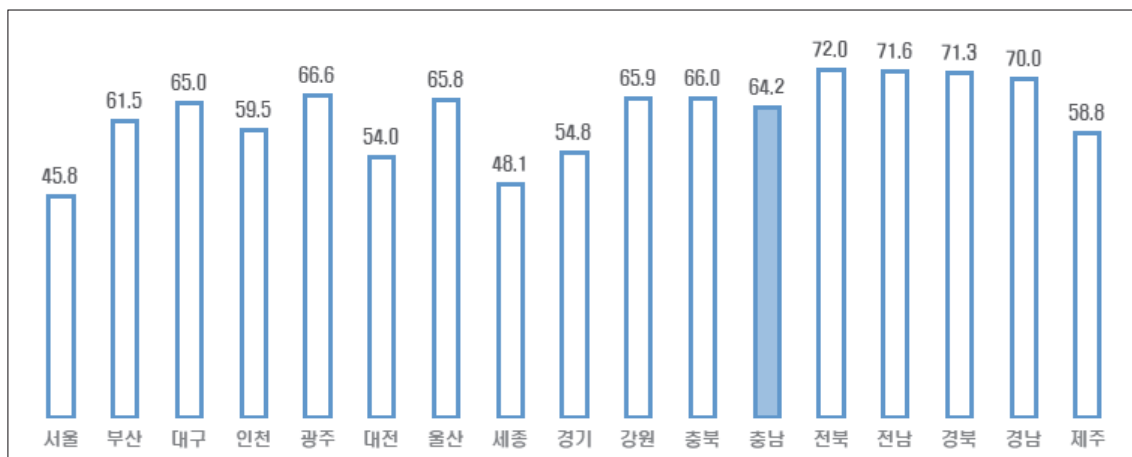
제2절 분석 결과

1. 주택 및 주거환경

- 충남 응답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낮고 최근에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한 비중이 낮지만, 주택 마련 평균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응답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64.2%로 도 단위 지자체 총 거주 비율이 세 번째로 낮음
 - 충남은 1980년대 이전에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했다는 응답 비중이 17.2%로 전체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고 1990년대 이후 응답 비중은 모두 전체 응답비중 보다 낮게 나타남
 - 충남은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한 기간 응답 평균이 84.8개월로 전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게 나타남
- 충남 응답자는 타 시도에 비해 주택 구입 비중이 높지 않고 주택 구입자금 중 자기자금 비중이 낮으며, 주택 임차료나 대출금 상황도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응답자는 신규주택 구입 비중이 14.4%로 전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고 기존 주택 구입 비중은 45.3%(12위), 개인주택 신축은 19.2%(2위)로 나타남
 - 충남 응답자는 주택 구입자금 비중이 79.9%로 전체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낮게 나타남
 - 충남 응답자는 임차료나 대출금 상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9.6%로 전체 17개 시도 중 8위

[그림 4-1] 시도별 자가 거주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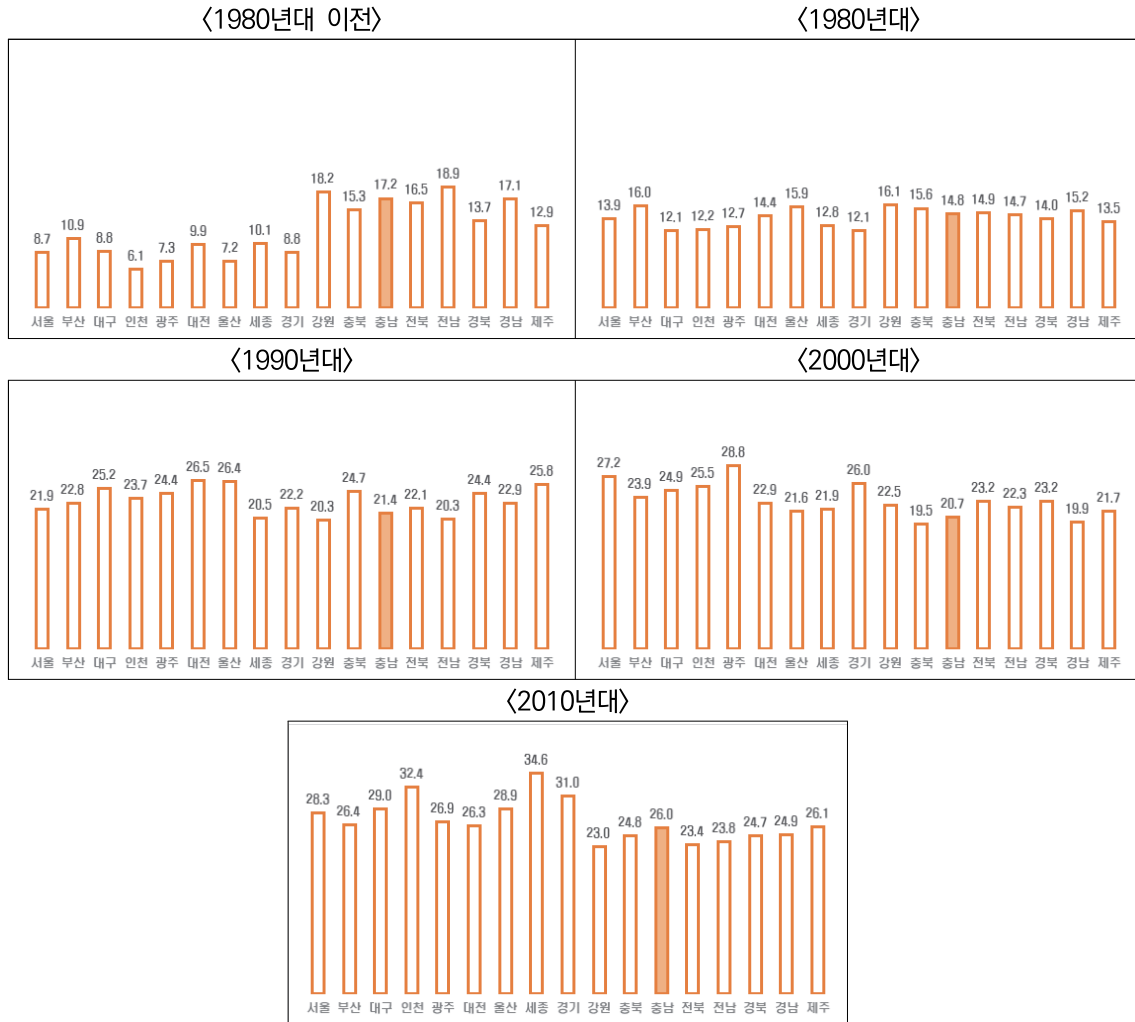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2] 시도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연대별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3] 시도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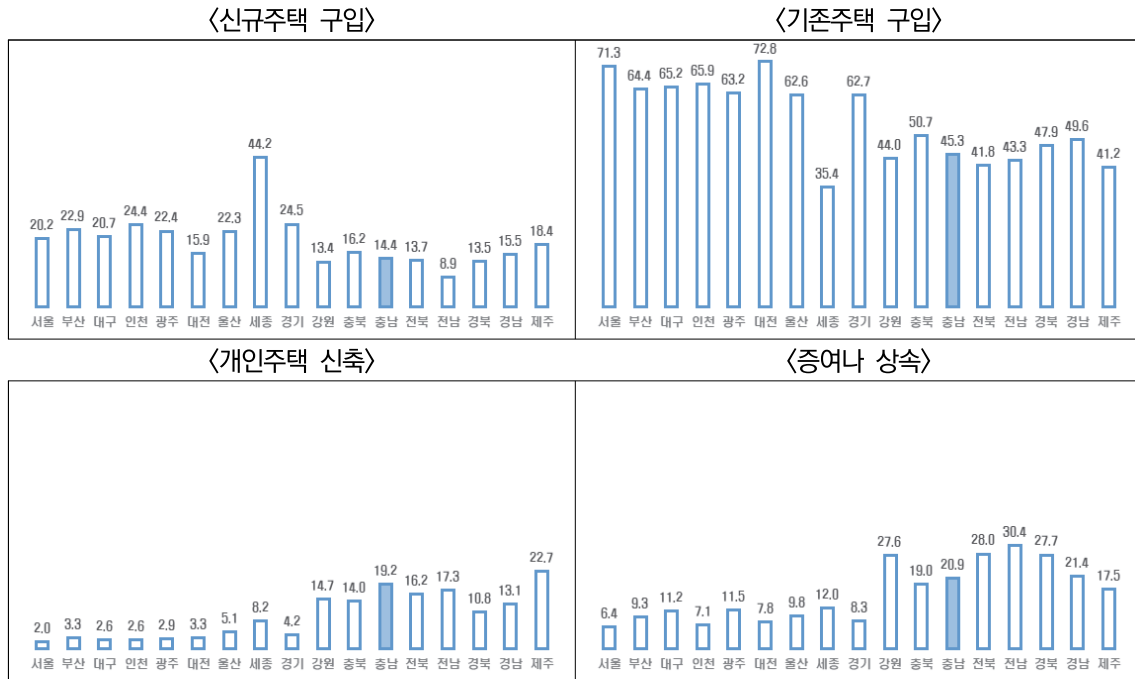
(단위 : 개월)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4] 시도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마련 방법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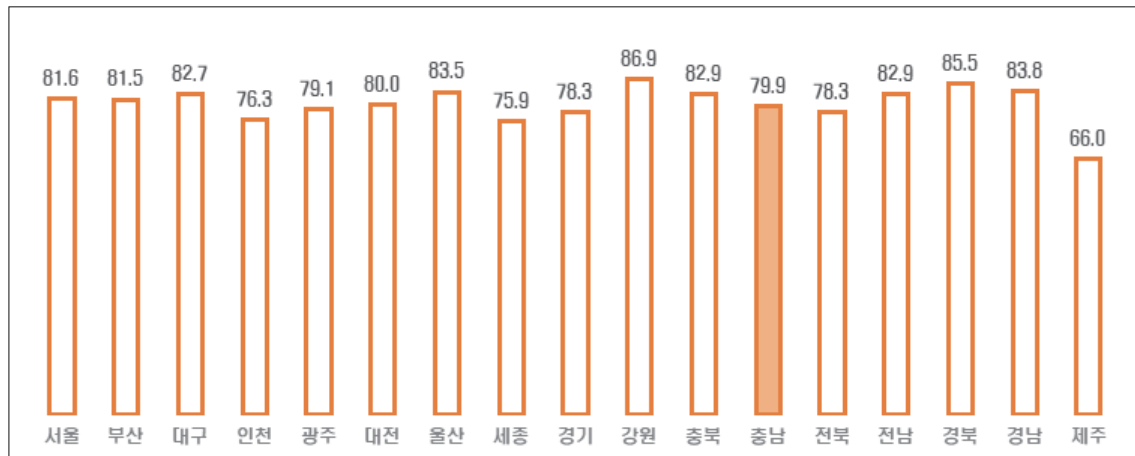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5] 시도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구입 자금 중 자기자금 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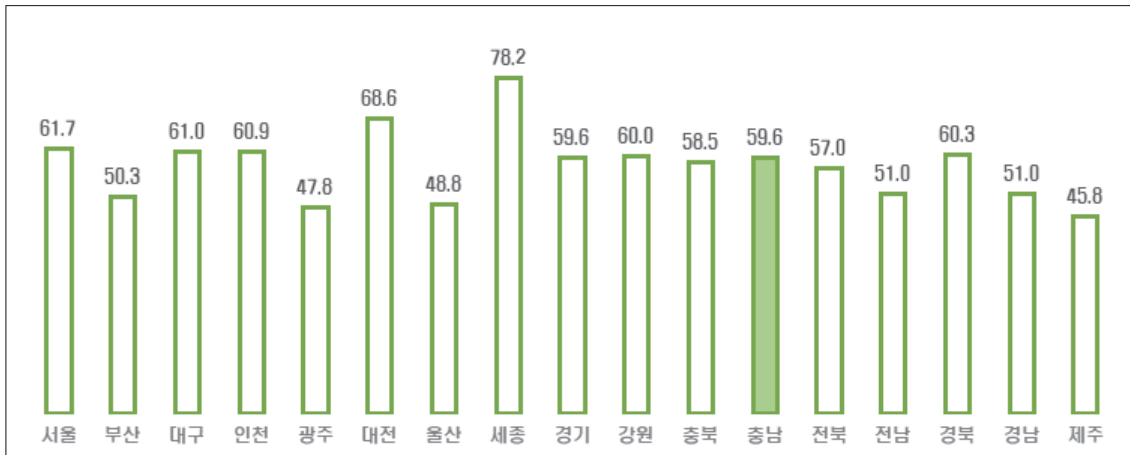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6] 시도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 상황이 '부담'이라는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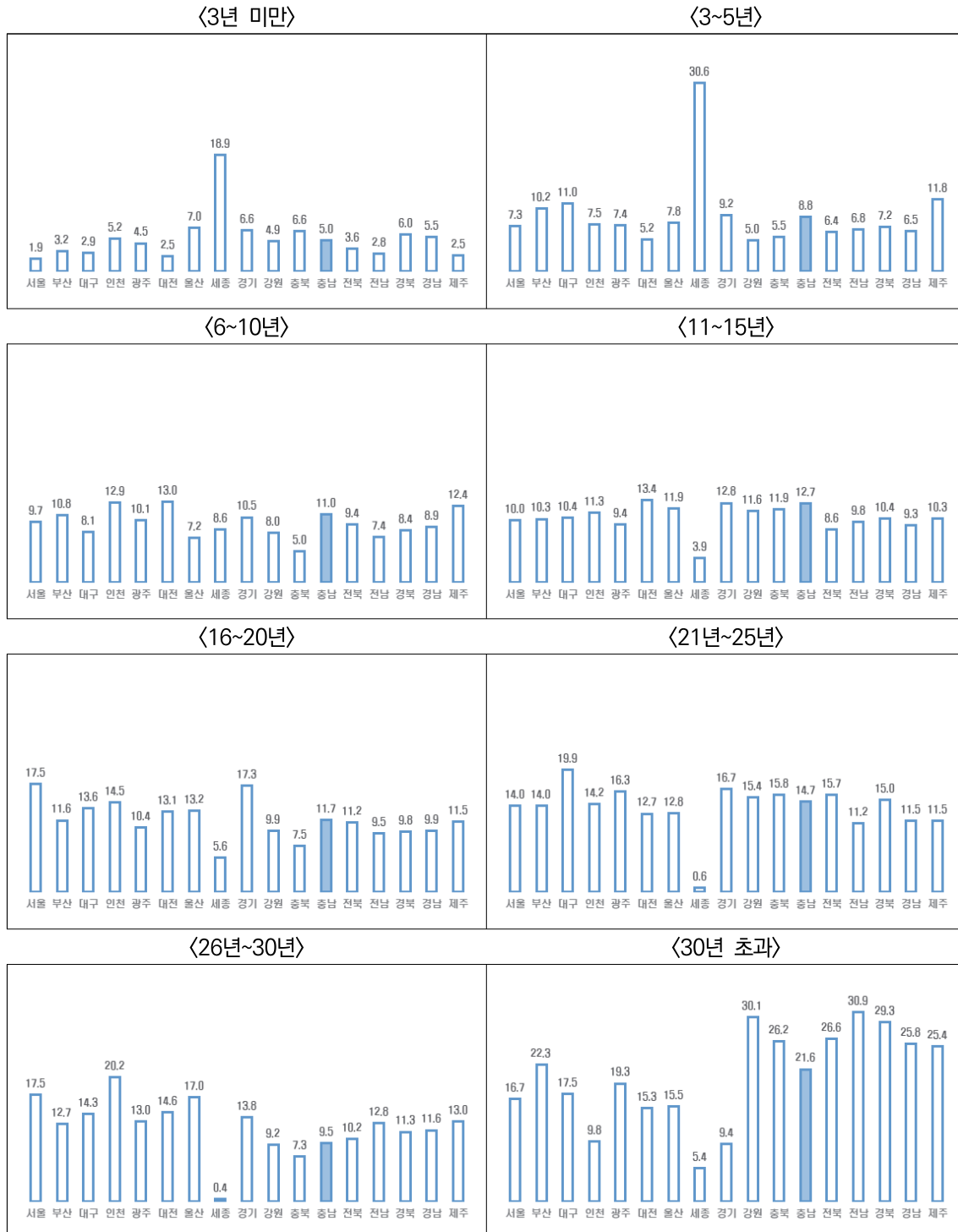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주택이 지어진지 6년 이상 15년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지어진지 11~15년이 된 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 비중이 12.7%로 전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고 6~10년이 된 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 비중은 11.0%로 전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충남은 지어진지 30년이 초과되는 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 비중이 21.6%로 주어진 시기별 응답 중 가장 높지만, 지어진지 30년 초과되는 주택에 거주 응답 비중은 전체 17개 시도 중 9위에 해당함
- 충남 응답자는 주거환경 만족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타 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공공기관 접근용이성(63.3%) 응답이 전체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했고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71.7%)과 교육환경(70.2%) 응답 비중은 만족도가 전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
 - 이외,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86.7%) 응답이 전체 17개 시도 중 15위로 나타났고 의료 시설 접근용이성(62.8%)과 문화시설 접근용이성(53.2%) 응답 비중은 14위로 나타남
 -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주차시설 이용 편리성(77.2%)으로 응답 비중이 전체 17개 시도 중 4 위 해당함

[그림 4-7] 시도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지어진 시기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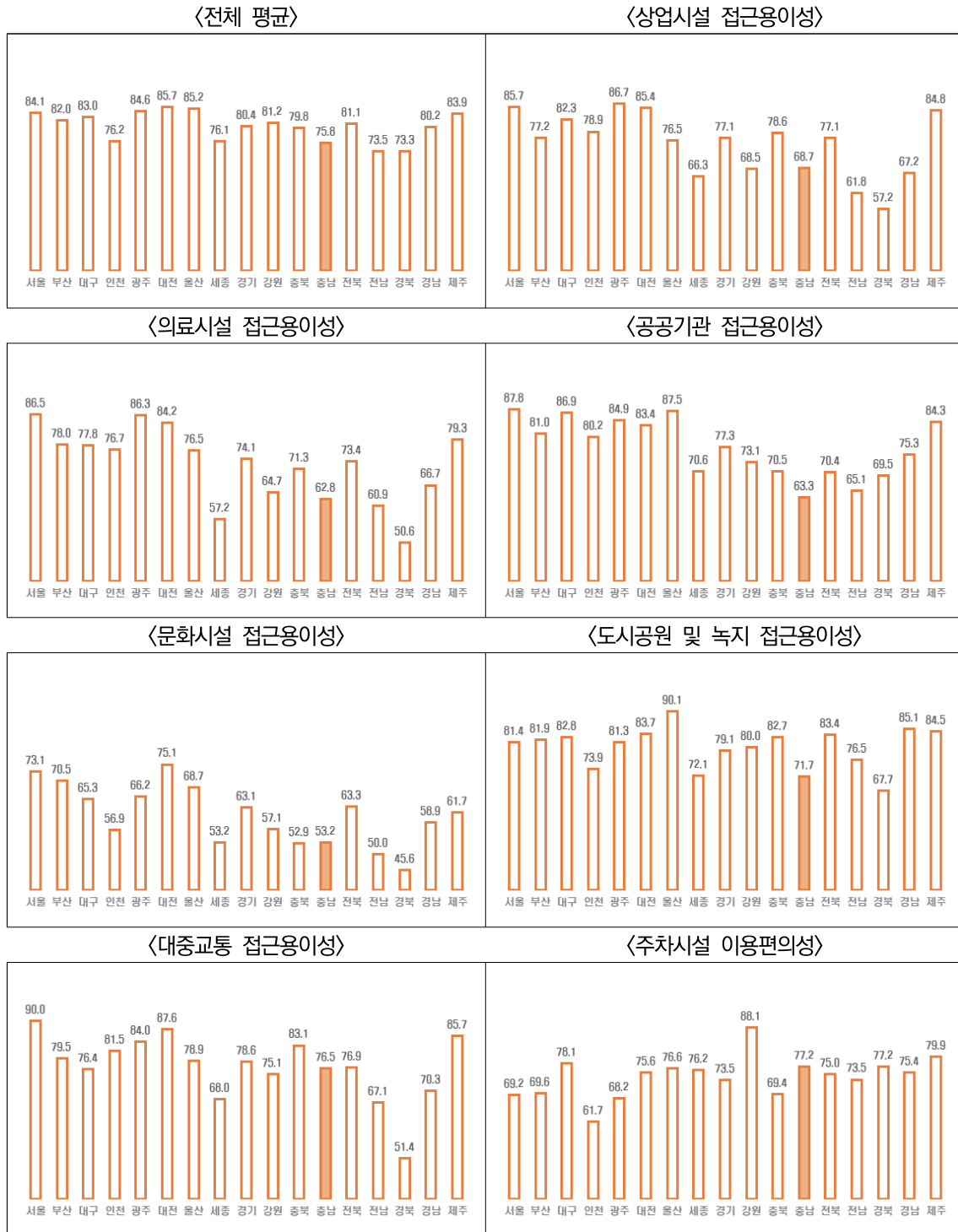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8] 시도별 주거환경 만족도 '만족'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8] 시도별 주거환경 만족도 '만족' 응답 비율(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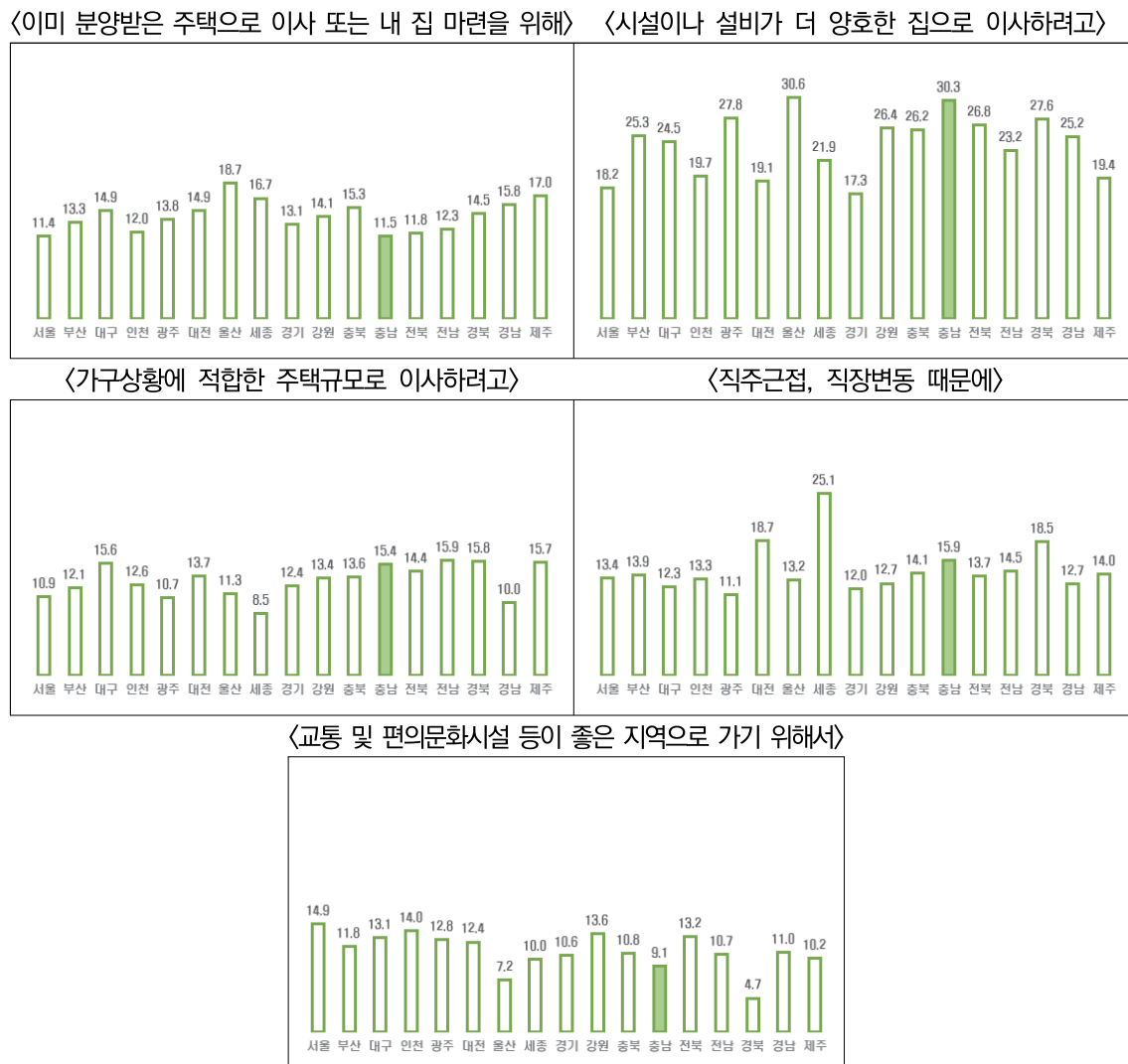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2.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

- 충남 응답자는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와 향후에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 모두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충남 응답자는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로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30.3%로 전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는 응답률이 11.5%로 전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교통 및 편의문화시설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9.1%로 전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9] 시도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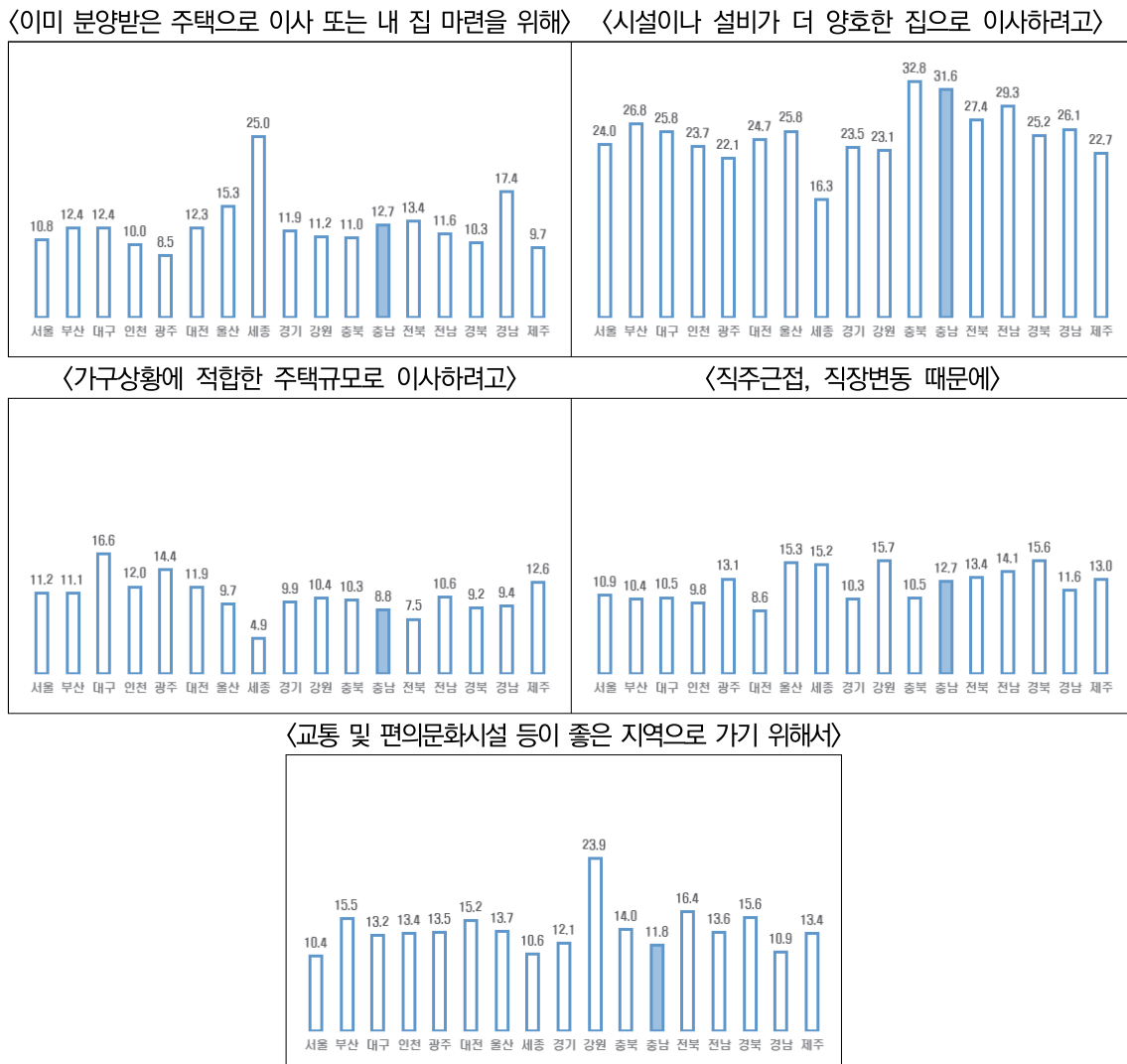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 응답자는 향후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로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31.6%로 전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가구상황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는 응답률이 8.8%로 전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교통 및 편의문화시설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9.1%로 전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10] 시도별 향후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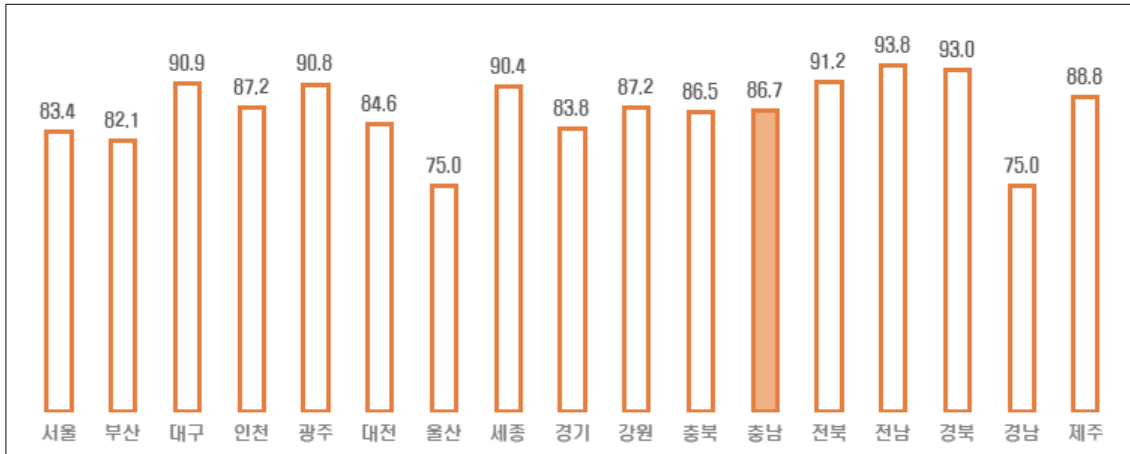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 응답자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보임
- 충남 응답자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86.7%로 높지만, 전체 17개 시도 중 응답률이 10위에 해당함

- 충남 응답자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1순위로 '주거안정 차원에서'가 95.3%의 응답률을 보였고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2순위 응답 중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므로'가 54.5%로 나타났고 전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11] 시도별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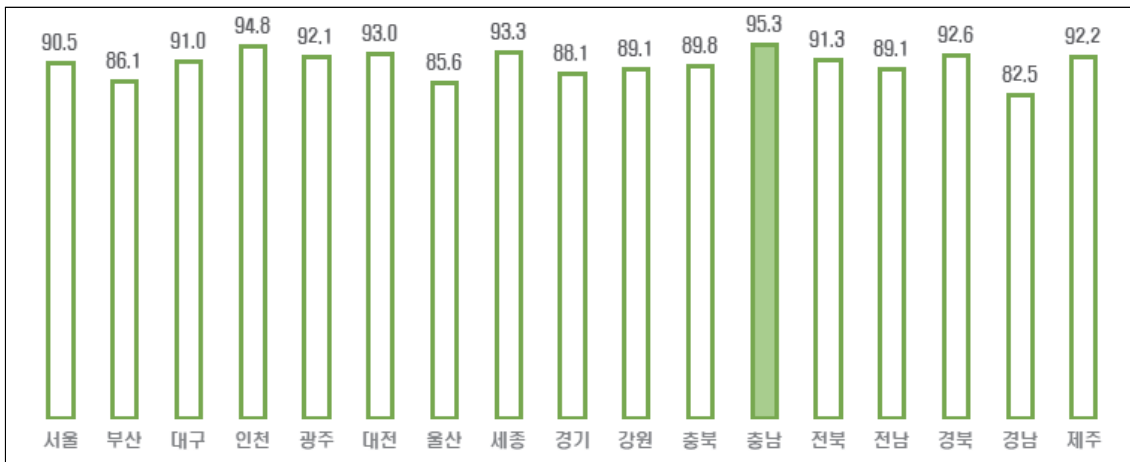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12] 시도별 내 집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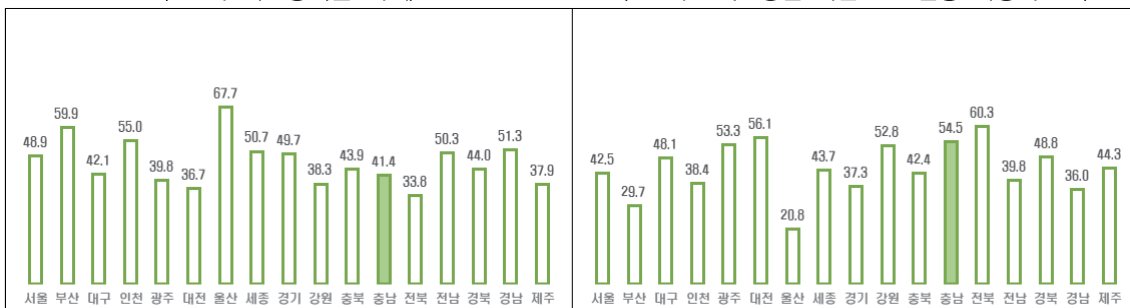
(단위 : %)

〈1순위-주거안정 차원에서〉



〈2순위-자산증식을 위해〉

〈2순위-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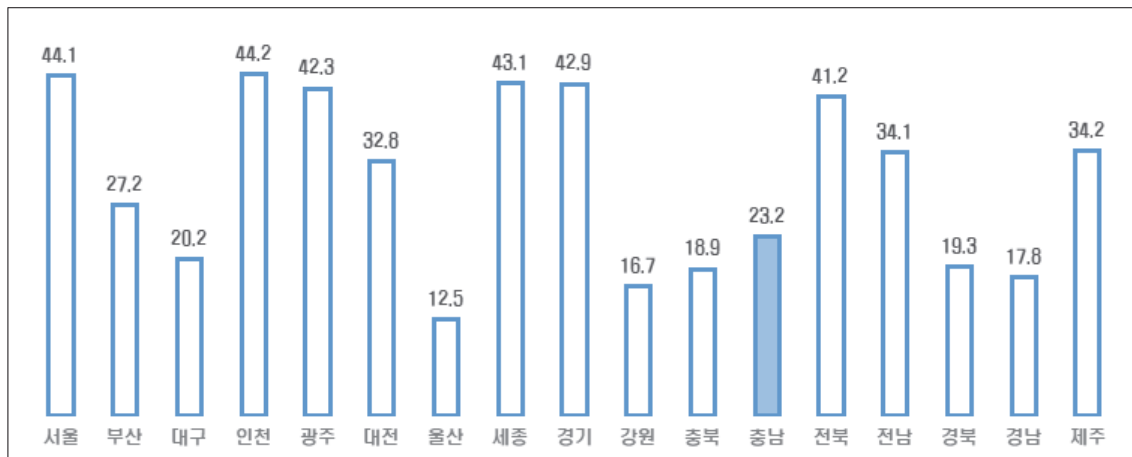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3. 정책평가 및 정책욕구

- 충남 응답자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응답자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3.2%로 낮은 편이고 17개 시도 중 응답률이 일곱 번째로 낮음
 - 충남 응답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등'은 1순위 응답률은 낮지만 2순위 응답률은 23.3%로 2순위 응답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13] 시도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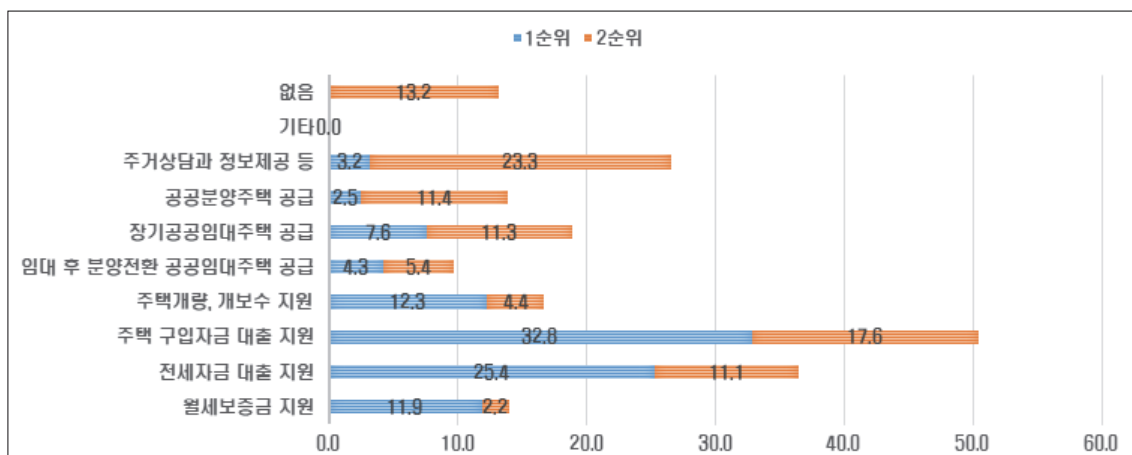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14] 충남 응답자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필요'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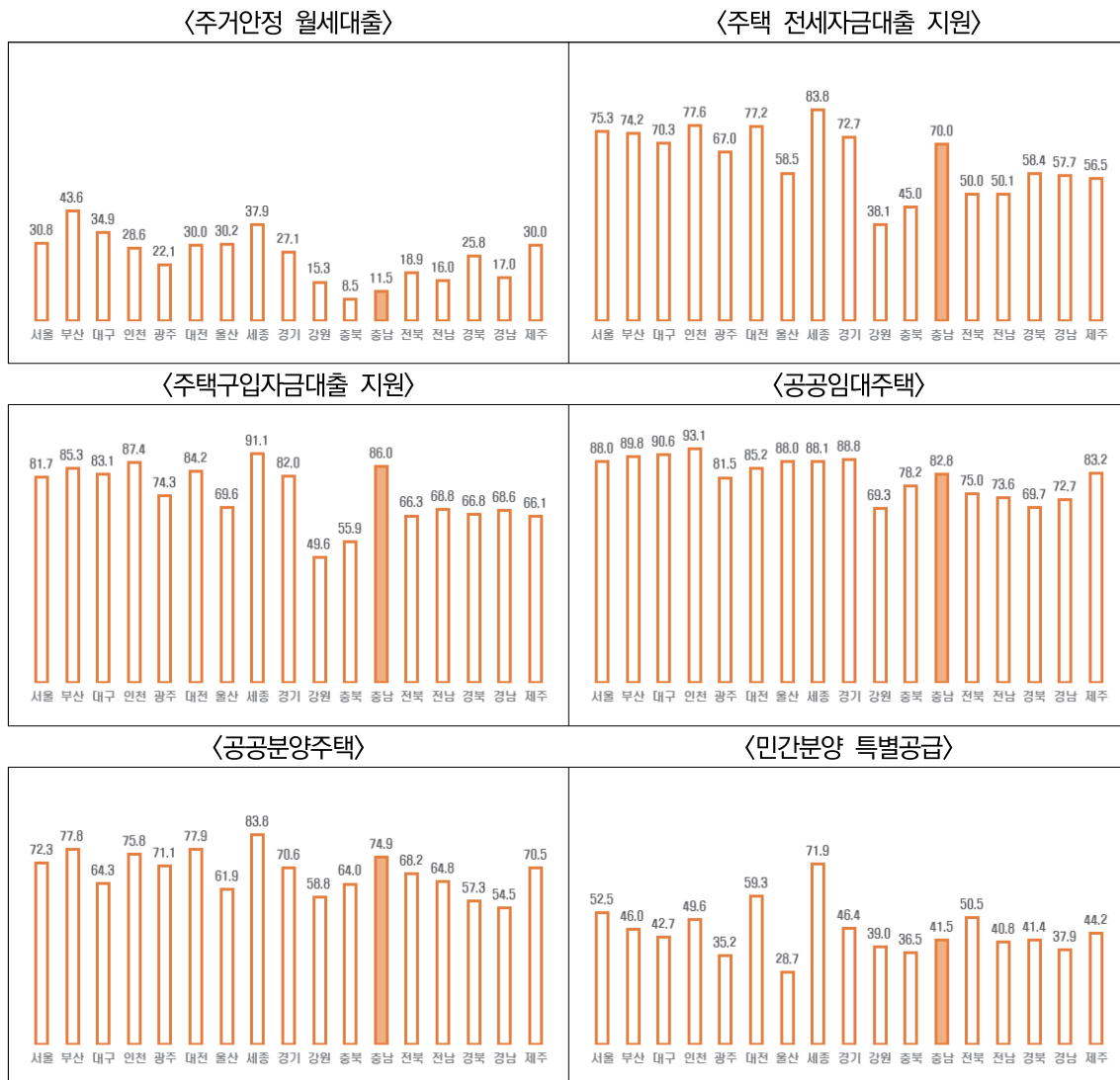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 응답자는 장기간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응답자는 '주택 전세자금대출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은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모두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주거급여 관련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났고 '민간분양 특별 공급'을 외에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남

[그림 4-15] 시도별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알고 있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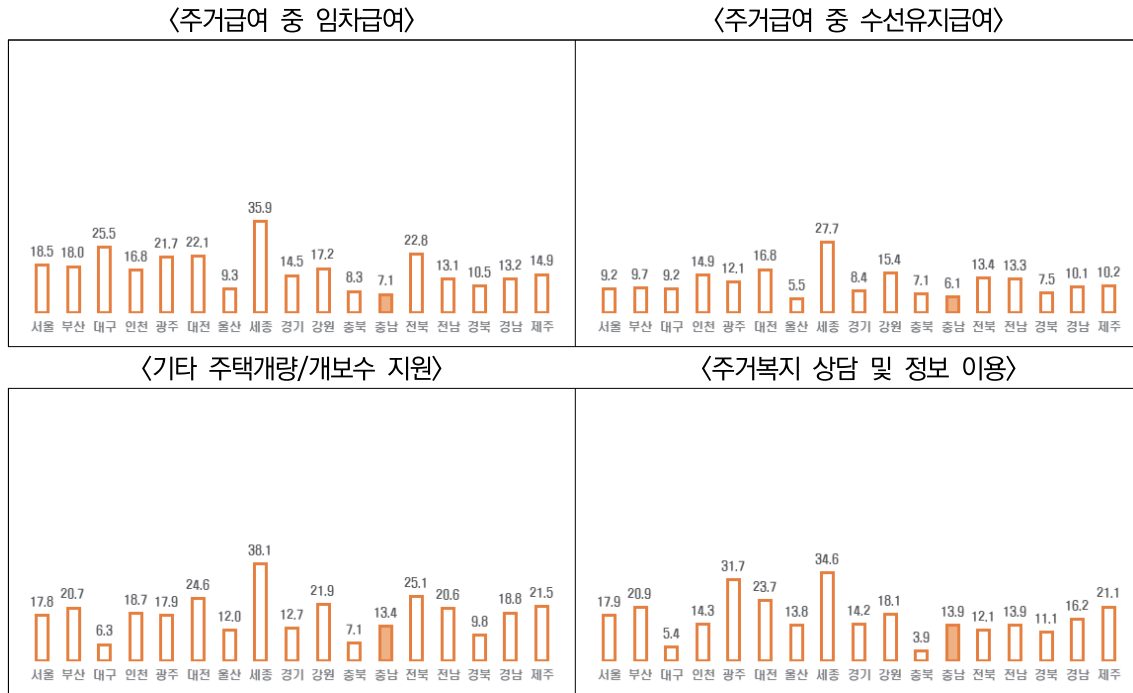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15] 시도별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알고 있다' 응답 비율(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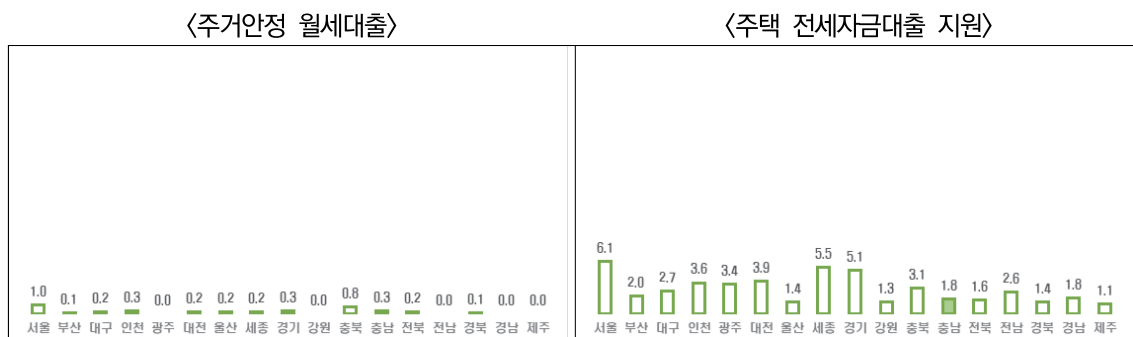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응답자는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제외하면 모두 이용 응답률이 10%미만임
 -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이용 응답률이 전체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입주의향 응답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의 이용 응답률이 같은 충청권인 대전, 세종, 충북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6] 시도별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이용 한다'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16] 시도별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이용 한다' 응답 비율(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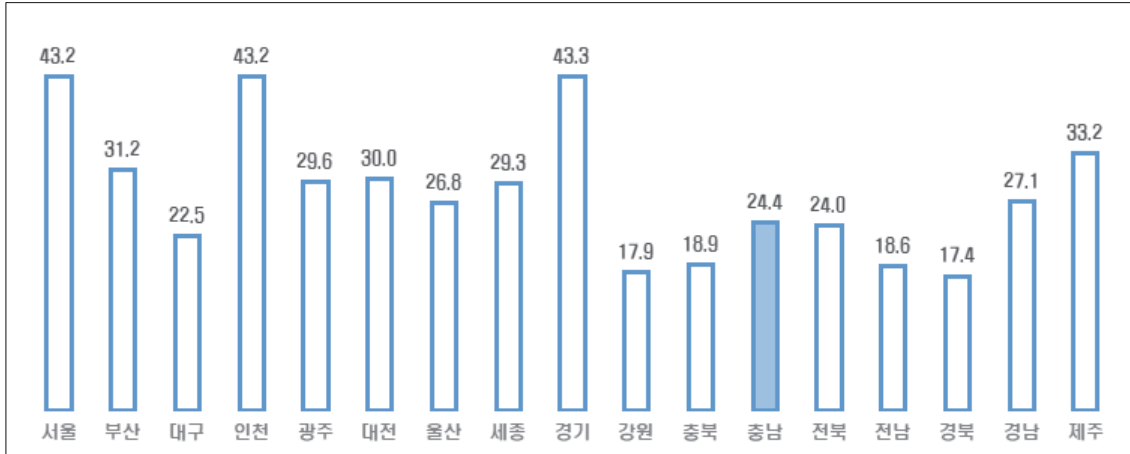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17]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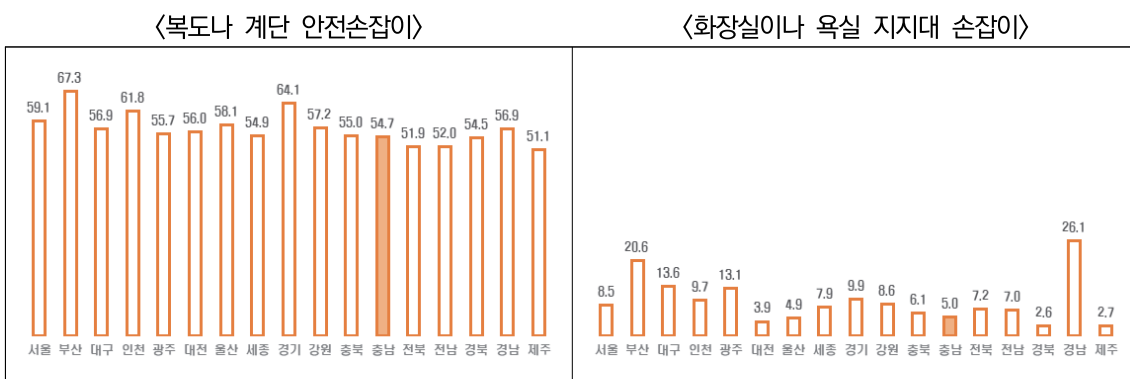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4. 노인가구(가구주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

- 충남 노인가구 응답자는 ‘부엌 작업대’ 개조 비율이 높고 ‘안전한 바닥재’와 ‘주택 내 응급 비상벨’ 개조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노인가구 응답자 중 ‘부엌 작업대’를 개조한 가구의 비율은 69.1%로 전체 17개 시도 중 개조 비율이 1위를 차지함
 - 충남 노인가구 응답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개조 부분은 ‘안전한 바닥재’와 ‘주택 내 응급 비상벨’로 필요로 하는 노인가구 비중은 각각 37.6%, 30.9%로 나타남

[그림 4-18] 시도별 주택개조 부분별 경험 ‘있음’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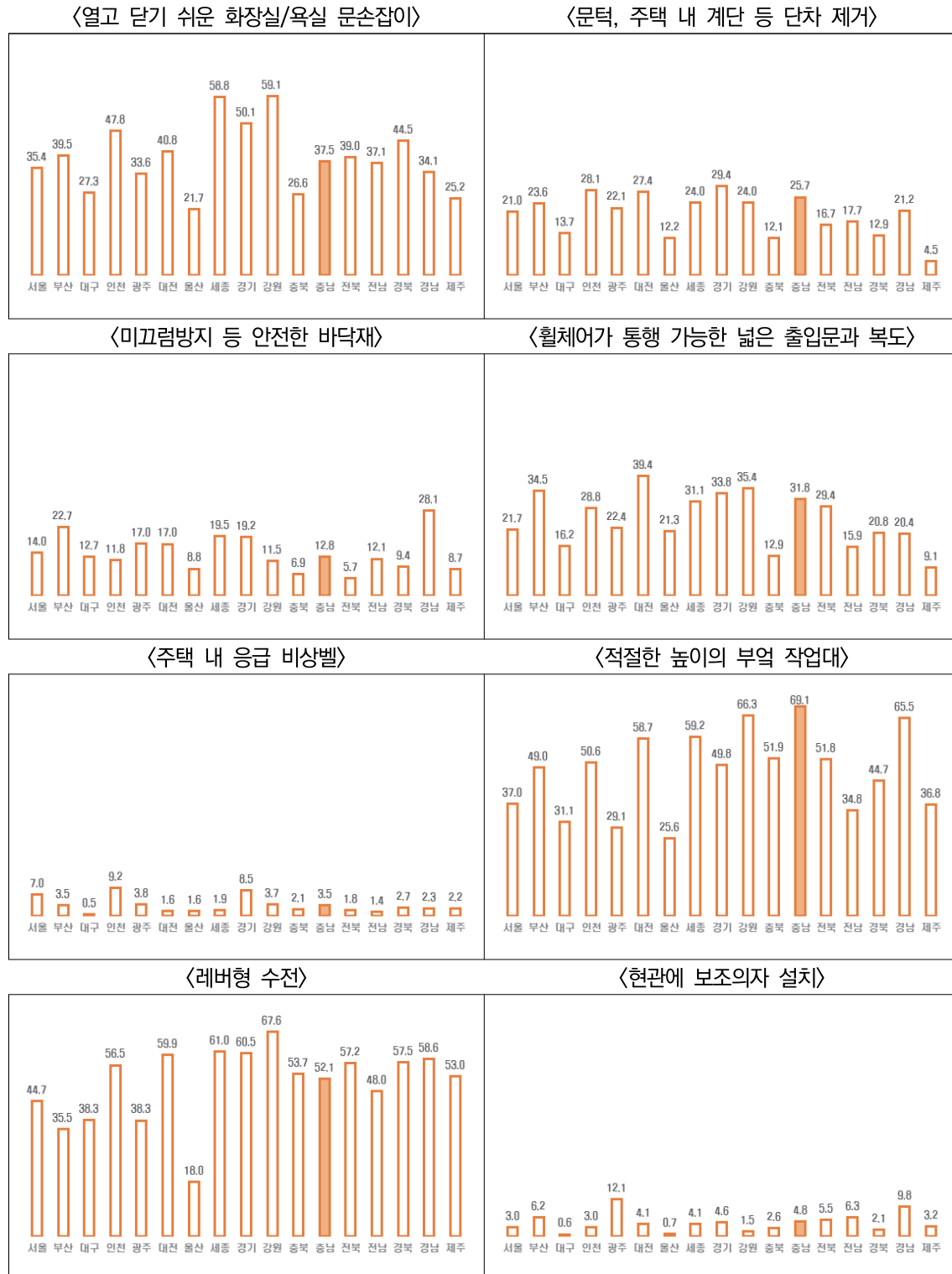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18] 시도별 주택개조 부분별 경험 '있음' 응답 비율(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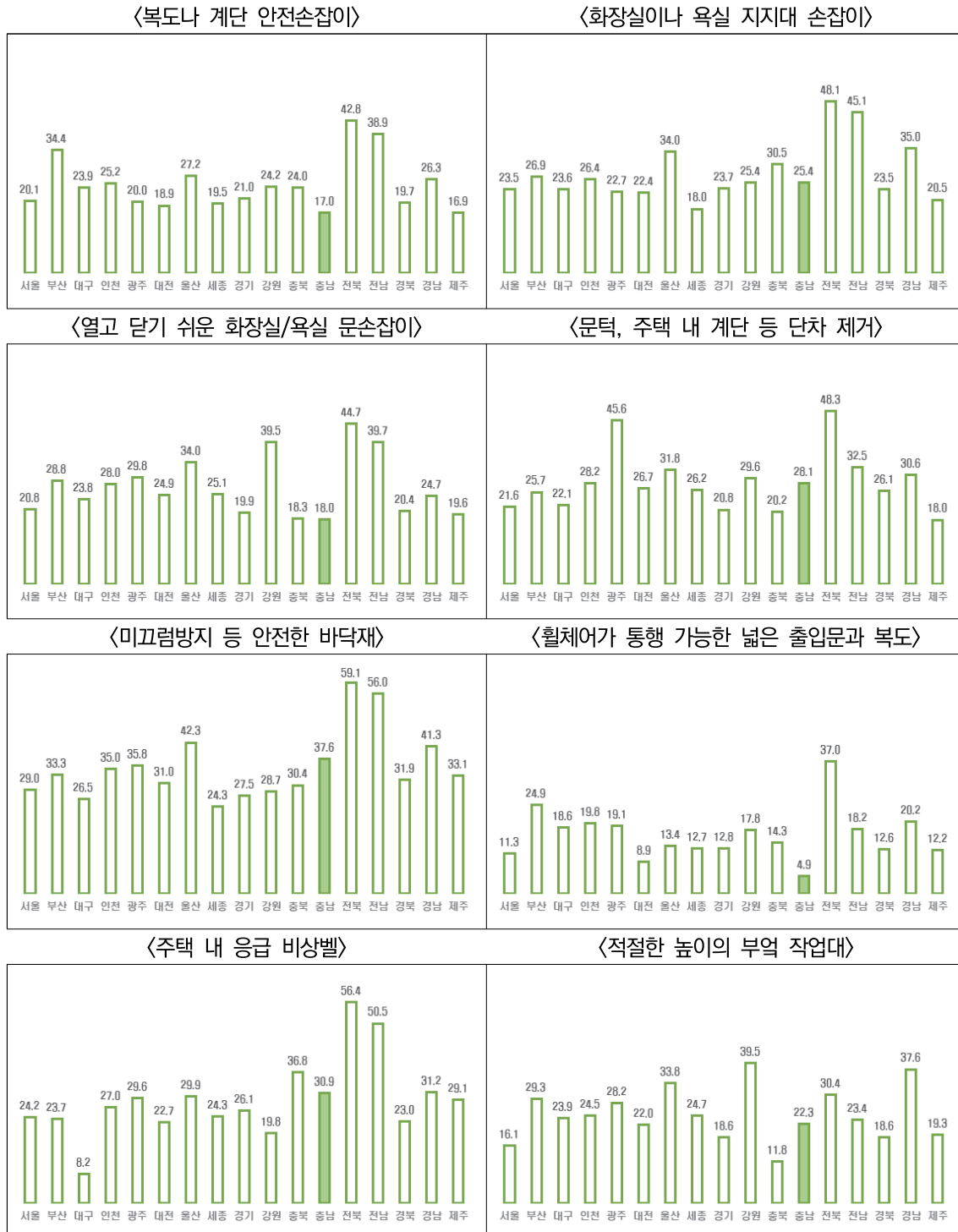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19] 시도별 주택개조 부분별 필요성 '필요'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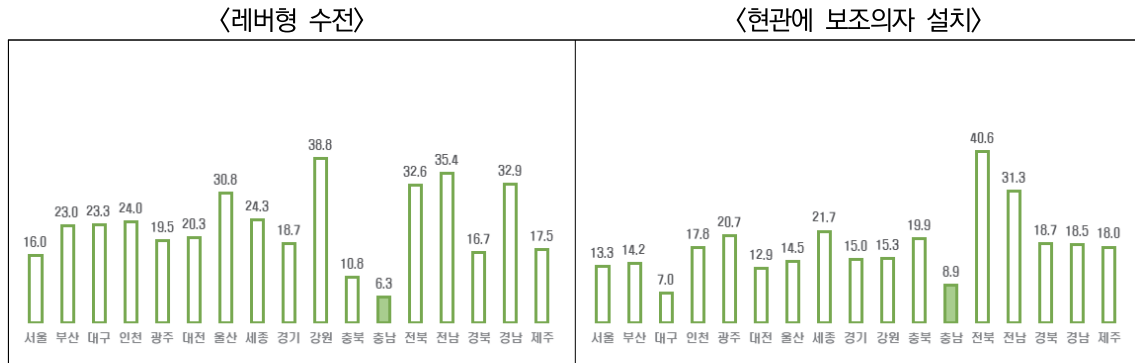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19] 시도별 주택개조 부분별 경험 '있음' 응답 비율(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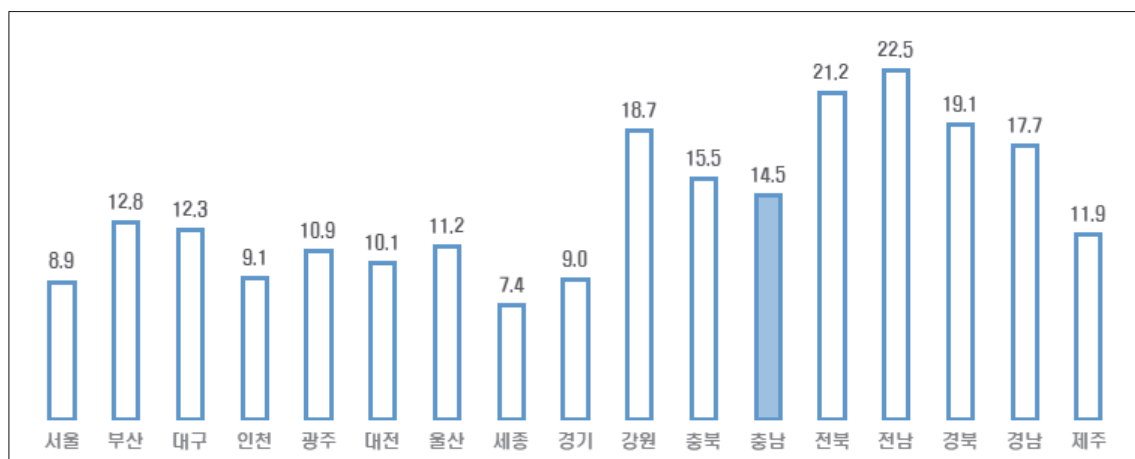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5. 독거노인가구

- 도 지자체의 독거노인 응답자 비중이 높는데, 충남은 도 지자체 중 독거노인 응답자 비중이 낮은 편
 - 충남 전체 응답자 중 독거노인 응답자의 비중은 14.5%로 전체 17개 시도 중 7위에 해당하지만, 지자체(9개) 중에서 7위에 해당
 - 도 지자체 중 전북과 전남의 독거노인 응답자 비중이 높는데, 독거노인 응답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22.5%)에 비해 충남은 독거노인 응답자 비중이 8%p 낮게 나타남

[그림 4-20] 시도별 전체 응답자 중 독거노인 응답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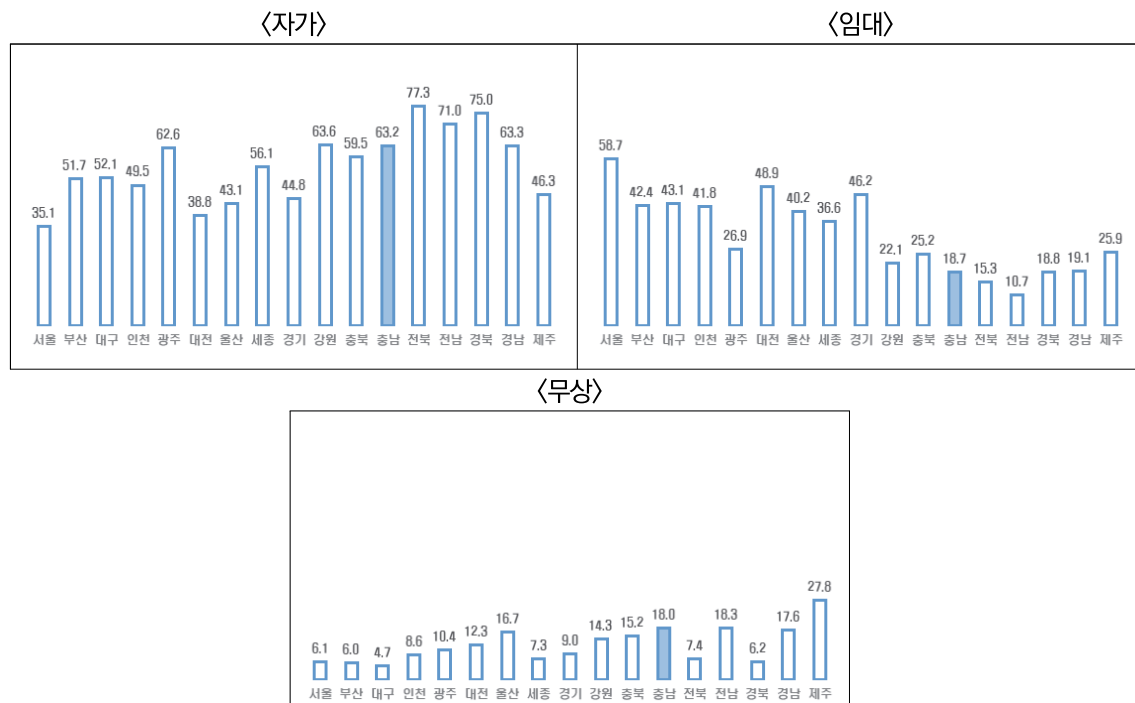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의 독거노인 응답자는 자가에 거주하는 응답 비중이 높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응답 비중은 낮지만, 무상으로 거주하는 응답비중은 높게 나타남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자가에 거주한다는 응답 비중은 63.2%로 전체 17개 시도 중 6위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 비중은 18.7%로 전체 17개 시도 중 15위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응답 비중은 18.0%로 전체 17개 시도 중 3위

[그림 4-21] 시도별 독거노인 주거 점유형태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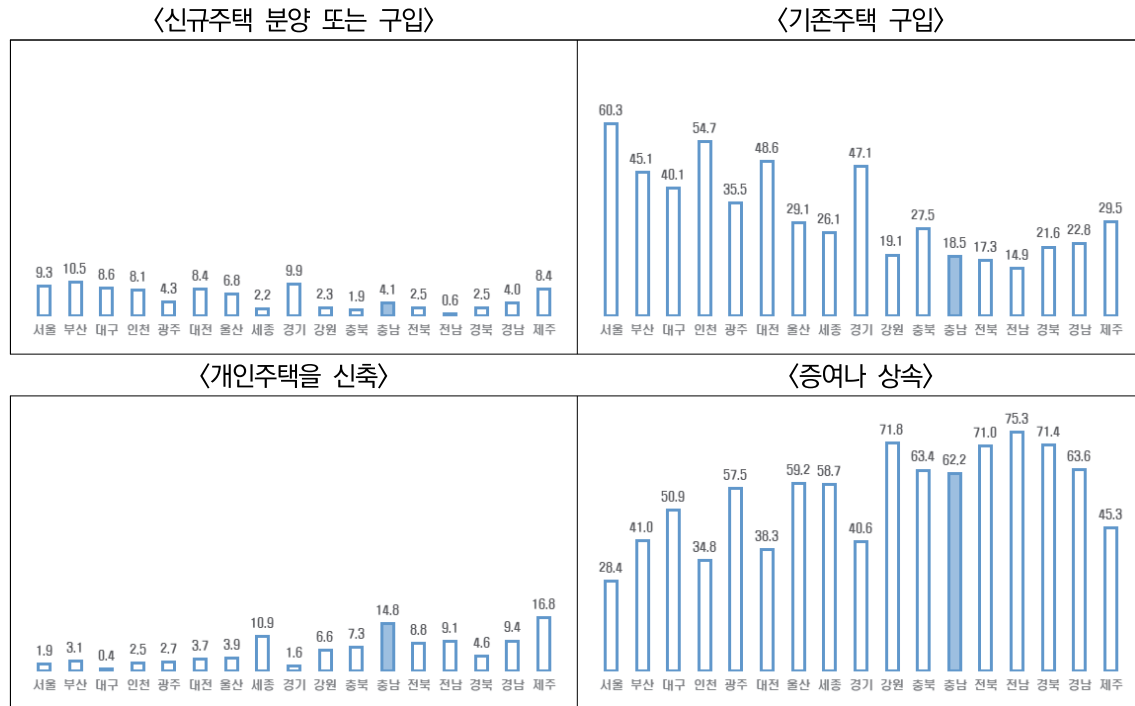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의 독거노인 응답자는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을 마련했다는 비중이 높음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62.2%는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을 마련했고 신규주택 분양 또는 구입이나 기존주택을 구입한 응답자는 타 시도에 비해 적게 나타남
 - 충남 독거노인은 타 시도에 비해 개인주택을 신축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는데, 14.8%로 전체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

[그림 4-22]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마련 방법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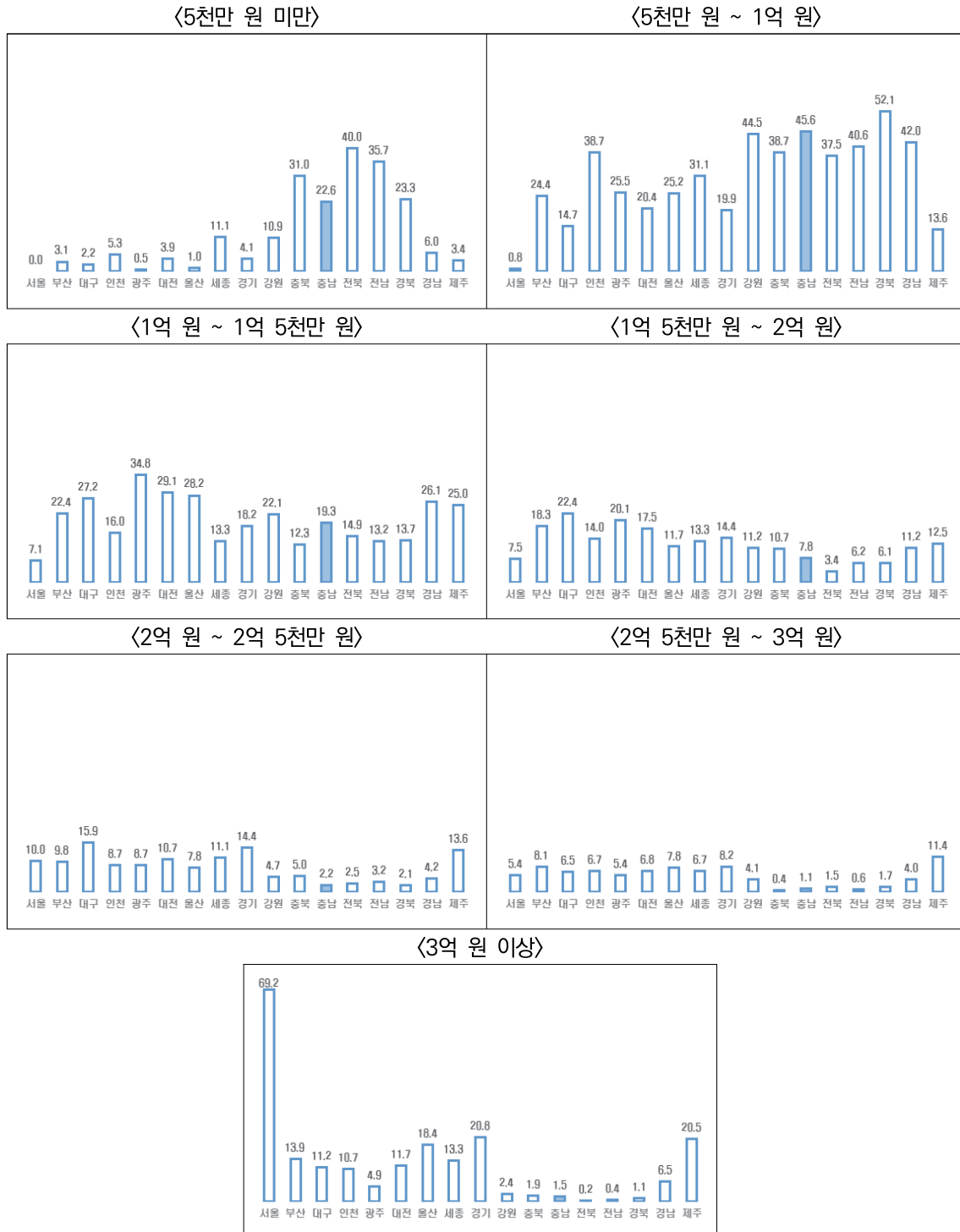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의 독거노인 응답자는 현재 주택가격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거주하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고 응답자의 주택가격 평균도 8천 6백만원으로 나타남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45.6%는 현재 주택가격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천만 원 미만이 22.6%로 독거노인 응답자 상당수가 거주하는 주택의 자산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독거노인 응답자 69.2%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광주를 제외한 광역 시 독거노인의 10% 이상은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독거노인의 주택자산 가치에 대한 지역 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시사됨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의 주택가격 평균은 8천 6백 2십만 원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14위에 해당하고 같은 충청인 대전(1억 6천 9백 6십만 원)과 세종(1억 5천 9백 5십만 원)에 비해 응답 평균이 7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3]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가격대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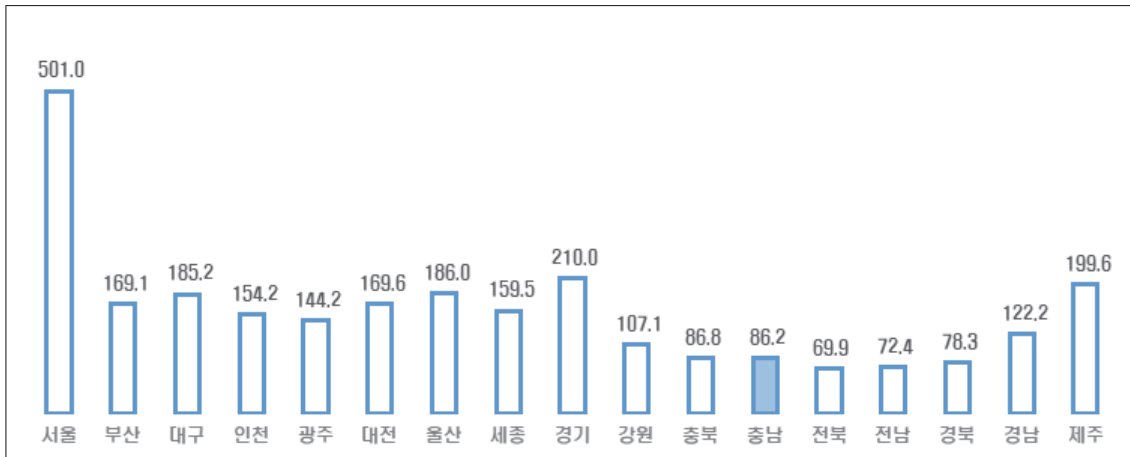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24]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가격 응답 평균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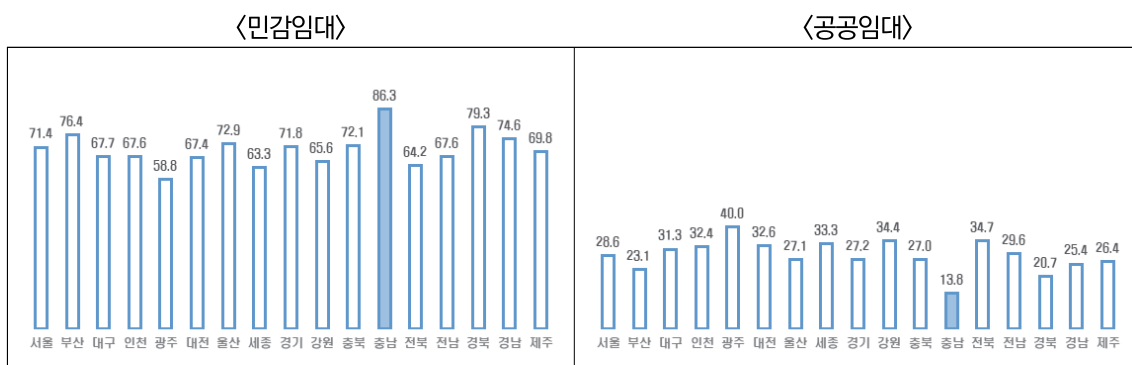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의 독거노인 응답자는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독거노인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86.3%가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있고 응답 비율이 전국 1위이며, 13.8%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남은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74.4%는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단위 지자체 중 응답 비중이 2위에 해당함

[그림 4-25] 시도별 독거노인 임대주택 유형별 거주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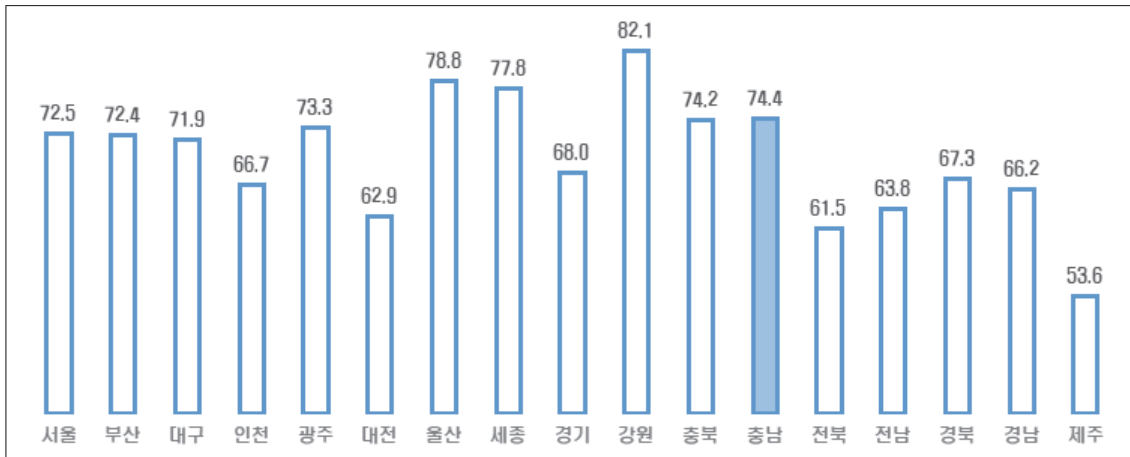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26]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 상환 '부담'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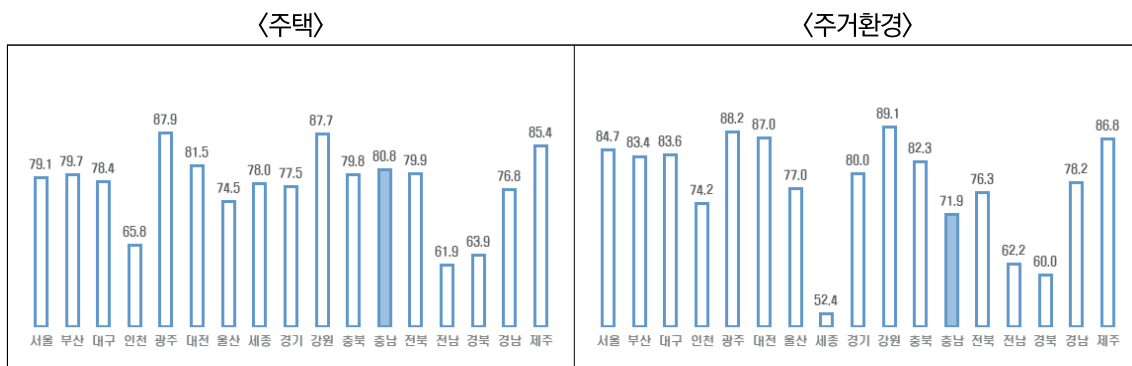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의 독거노인 응답자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타 시도에 비해 높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80.8%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전체 17개 시도 중 응답 비중이 5위에 해당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71.9%는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전체 17개 시도 중 응답 비중이 14위에 해당

[그림 4-27] 시도별 독거노인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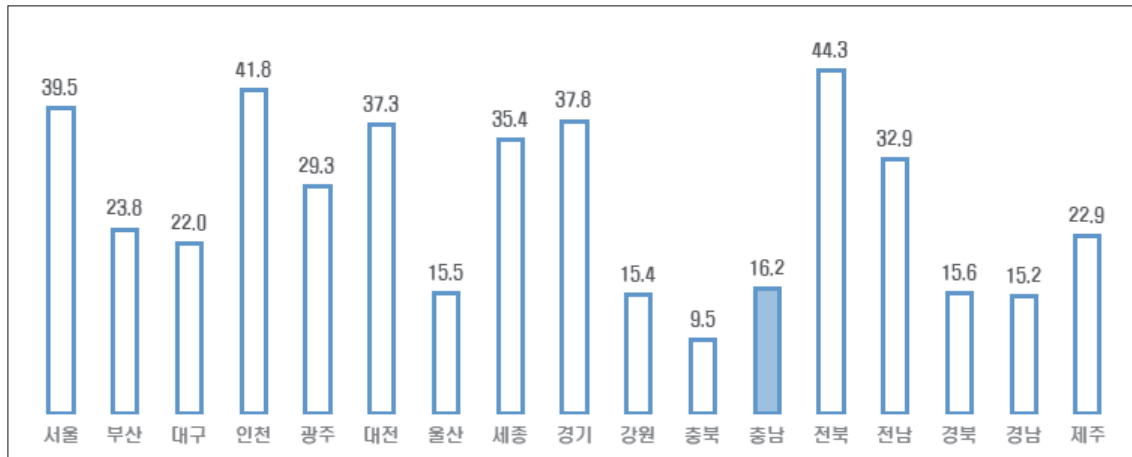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 충남의 독거노인 응답자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충남의 독거노인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입주의향은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6.2%로 전체 17개 시도 중 12위에 해당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 중 공공임대주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3.8%로 경기를 제외하면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는 응답비중은 56.3%로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

[그림 4-28] 시도별 독거노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하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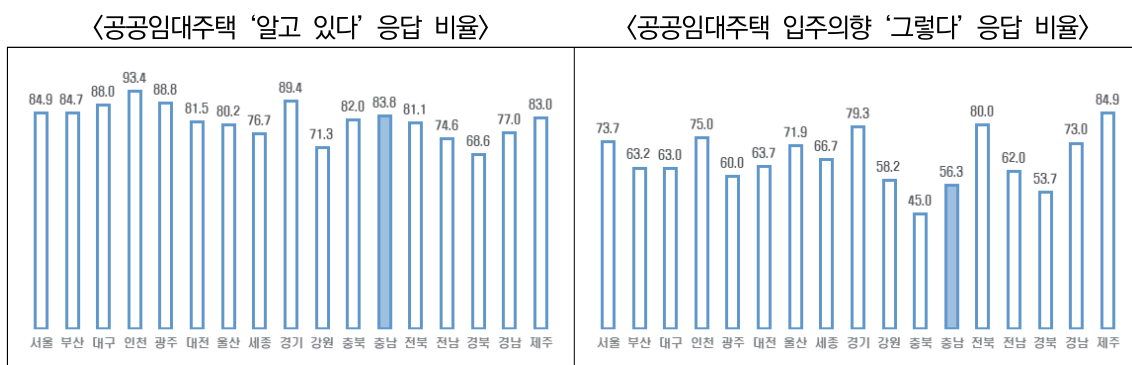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그림 4-29] 시도별 ‘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 공공임대주택 인지 및 입주의향 응답 비율

(단위 : %)



자료 : 2019 주거실태조사

제3절 시사점

1) 주택 및 주거환경

- 충남의 자가 거주 비율은 낮고 최근에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한 비중이 낮지만, 주택 마련 평균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남
 - 도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비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주택 구입 비중이 높지 않고 주택 구입자금 중 자기자금 비중이 낮으며, 주택 임차료나 대출금 상환도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주택이 지어진지 6년 이상 15년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주거환경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타 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충남이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주환경의 개선이 필요
 - 특히 주거환경은 기업유치 시 근로자 및 가족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니만큼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

2)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

- 충남은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와 향후에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 모두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충남은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교육환경,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 의료시설 접근 용이성, 문화시설 접근 용이성이 매우 낮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야함
- 충남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정책평가 및 정책욕구

- 충남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장기간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전반적으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도민이 원하는 주요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개량, 개보수, 월세보증금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나타남
 - 충남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행복주택)'을 지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4) 노인가구 및 독거 노인가구

- 충남 노인가구는 '부엌 작업대'개조 비율이 높고 '안전한 바닥재'와 '주택 내 응급 비상벨' 개조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한 바닥재와 주택 내 응급 비상벨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충남의 독거노인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민감임대주택 거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거노인 응답자 중 주택의 임차료 등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가 상당히 많음
 - 독거노인의 주거안정화 및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 및 임차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
- 충남 독거노인 응답자의 주택가격 평균은 인근 시도인 대전, 세종보다 7천만 원 이상 낮게 나타났고 독거노인 응답자의 주거환경 만족도도 낮게 나타남
 - 독거노인의 거주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전, 세종 등에 버금가는 각종 편의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격 향상을 유도하여 독거노인의 자산 가치 증대 필요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9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7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하반기)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9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ids.kostat.go.kr

참여연구진

주 관 기 관	충청남도청 데이터정책관 통계팀	
연구수행기관	충남연구원	
연구 책임	김양중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내부연구진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수	충남연구원 연구원
자 문 위 원	석진홍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전략팀장
	안수영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MDIS 분석연구
